

묘전 스님(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장애인 편견 없어지는 날까지
쉼없이 정진하겠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1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76호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공동경비구역에 부처님 가르침 전한다

조계종 군종교구, 내년 JSA 법당 불사 시작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2016년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불사를 시작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2월 1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 신축을 의결했다.

신축법당은 JSA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위치하게 되며 고려시대 전통을 되살린 목조건축물로 지어진다. 법당은 25평 규모로 신축법당 내에는 아미타 삼존불과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는 무량수전이 자리한다.

그동안 불교계는 JSA 내 종교 중 가장 열악한 시설을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는 교회가, 가톨릭은 공소가 JSA 내에 있었다. 기존 법당으로 활용되던 영수사 건물은 막사를 개조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법당으로 보이지 않았다.

군종교구 측은 "전통사찰 형식으로 지어 외부에서도 불교법당을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JSA 근무 군장병들과 연간 수만명의 국내외 안보현장 견학자들이 한국전통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또한 법회를 봉행하며 DMZ 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불교 홍포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법당 시설 중에는 무량수전과 함께 종각도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JSA 법당에서 군종교구는 부처님오신날 등에 평화기원 행사와 함께 타종식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군종교구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총 21억 8800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교구 일반회계가 16억 8800만원에 불사 특별회계는 5억원이다.

특히 군종교구는 2016년 중점사업으로 군승 포교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발생한 자살 · 총기난사 사건 등의 예방차원에서 군승들의 부대 위문활동이 확대된다.

또 신규사업으로 간부와 군가족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군종교구는 현재 군간부를 대상으로 신행지도 등에 나서 매년 간부불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군법당 불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군법당 표준설계안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설계비용을 아끼고, 군법당 신 · 증축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5억 원 책정해
무량수전 · 종각 등 25평 규모
군승 위문활동 · 계층포교 강화
조계종 총본산 불사에도 동참

끝으로 현재 조계종이 추진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에도 군종교구도 전 군법당이 1억원을 모연해 동참하기로 했다.

군종교구는 "2015년 다사다난했던 군포교 현장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불법홍포에 나서고자 한다"며 "노후법당 개선, 부대 이전 등의 변화로 인한 법당 신축, 다양한 군계층 포교 등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지난 12월 3일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 4차 사업으로 전군 77곳 부대에 보온용품 핫팩 25만개를 전달했다. 군종교구는 후원계좌와 ARS를 개설해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사찰과 단체, 개인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060)700-010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은 12월 16일 조계사 일주문에서 오는 25일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트리 전통등 점등식과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예수"

조계종, 16일 트리 점등… 축하 메시지 발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종교간 평화 염원이 담긴 전통등 트리가 불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 조계사 일주문에서 오는 25일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트리 전통등 점등식과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는 말씀처럼 서로를 마음의 온기로 대하면, 갈등과 폭력을 벗어나 공감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성숙진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모두가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라면서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 서로에게 빛이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자승 스님과 총무부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사회부장 정문 스님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신정훈 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 등 이웃종교인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나종민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들어선 점등된 전통등은 트리등, 눈사람등, 동자동녀등, 팽귄등, 눈결정 및 별모양등 등 총 16점이며,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2월 26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종단협, 내년 예산 12억 원 확정

징용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 봉행키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016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7억4430만원, 특별회계 4억7300만원 등 총 12억173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희생된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추모위령재를 봉행키로 했으며, 내홍으로 총무원장이 구속된 태고종의 회원 자격도 정지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협은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중국대회, 해외입양아 및 고려인 청소년 초청 한국불교문화체험사업 실시, 성지순례 등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또한 종단협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30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모비 앞에서 위령재를 지내기로 했다. 조세이탄광은 1942년 수몰사고로 강제징용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183명이 희생된 곳으로 종단협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수몰된 유골발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태고종의 종단 분규로 역할과 의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위상이 실추된 점에 따라 2016년 6월까지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불서 13종 2015 세종도서 선정

정찬주 〈불국기행〉 등 수필 분야 4종 올라

종교 6종, 詩 2종, 청소년 1종… 전반적 빈약

정찬주 작가의 〈불국기행〉(작가정신 刊)이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수필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의 저자인 정찬주 작가는 〈불국기행〉을 통해 불교문화의 과거를 살필 뿐만 아니라 불교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헤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팔에서는 석가족 '슈라즈 샤카' 씨를 만나 석가모니의 후예의 역사를 듣고, 남인도에서는 힌두교에 밀려 쇠퇴하는 불교를 목격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불교 기반이 단단하고 활동 영역이 넓은 스리랑카에서는 담불라 승단 종정스님인 수만갈라 스님을 만나 인터뷰하고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서는 운강 석굴에 몰려든 참배객을 보며 어깨를 펴고 있는 중국 불교의 모습을 우리 불교의 현재와 비교했다. 저자의 이런 통찰은 이 책에 깊이를 더하며, 독자가 다양한 문화적 사유를 하도록 도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세종도서 선정은 크게 문학나눔과 교양부문으로 나뉜다. 문학나눔 서정 목록을 살펴보면 시집분야서 총 135종이 선정됐는데 불서 및 불교작가가 선정된 것은 문태준 시인의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창비 刊)과 문정희 시인의 〈응〉(민음사 刊) 등 2종뿐이다. 소설 분야도 72종이 선정됐는데 그중 불교관련 도서는 김선우 작가의 〈발원〉(민음사 刊)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필분야는 총 111종중 4개인데 정찬주 작가의 〈불국기행〉을 비롯해 함영 작가의 〈공양간 노란문이 열리면〉(참글세상 刊), 강석경 작가의 〈저 절로 가는 사람〉(마음산책 刊), 원철 스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불광 刊) 등이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는 총 173종이 선정됐는데 불서는 오미경 작가의 〈직지 원정대〉(휴먼 어린이 刊)뿐이다.

교양부문 선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 분야이다. 총 23종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 불교관련 도서는 6종이다. 〈꼬마달마의 마음수업〉(이지형 지음, 청어람미디어 刊), 〈불자로 산다는 것〉(도일 지음, 불광 刊), 〈붓다와 다시시작하는 하루〉(불도징 지음, 평단 문화사 刊), 〈붓다의 옛길〉(삐야닷시 테라 지음, 달물 刊), 〈생태문제에 종교가 답하다〉(길희성 외 14인 지음, 운주사 刊), 〈스승과 제자, 함께 걷다〉(성재헌 지음, 조계종출판사 刊) 등이다.

한편 세종도서 선정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양질의 도서를 심사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2,600곳에 배포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종단 화합조치法' 내년 3월 종회 상정

조계종 종헌특위, 12차 회의서 결의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 사면 및 종단 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종단 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위원장 초격)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회의에서 스님들은 지난 10월 개최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 공청회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공청회에서 제안된 특별법 제정, 호계원법 내 특별재심청구 사유 확대, 종헌 128조 개정 등 다양한 사면의 방법을 통한 화합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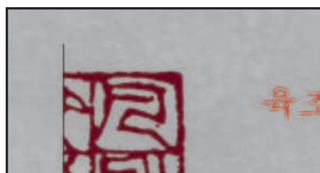
또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원로회의가 요청한 △종헌개정안 인준 시 원로회의 의원 2/3 동의 △원로회의법 내 원로의원 면책특권 조항 신설 △원로의원 임기 만료시 자동으로 명예 원로의원 위촉 △출가자 연령 제한 50세 규정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원로회의의 제안인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행 승려법에서 징계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방안, 선거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보완하는 방안, 의제법과 법계법 개정 등 2016년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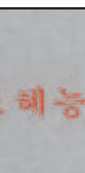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76호 INDEX

시방세계 5
2015년 10대 뉴스 및 키워드



강의실중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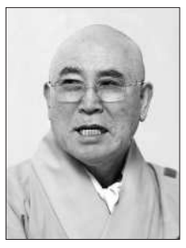
윤성식 고려대 교수
'부처님 부자 수업' 강연

한국불교 토픽 36선 24
임진왜란과 의승군의 활약

종단 원로의 아름다운 회향

종하 스님, 동행에 꾸준한 기금 전달 '귀감'

총 1억 1565만원 회향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사진, 서울 관음사 주지)은 12월 15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원로의원 종하 스님이 그동안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한 금액은 총 1억1565만6890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아름다운동행과 인연을 시작한 종하 스님은 그해 3월 아름다운동행에 자비 나눔 사업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동행 출범 이후 첫 번째 기부자가 됐다.

이후 종하 스님은 지난 2010년 과 2011년에도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아이티와 일본 구호기금을, 올해 4월에도 아프리카학교 건립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토론 문화 정착 100인 대중공사 회향

14일 회향식 개최… 사부대중 250명 참석

조계종이 1년 동안 진행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마무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회향식을 개최했다. '대중공사, 이야기 꽃밭이어라'를 주제로 열린 회향식에서는 대중공사 위원들을 비롯해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 대중들은 9차례 대중공사를 진행한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꽃을 전달하는 '꽃밭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9차례 대중공사에 모두 참석해 개근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중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서울 불광사, BTN불교TV에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감사의 말을 통해 "지난 1년 간 9차례의 대중공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았다"면서 "한해에 5° 씩 매년 개선해 나간다면 5년 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정면에 종단의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인 위원들이 경험을 살려 가정과 직장, 사찰과 단체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대중공사의 꽃을 피워 미래를 만들어 가자"면서 "내년에는 대중공사가 전국으로 열기를 더하여 교구본사와 지역에서도 만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참가 의원들의 격려도 이어지도 했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서 사부대중이 모여 대중공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대중공사는 불교의 꽃이다. 한국불교의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내년에도 대중공사가 지속됨을 예고했다. 도법 스님은 "대중공사 평가 설문을 보니 90% 이상이 대중공사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그간 대중공사가 그릇과 도구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담길 내용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아직 세부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판과 사판이 원융무애한 한국불교의 방향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0인 대중공사 회향식에서는 화쟁위원회가 주최한 화쟁소설 〈발원〉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대상 김성준 씨 등 4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또 청암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남한산성의 소리' 시사회도 함께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회향식을 개최했다.

갈등·반목 속에도 소통의 씨앗 움터

2015 종단 결산

2015년 한해 동안 종단들은 잇단 범계 의혹과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았다. 그런 와중에도 변화와 소통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뤄졌다.

조계종은 제2교구본사 용주사로부터 시작된 범계 의혹부터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의 문제까지 1년 동안 갈등의 연속이었다.

용주사의 경우 중진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주지 성월 스님의 금권선거, 은처 등 범계 의혹을 제기했다. 8월 31일 용주사 일주문 앞에서 집행부 측과 중진 비상대책위원회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전강문도회도 용주사 집행부 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종회에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중앙종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동국대는 이사장 일면 스님의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은 세간과 출세간을 거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면 스님은 무고를 주장하며,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일부 언론사들 고소하기도 했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10월 15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12월 3일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 50일을 단식했다. 결국 김 부총학생회장의 단식으로 동국대 이사회는 조건부로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6월 18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도 큰 파문을 가져왔다. 재심호계원은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조계종 잇단 범계 의혹에 곤혹
서의현 재심 판결 대중 공분도
대중공사 통한 소통 계기 마련
법인법 놓고 선학원 갈등 첨예
태고종 사태 해결은 '오리무중'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뒤집고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다.

파문은 컸다. 1994년 개혁 주체 세력 중 하나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94년 개혁 정신의 퇴행"이라고 재심 판결을 비판했다.

총무원장 자승 · 교육원장 현응 ·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7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분명했다. 결국 의현 스님 사안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의제로까지 상정됐고, 재심호계위원 전원 사퇴 권고와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구성됐다.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에서 큰 역할을 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올해 조계종이 보여준 성과다. 1월 28일 처음 시작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불교계 토론문화와 종단 내부 소통에 큰 기여를 했다. 종단 현실과 미래를 참가 위원에게 듣는 것으로 시작한 100인 대중공사는 11월 25일까지 8개의 의제를 다뤘다.

조계종은 내년에는 대중공사 '시즌2'를 계획 중에 있다. 현재 분기별 추진과 장기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토론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국 교구본사 · 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인관리법을 두고 빚어진 선학원과 조계종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 정상화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 · 제안과 소송'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보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11월 17일 발표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는 법인관리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태고종의 내홍은 지금까지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태고종 종단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23일 태고종 총무원을 강제 점거하면서 문제는 불거진다. 이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집행부, 청년회원 등 30여명은 2월 11일 새벽 2시경 비대위가 점거 중인 청사에 재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이뤄졌고 양측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11월 3일에는 집행부와 비대위의 수장 모두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종정 혜초 스님이 유시를 내리고 종회가 개원해 사태 수습에 나서 향후 상황이 예의 주시된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홍으로 인해 태고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회비와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내년 6월까지 정지됐으며, 복귀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위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14대 개원종회… 내홍은 여전

설운 스님 의장 선출 등 안건 처리, 내년 예산 총 61억 7천여만원

태고종단 정상화와 화합을 위한 제14대 개원종회가 열리면서 집행부 구성이 이뤄져 종무행정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은 12월 15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개원종회 및 제123회 정기중앙종회'를 개회했다. 개원종회에는 재적의원 49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설운 스님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설운 스님은 40표 중 24표를 얻어 재적의원 49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출석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수석부의장은 법담 스님, 차석부의장은 시각 스님이 선출됐다.

의장단 선출 이후 중앙종회는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61억7339만7000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개원종회에도 불구하고 종단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종정 혜초 스님의 유시를 통해 종단사태 수습의 전권을 부여 받은 인곡 스님과 현 집행부가 종단 운영의 정당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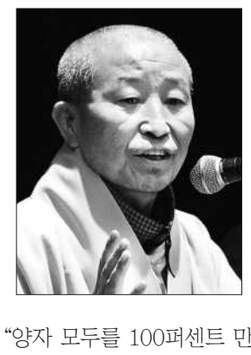
태고종은 12월 15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개원종회 및 제123회 정기중앙종회'를 개회했다. 개원종회에는 재적의원 49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노동현안 해결 '사회적 기구' 마련"

조계종 화쟁위, 한상균 위원장 관련 기자회견

"사회를 '운동 경기장'이라고 표현한다면 현재 이 경기장에는 운동 규칙도 없고, 선수들도 규칙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중재할 주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 사태서 중재 역할을 도맡았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사진〉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관련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12월 11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 위원장의 24일 조계사 은신 사태 관련 화쟁위 중재 역할과 과제를 논한 이 자리에는 도법 스님과 화쟁위원 정웅기, 박병기 교수가 함께했다.

이날 화쟁위는 정부 · 여당과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관련법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도법 스님은 "노동현안에 대한 시비(是非)는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라면서 "양자 모두를 100퍼센트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없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마당을 제안한다. 1차적으로 종교계가 깊은 논의를 갖고,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 다짐했다.

아울러 도법 스님은 "경찰 측과 노동계가 모두 서로의 입장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실력과 역량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었다"면서도 "모두 '평화'를 원하는 마음은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화롭게 잘 마무리됐다"고 자평했다.

박아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업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사찰음식

안국동에 체험관 오픈
12월 15일 개관식 개최

사찰음식 정보 다국어 서비스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5일 서울 종로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모습.

사찰음식 정보 서비스와 체험 · 교육을 한 번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12월 15일 서울 종로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김종덕 국제슬로푸드 한국위원회장, 사찰음식 전문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새롭게 문을 연 체험관은 한국사찰음식의 전통과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사찰음식 복합문화공간이다.

프로그램은 인포메이션, 전시(상시 · 비상시), 체험,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인포메이션을 통해서는 사찰음식 정보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지원, 전문서적 판매, 발우공양 게임 등이 운영되며, 체험관 전시공간은 사찰음식문화의 원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통사찰 공양간 재현, 전통발우 전시, 사찰의 전통장류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 · 외국인, 학생 · 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한 사찰음식 체험과 교육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사찰음식 어린이 미각 교실(매주 화 오후2~4시, 선재 스님) △사찰음식 차 명상 체험(매주 수 오후 1~2시, 대현 스님) △사찰음식 고추장 만들기(매주 목 오후 2~4시. 정관 스님) △외국인 대상 발우공양 체험(매주 토 11시~2시, 우관 스님) 등이 운영된다.

체험관 내 교육장에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찰음식 전문가 적문 스님, 정관 스님, 대안 스님 등의 특강과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 등이 이뤄진다. 특히 사찰음식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은 24주 7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개관식에 참석한 내 · 외빈들도 사찰음식체험관이 한국불교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국 사찰음식은 한국불교의 수행정신과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잘 간직된 음식"이라며 "이번 체험관 개관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현대문명 속의 우리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체험관이 사찰음식문화 전승 및 대중화는 물론 한식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나아가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개인적 ·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용 문의(02)733-465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 맞춤형 전법 펼쳐야"

조계종 불교사회硏, 17일 '종교공동체 지향세미나'

불교가 전 세계 문화권에 전파될 때, 공동체에 적절히 융화 ·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현대사회 속의 바람직한 종교공동체의 지향 세미나 2'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진우기 로터스불교영어연구원은 불교가 서양 문화권으로 전해지며 겪는 변화와 융합 과정에 주목했다.

진 연구원은 "불교는 다른 문화권으로 전해질 때 그 지역문화를 일부 받아들여 지역에 맞는 전법을 펼쳤다. 이 중 변화의 수준이 너무 커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서양에서 크게 유행한 마음챙김(mindfulness)은 주류문화에 진입하는 과정서 세속화 돼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개인주의'가 확산된 서양에 불교가 전파될 당시 심리학과 접목되거나 사회 참여적 성향을 띄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 연구원은 유럽의 종교공동체 '플럼빌리지(Plum Village)'와 미국의 '스피릿 록(Spirit Rock Meditation Center)'을 소개하며 "불교를 세속화하려는 미국 내 주류 마음챙김 운동과는 차별화 돼 있다. 다른 문화권에 맞는 적합한 불교를 펼치려는 역사적 맥락을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진 연구원에 따르면 플럼빌리지는 마음챙김을 강조했지만 테라바다불교와 선불교의 패러다임 내에서 사용했고, 심리학을 차용하면서도 서양심리학이 아닌 유식심리학을 사용했다. 또한 스피릿록은 서양심리학을 통합해 사용하지만 불교교리 공부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이미란씨는 '중국 · 대만 불교-불광산사의 인간불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현대사회 속의 바람직한 종교공동체의 지향 세미나 2'를 개최했다.

"종교인 부당특혜… 근로소득 과세하라"

과세운동본부 16일 출범
'세법 개정안' 폐지 주장

개정안, 종교인 '기타소득' 분류
식비 · 교통비 · 학자금 등 비과세
"조세원칙 위반"… 위헌 소송도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는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2일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부당 특혜"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교인의 식비와 교통비, 본인 학자금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회는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대해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반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종교인을 특별대우 하고 있다.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종교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종교인 소득은 계속 · 반복적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치 않고 '종교소득'이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특별대우"라며 "이미 천주교 및 조계종 등 일부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으며, 대다수 세법전문가와 조세심판원도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대법원도 종교인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개정 이전 소득세법에서도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정부는 과세처분을 수십 년간 유예했다"면서 "무능한 정치권이 일부 부도덕한 종교계에 양심을 팔았다.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는 국민적 분노가 필요한 이유"라고 일갈했다.

이어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선 "위정자가 자신의 임기 중엔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정부는 일부 종교계 반발에 밀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외면했다. 종교인에 대한 부당특혜는 대다수 국민에게 차별을 주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종교인 과세규정을 근로소득세로 전향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 캠페인, 100만 서명운동, 국민감사청구, 위헌소송, 낙천운동 등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감사원을 방문, "국세청이 대형교회 3곳의 25억 전별금('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이란 사전적 의미)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면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종교인과세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서에는 약 630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봉은사 홈페이지 웹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지난 9월 새롭게 구축된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temple.bongeunsa.org)가 2015 웹 어워드 코리아 여행 · 관광 분야에서 최우수상에 최근 선정됐다.

웹어워드코리아는 2000여명의 국내 웹 전문가가 한 해 동안 신규 또는 리뉴얼된 국내 홈페이지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시상식이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 상이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웹사이트는 기존의 복잡한 템플스테이 신청 등을 이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편된 점과 한글,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지원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점을 인정받았다. 또 홈페이지에서부터 봉은사를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와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는 카피 및 고객 편의를 위한 UI를 대폭 개선했다.



봉은사 홈페이지 화면

웹어워드코리아는 "봉은사 템플스테이는 1700년 동안 한국인의 삶과 함께하며 수행의 전통을 지켜온 유서깊은 사찰에서 고유의 아름다움과 수행자의 일상과 삶을 경험하는 심신을 맑게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더 간편하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행 · 관광분야 최우수상에는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외에도 ㈜커머스플래닛과 SK플래닛(11번가)의 '여행 11번가', 한국관광공사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제1종주거지역 및 2차선 도로에 접한 –
〈매각지 인접 시세가〉 1,500~3,000만원 (공시지가: 700~800만원)
사찰 농원으로 최적합한 땅! – 과천토지 매각!
강남 부자들 주목하는 과천 명품토지 –
4호선 선바위역 500m
3.3㎡당 110~120만원
(분양단위 : 330㎡)
매각지 내 과수원(일부필지)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본 매각지는 강남 15분 거리의 선바위역 역세권에 입지하며 제1종주거지역 2차선 도로와 고급주택 취락지구에 접해 있는 생태주거지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현황상 경사도가 낮고, 배나무밭 등 보존가치가 매우 낮아 그린벨트해제가 예상되는 도심지 임야입니다.




• 매각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지목 : 임야)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이전 책임등기 : 임채일 법무사)
■청약금: 100만원 /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청약신청 (일요일 공휴일 상담) 02)2058-0132

일 주 문



올해의 명예 차인상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12월 14일 한국차인연합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15회 올해의 차인상 시상식' 에서 명예차인상을 수상했다.



제3회 화랑청소년 인성 스키캠프

송묵 대한불교스카우트불교연맹장 스님은 1월 18~20일 '제3회 화랑청소년 인성 스키캠프'를 진행한다. 참가 모집은 12월 28일까지다.



길상원만 대법회

지덕 금강승 수행센터 캄따시링 센터장 스님은 12월 29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몽골 국사 네충 스님을 초청해 '2016년 길상원만 대법회' 를 봉행한다.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관리인 법성 스님



조계종 직영사찰 직영사찰 선본사 신임 관리인에 법성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4일 직영사찰 선본사 관리인 법성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새로 임명된 법성 스님은 지역사회에서 선본사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성 스님은 도업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사미계)했으며, 보라매법당 주지, 호국정각사 주지, 호국영축사 주지, 충국성불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 국장 · 일반직 인사 단행

총무국장 남전 · 홍보국장 효신 · 사회국장 지상 스님



남전 스님 효신 스님 지상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국장급과 일반직 종무원 인사가 단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 총무국장에 남전 스님과 홍보국장 효신 스님, 사회국장에 지상 스님을 임명했다. 사회국장 지상 스님에게도 "사회부의 각 단체와 기관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무자들과 함께 종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계종은 17일 제7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팀장 및 행정관 등 종무원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월 1일부터다.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무차장 및 기획차장 직무대리는 윤승환 전 총무팀장, 김용구 전 기획팀장이 각각 맡게 됐으며, 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포교원 팀장은 이선화 전 기획팀 행정관이, 홍보팀장은 윤효원 전 포교팀장이, 포교차장은 황철기 전 신도팀장이, 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장은 윤영희 전 포교차장이 각각 맡았다. **신성민 기자**

"소아암 환자·소년소녀가장 도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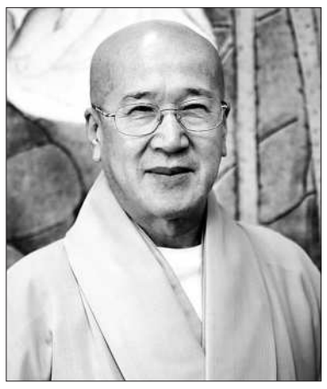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12대 회장 혜정 스님

"이 시대가 원하는 승가상은 나눔과 회향에 앞장서는 수행자일 것입니다. 불교대학원 출신 스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눔실천을 통한 포교, 전법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인 '총동림동문회' 제12대 회장으로 용인 보구정사 주지 혜정 스님이 취임했다.

혜정 스님은 12월 15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진행한 스리랑카 봉사활동을 비롯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종단의 스님들이 불교대학원 동문 이름으로 뭉친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국내외에서 종단을 넘은 자비실천에 나서고 있다. 2015년 한해 동안 스리랑카 사무드라기리 사원 기숙사 건립 및 물품 후원, 탑골공원 무료급식 자원봉사 및 지원, 26대 대 호국 충용사 위문법회를 진행하는 등 그



동국대 일산병원 지원계획 밝혀
해외복지사업 확장도 다짐
"동문 힘모아 나눔 실천 앞장"

동안 나눔실천 활동을 진행해왔다.

혜정 스님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다. 임기내 특히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장학금 지원과 동국대 일산병원에 소아암 환자를 위한 병원비 마련에 나서고 싶다"며 "불자들은 나중에 나눔실천에 나서겠다는 마음보다, 지금 당장 작은 노력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스리랑카 사원 후원에 회원 스님들이 힘을 모았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는 대외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1978년 태고종으로 출가한 혜정 스님은 용인 보구정사 주지로 있으며 용인지역사암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용인서부서 경승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끝으로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밝은 미래를 향한 과정일 것"이라며 "한국불교와 동국대, 그리고 불교대학원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임한 제11대 회장 무문 스님은 "그동안 동문회 발전에 힘을 모아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며 "제12대 동문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동문상'에 권기종 교수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18일 송년의밤서 수상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김용표)는 '2015년 불교학과 명예로운 동문상' 수상자로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를 선정했다.

권기종 명예교수는 1960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 이후 초대 군법사와 교법사를 시작으로 동국역경위원, 동국대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평생을 헌신했다.

권기종 교수는 특히 개교90주년을 맞아 열린 세계불교학술회의 집행위원장, 동국역경원 편찬차장, 불교성전편찬위 간사 등 근현대 불교사 발전의 밑거름이 된 불사들의 실무를 도맡아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원장, 불이상심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또 〈고려시대 선사상연구〉, 〈불교사상사연구 상 · 하〉, 〈권기종 교수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불교〉, 〈대승육도참회〉, 〈선수행의 길〉 외 저서 30여 권, 논문 50여 편 등을 남겼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는 "불교학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결속과 화합에 이바지한 업적이 모든 동문의 귀감이 돼 추천위 만장일치로 시상을 결정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8일 앰버서더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불교학과 동문 송년의밤에 진행됐다.한편, 동국대 불교학과는 2016년 학과 창립 110년을 맞으며 110년사 발간과 기념축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불교기자협회 제19대 회장에 김현태 기자

15일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선출… 수석부회장에 본지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 제19대 회장으로 김현태 법보신문 차장<사진>이 선출됐다. 불기협(회장 이강식)은 12월 15일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에 김현태 법보신문 차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에는 신성민 현대불교 차장과 엄태규 불교신문 기자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회원 47명 중 위임을 포함해 28명이 참석했다.

김현태 제19대 회장은 2004년 4월 법보신문사에 입사해 현재 편집국 차장으로 재직 중이며 불기협 홍보부장, 총무부장,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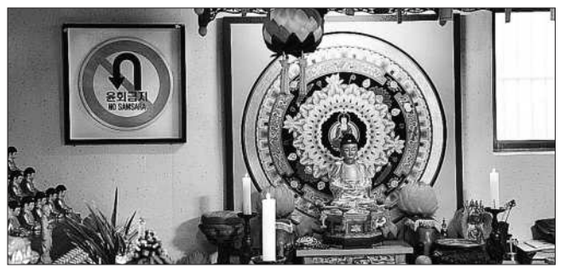
김현태 차기회장은 "불기협 설립의 취지와 같이 임기 중 회원사 및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의를 증장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의 화합과 불기협이 활성화를 위해 협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 17 · 18대 회장으로 불기협을 이끌어온 이강식 금강신문 차장은 총회에서 "13개 회원사와 회원들의 동참으로 회장 소임을 원만히 회향하게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열린선원 윤회금지 표지판 걸어



서울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12월 14일 예수님오신날 축하법회에서 '윤회금지' (no samsara) 표지판을 걸었다.

이 작품은 김영수 조각가가 만든 것이다. 열린선원 법현 스님은 "윤회를 하지 않도록 불심을 깊이하자는 뜻에서 김영수 조각가에게 부탁해 이날 현액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액식에는 갈릴리교회 인명진 목사와 불교계 스님, 김인택 문명녀 정연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열린선원은 역촌중앙시장 재건축에 대비해 지난 9월부터 '새도량 마련을 위한 땅 한뼘 시주운동' 을 전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수료식



동국대(총장 보광)는 12월 1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대각전에서 불교대학원 특별과정인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 2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22기 수료생 33명 및 재학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료식에 이어,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 22기 원우일동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2,500만 원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02)2260-3027 **노덕현 기자**

공불련, 연말 복지관 자비나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2월 12일 경기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13차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공불련 회원 및 가족 일동 약 40여 명은 식판설거지 및 청소, 점심 급식 준비, 배식 등 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불련은 행정자치부 및 기관불자회 등에서 마련한 보시금을 복지관 측에 전달했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각자 연말을 바쁘게 보내면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갈등 속에도 불교 발전위한 노력 지속

현대불교신문 선정 2015년 10대 뉴스

불기2559년, 서기2015년 불교계는 많은 갈등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불교의 미래를 위한 불사도 시작되기도 했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해 봤다.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범계 의혹과 폭로, 불교계 흔들다

올 한해 불교계를 흔든 것은 범계 의혹이다. 특히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주지 성월 스님에게 불거진 범계 의혹으로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주지 신상 문제를 놓고 불거진 갈등은 8월 31일 용주사 일주문 앞에서 집행부 측과 중진 비상대책위원회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결국 총무원은 중앙종회에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중앙종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계종 선학원 정상화 대책위원장 법등 스님도 범계 의혹에 대한 폭로가 불거져 한 차례에 홍역을 겪었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전면 사실을 부인했다.

이같은 범계 의혹과 더불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내홍' 태고종, 길이 안보인다

한국불교 종단 중 2번째로 큰 교세를 자랑했던 태고종에게 올 한해는 추락과 상처의 한 해였다. 태고종 종단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23일 태고종 총무원을 강제 점거하면서 문제는 불거진다. 이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집행부, 청년회원 등 30여명은 2월 11일 새벽 2시경 비대위가 점거 중인 청사에 재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이뤄졌고 양측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11월 3일에는 집행부와 비대위의 수장 모두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종정 혜초 스님이 유시를 내리고 종회가 개원해 사태 수습에 나서 향후 상황이 예의 주시된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홍으로 인해 태고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회비와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내년 6월까지 정지됐으며, 복귀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위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0인 대중공사, 소통의 장 만들다

조계종이 1월 28일 처음 시작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불교계 토론문화와 종단 내부 소통에 큰 기여를 했다. 12월 14일에는 회향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종단 현실과 미래를 참가 위원에게 듣는 것으로 시작한 100인 대중공사는 11월 25일까지 8개의 의제를 다뤘다.

특히 대중의 말과 뜻이 반영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5차 대중공사였다.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5차 대중공사에서는 본래 있던 의제를 뒤로 미루고 '종단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에 대해 사부대중이 격론을 펼치기도 했다.

조계종은 내년에는 대중공사 '시즌2'를 계획 중에 있다. 현재 분기별 추진과 장기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토론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국 교구본사 · 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도 '현재진행형' 동국대 갈등

동국대도 1년 내내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의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과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문제가 함께 불거지면서 학교 법인 측과 학생회 측의 대립은 계속 커져만 갔다.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10월 15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12월 3일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 50일을 단식했다. 결국 김 부총학생회장의 단식으로 동국대 이사회는 조건부로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의 임기만료일을 앞두고 이사장 유고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사회가 12월 19일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소집통지기한인 12일까지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정상화를 위한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14일 성명을 통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법정 기일내 소집하지 않아 당분간 이사장직이 유고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유고상태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네팔 구호에 불교계 역량 집중

4월 25일 불교국가 네팔은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인해 2만5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참사를 겪었다. 이에 한국불교계는 시련에 빠진 네팔 국민들을 돕고자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은 각각 네팔 돕기 기금을 출연했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아름다운동행 · 지구촌공생회 · 더프라미스 등 불교계 NGO단체도 현지 구호활동에 나섰다. 한국불교계는 1차 긴급구호활동 이후 자칫 개별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 단체별 역량을 집중시켜 네팔 교육시설 재건사업에 나섰다. 또한 이번 네팔 지원은 세계적인 국제구호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기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쳐 한국불교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시작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올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8월 25일 전법회관 7층에서 성역화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인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열었으며, 11월 16일에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불사 모연에 들어갔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 회향은 2025년 12월에 이뤄지며 1차 부지들을 매입해 2017년 1월 기공식을 통해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월 15~17일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


8.25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간 교류의 물꼬는 불교계가 열었다. 사진은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공동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

간화선 세계 무차대회 성료

불기2559년 연등회와 함께 진행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별 다른 사고 없이 원만 회향됐다. 5월 15~17일까지 진행된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였다. 이날 광장에는 종단을 넘어 전국에서 운집한 31만 명의 불자와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모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를 경청했다.

남북 간 교류 불교계 앞장

8.2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간교류의 첫 신호탄을 남북 불교계가 알렸다. 남측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15일 선언 이후 민간 차원 첫 공동행사인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법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이 직접 참석했고 법회 이후에는 산행을 갖고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천태종도 조불련과 함께 11월 3일 개성 영통사 보광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모임'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담당 위원회 사무실 개소 모습.



네팔 지진 구호를 위한 조계종 자원봉사단 선발대 출정식.

화쟁으로 푼 한상균 피신 사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자진 출두 방식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면서 일련의 사태들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16일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요청한 지 24일만이다. 숨 가빴던 24일 동안 가장 빛났던 것은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의 대화와 중재 노력이었다. 일단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온 사회적 약자를 여러 어려움, 불편을 인내하면서 최대한 보호하려했던 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종단이 사회 문제를 개입할 시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은 아쉬웠으며, 2000년대 이후 조계사가 맡고 있는 '현대판 소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숙제로 남았다.

비구니회, 새 도약 전기 마련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이 당선됐다.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거에서는 육문 스님이 923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는 비구니회장 취임법회가 개최됐다. 육문 스님의 취임으로 전국비구니회를 둘러싸고 이뤄졌던 1년여 간의 내홍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됐다. 특히 육문 스님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를 천명하고 있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키워드로 본 2015 불교

범계 해 마다 불거지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올해에는 그 수위가 매우 높았다. 주로 주지 등 직함을 가진 쪽과 반대쪽 스님, 신도가 서로에게 무분별한 비방과 폭로, 이로 인한 법적 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점차 확대되는 형국이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화살은 종단 집행부에게 돌아가는 비판의 순환 구조가 이뤄졌다.

동국대 한해 학내 갈등이 최고 수위까지 이르렀다.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은 50일간 단식을 했고, 결과적으로 조건부 이사진 사퇴를 이끌어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 진전은 있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대중공사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사부대중 100인 공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대중공사는 불교의 꽃이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서 사부대중이 모여 대중공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이를 밑거름으로 한국불교가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 과제는 남겼지만 토론문화 증진과 구성원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

해외구호 올해 네팔 지진 참사에서 한국불교계의 구호 역량은 빛났다. 특히 1차 긴급구호활동 이후 자칫 개별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 단체별 역량을 집중시켜 네팔 교육시설 재건사업에 나선 점은 높이 평가될 만 하다.

화쟁 올해 끝자락에 나온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24일 간 조계사 피신 사태에서 불교계는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갈등을 봉합하려 많은 노력을 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화쟁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숙제는 남았다.



돌파구 모색한 1년… 新포교 '마중물' 될까

2015 신행 · 포교 결산

침체 탈피위한 노력 돋보여
맞춤형 포교콘텐츠 개발 주력
자발적 재가 공부모임 '눈길'
군 포교 취약지역 지원성과도

올해는 최근 몇 년 간 이어온 '신행 · 포교 침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돋보였다. 종단 및 승가에선 새로운 포교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가자들의 자발적인 신행 · 수행활동이 두드러졌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훈풍을 타고 초기불교 공부모임이 대거 출현했고, 그간 활동이 저조했던 직장 · 직능인 재가신도단체들도 제2의 도약을 꿈꾸며 기지개를 폈다. 이에 따라 2015 신행 · 포교 활동이 2016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교의 새 시대를 열어라

한국불교의 포교가 구시대적인 방법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불교계는 다방면의 새로운 시도를 꾀했다. 요즘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힙합 음악'을 도입하는 한편, 법당에서 들을 수 있던 법문을 토크콘서트 · 북콘서트에서 펼쳐놓으며 대중에게 다가갔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는 지난 11월 성철 스님 법어로 랩을 노래하는 '랩 창작곡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은 성철 스님 법어를 편사한 지정가사에 자신만의 리듬을 입혀 힙합 공연을 선보였다. 이는 불교가 청(소)년들의 문화로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스님들이 토크콘서트 · 북콘서트 등으로 대중 앞에 나서며 '법문은 법회에서 듣는다'는 기존 형식을 탈피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힐링 · 명상 열풍이 불며 이와 관련한 스님들의 대중강연 및 책 출간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법륜 스님, 혜민 스님, 정목 스님, 일감 스님 등은 토크, 책, 음악 등이 어우러진 콘서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대중적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이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지난 6~7월 시행한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은 불교문화로만 여겼던 '사찰음식'을 포교콘텐츠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점심 급식을 사찰음식으로 제공하고, 어린이 뮤지컬 '그거 알아요? 음식은 생명'을 공연함으로써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전파했다. 이와 더불어 선재 스님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문화 개선' 강연을 함께 진행하며 호평을 이끌었다.

재가계에 불어온 '공부 열풍'

올해는 특히 재가자들 사이에서 '초기불교' 공부 열기가 확산됐다. 지난 10월 출범한 '정법빠리사(대표 정은용)'는 기도 · 참선을 일상화하고, 십선계를 실천하는 등 수행중심 초기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정진하는 재가모임이다. 정법빠리사는 매주 수행법회 및 격월마다 '108선지식 구도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조계종 포교원은 '랩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 되다!'를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②재가모임 '정법빠리사'는 수행중심 초기불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0월 18일 창립했다. ③수원남부경찰서불자회는 10월 27일 경승위원회 창설과 더불어 공식 출범했다. ④11월 16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교구본사와 군법당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대중강좌'란 형식을 통해 재가자들의 학구열에 부응했다. 2600년 불교역사를 3차로 나눠 △인도, 티벳 및 남방불교의 역대 조사 △2차 중국 불교와 선종의 법맥 이해 △한국불교의 종지종풍 근원 파악 등을 공부한다. 현재 2차 강좌가 진행 중이다.

창원 신불사(주지 혜안) 명상수행센터도 지난 9~12월 초기불교명상법에 집중하는 '혜안 스님의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실시했다. 20여 명의 재가불자가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불교 명상법인 호흡명상, 걷기명상, 자애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직장 · 직능 신도단체 '재부흥' 도모

과거 활발했던 직장 · 직능 신도단체들이 최근 바쁜 업무, 잦은 이직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되며 와해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 가운데서도 몇몇 신도단체들이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지도 법사를 선임하며 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조승섭, 이하 경불연)는 지난 11월 창립법회를 열고, 제2의 도약을 준비했다. 경불연은 지난 2010년 창립했으나 회원들의 연대 및 활동 저조로 2013년 해산한 바 있다. 이에 경불연은 조승섭 신임 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단을 꾸리는 한편,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등 7인을 지도법사로 위촉하며 구심점을 결성했다.

그런가하면 올해 막 출범한 신도단체들도 눈에 띄었다. 수원남부경찰서불자회(회장 유진형)는 지난 10월 경승위원회 창설과 더불어 공식 출범했다. 수원남부서는 개소한지 24년이 됐지만 불자회나 경승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전국서 유일하게 경승위원회가 부재했던 곳이다. 이에 수원남부서 경승위원장 송탁 스님(수원 아리담문화원장)은 "재가불자회가 침체된 시기에 스님들이 중심이 아닌 재가자들이 발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원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를 전한 바 있다.

군 포교 체계화 · 내실화 주력

올해는 군종교구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군종교구는 그동안 주로 실시한 간식지원, 군법당 불사 등 1차적인 군 포교서 한 발 나아가 GOP · GP 근무자를 위한 북카페 조성, 핫팩 전달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지난 11월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는 교구본사와 군법당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군 포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교구본사는 각 지역 상급부대 및 예하부대 군법당에 불사, 법회, 위문품, 장병 위문 등을 지원하고, 각 군법당은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석, 군악대 동원 등 협조하며 체계적인 협력을 펼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군종교구는 최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지원에 주력했다. 가장 최근엔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에 착공하는 'JSA 법당'은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25평 규모 고려시대 전통 목조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대웅전, 종각 등을 건설해 법당 외형을 갖추고, 남북평화기원 행사를 개최하는 등 불교 홍포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교구 측 설명이다.

박아름 기자

"우리 가족은 모두 '부처님 제자'"

BTN, 12월 13일 진관사서 가족수계법회

"부처님 품안에서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에게는 희망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건강을, 온 가족이 보람과 기쁨 그리고 복덕이 충만한 가족 신앙공동체의 모범을 이루겠습니다."

서울 삼각산 진관사에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한 발원이 울려 퍼졌다.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서 수계를 받고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BTN 불교TV(대표 구본일, 이하 BTN)는 12월 13일 삼각산 진관사에서 '제1회 불자가족수계법회-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 법회는 BTN 회장이자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성우 스님을 계사로 진관사 신도 150여 가족이 참석했다.



BTN 불교TV는 12월 13일 삼각산 진관사에서 '제1회 불자가족수계법회-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를 개최했다.

성우 스님 계사로 150 가족 수계
조부모-부모-자녀로 신행 이어져
개국 20년 가족 신행 캠페인 일환

법회는 수계 의식 전에 참석자 모두가 함께하는 '나를 깨우는 108배'로 시작해 수계의식으로 차분히 이어졌고, 서원계와 가족수계발원문을 다함께 낭독하고 한 가족당 1가족수계첩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계사로 나선 성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엄마, 아빠,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이 모두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면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런 밝은 가정으로 인해 사회가 밝아져서 그야말로 광명으로 가득한 그 본래 마음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본래 밝고 밝은 마음자리 터득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성인"이라고 가족신행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오늘 참가 가족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진실한 제자로 살겠다는 서원을 했다"면서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귀의처가 될 것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을 없애서 헤쳐 나가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8대째 진관사를 다녔던 신도 가족 중에 할머니, 아들, 손자 3대가 수계를 받았고, 또 템플스테이 동참으로 진관사를 찾아온 다둥이 가족 자녀 4명이 수계를 받기도 했다.

가족수계법회에 동참한 조혜인 학생은 "학교 공부 때문에 사찰에 못 나오다가 가족 수계법회가 있어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약속하기 위해 수계 받으러 왔다"면서 "엄마랑 같이 와서 더욱 뜻깊다"고 동참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가족수계법회는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이 올해 발표한 4대 비전 중 하나인 '바른 신행문화 홍보와 확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얕아지고 있는 가족 신행공동체 의식을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진관사에서 열린 '가족수계법회-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는 오는 12월 25일 오후 3시 50분, 27일 오후 1시 50분 BTN을 통해 방영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서 자기계발 · 호연지기 해볼까

겨울방학 주목할 만한 사찰 청소년 캠프

백담사- 자기주도 학습 유도
골굴사- 선무도 · 영어 동시에

겨울방학이 눈앞에 다가왔다. 방학은 학생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자 학업을 증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다. 사찰에서도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자기 계발을 돕는 특색 있는 캠프를 운영한다.

강원도 백담사에서는 1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꿈과 끼를 펼쳐라- 자기주도적 학습력 개발 과정 겨울 방학 특별장기과정'을 진행한다.

백담사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개발 캠프는 매일 호흡법, 단전호흡, 절명상, 걷기명상 등 집중 명상을 통해 뇌과학에 기반한 주도적 학습능력 배가시키는 것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다. 또 3주 동안 자기주도 학습, 효과적 시간 관리법 등 특강과 전문 학습 코치의 1:1 자기 주도적 학습 코칭(주1회) · 청소년 비전 워크숍 등을 비롯해 겨울 산행 · 동해 일출 맞이 · 템플스테이 체험 등 사찰문화 체험도 함께 이뤄진다.

경주 골굴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12월 27일부터 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골굴사 청소년 화랑캠프'는 선무도 수련과 호신술, 승마, 국궁 등으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한편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다. 또 108배와 명상, 주상절리길 탐방, 경주 문화유산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대출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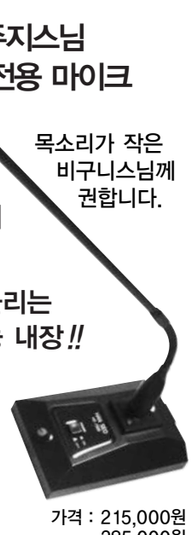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해외구호 역량 극대화… 사각지대 밝힌 등불

2015 불교계 복지분야 결산

2015년 불교계 복지는 여느 해보다 해외구호활동이 활발했다. 네팔 대지진 참사에 불교계 NGO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과 각 종단의 구호기금 모연까지 한국불교는 한마음으로 불교국가 네팔을 도왔다. 아울러 불교계 9개 NGO가 힘을 모아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출범하고, 각자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기타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을 장려했다. 그런가하면 창립 20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대승보살의 원력을 이어갈 것을 발원했다. 또한 재단 산하 조계종자원봉사단은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아 겹경사를 맞았다. 이외에도 22년 동안 어르신들의 점심을 책임졌던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재가불자의 원력으로 미혼모생활시설을 세워 인간방생에 나선 일도 눈에 띈다. 올 한 해 불교계 복지분야 활동을 돌아본다.

네팔 긴급구호 · 재건사업

지난 4월 25일 네팔에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2만5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조계종 · 진각종과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 · 더프라미스 등은 선발대를 현장에 급파해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불교계는 1차 구호활동 이후 대대적인 네팔 돕기 모금을 벌이며 장기적인 교육시설 재건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소식에 불교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모금전문기관인 아름다운동행에만 22억70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연됐다. 아름다운동행은 기금을 바탕으로 지진피해지역 학교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지구촌공생회도 예산규모 10억 원의 '스무고개 스무학교' 사업을 통해 네팔에 20개의 학교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모연된 네팔 돕기 기금에는 유치원생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모은 용돈, 병원환자들이 보낸 정성까지 네팔을 응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더해졌다.

한편 불교계는 이에 앞선 3월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출범했다. 총 9개 불교계 NGO단체가 연합한 협의회는 실무자 교육, 사업 노하우 공유, 신규활동가 발굴 ·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종복지재단 창립 20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복지재단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1990년대 초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전체를 통틀어 90여 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100여 곳으로 늘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가운데 조계종복지재단은 산하시설 190여 곳을 운영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 · 국제개발 및 재난구호 · 복지정책연구 · 교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복지계 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조계종자원봉사단은 12월 4일 열린 '2015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20년간 이어온 봉사 공적을 인정받아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탑골공원 무료급식 계속된다

지난 3월, 22년간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펼쳐온 원각사 주지 보리 스님이 건강악화로 급식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급식소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포교의 산실이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교계에 알려지자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한 원경 스님은 평소에도 불교계 복지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원활한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원각복지회'를 설립했다. 심곡암 신도들도 십시일반 무료급식소를 후원하면서 배식봉사에 동참해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지구촌공생회의 네팔 지진 피해지역 식수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시상식, 미혼모가족 지원시설 도담하우스 개원식, 원경 스님의 탑골공원 무료급식 재개.

어느 재가자의 '인간방생' 원력

'인간방생'의 원력을 세운 어느 재가불자의 보살행이 외롭게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미혼모들을 품었다. 이매옥 (사)깨달음과나눔 이사장은 지난 10월 서울 마천동에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도담하우스'를 개원했다. 서울시내 불교계가 운영하는 한 부모복지시설은 도담하우스를 포함해 총 세 곳이지만 종단 차원이 아닌 개인의 원력으로 설립한 곳은 도담하우스 뿐이다. 이매옥 이사장은 기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1층은 사무실로, 나머지 층은 미혼모가족을 위한 시설로 꾸몄다. 특히 미혼모자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없애고자 옆 건물까지 매입했다. 월 3000만원의 운영비를 혼자 충당하고 있는 이매옥 이사장은 1년간의 운영평가를 거쳐 정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따숨' 1기 해단식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15일 서울 견지동에 위치한 본부 회의실에서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1기 해단식을 진행했다.

따숨은 '따뜻한 숨결'을 줄인 말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한 대학생 모임이다. 따숨 1기 회원 8명은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의대생 연합모임 메디키퍼(Medikeeper) 소속 의과대학 학생들이다.

따숨은 지난 7월 발대해 6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멘토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말에는 인사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9월 동국대에서 열린 '제8회 생명나눔 희망걷기대회'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UCC를 제작하기도 했다. 따숨 회원들이 직접 기획 · 촬영 · 편집한 영상은 지역아동센터 교육 시 사용될 예정이다.

해단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미수 스님은 "따숨 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동안 본부 자살예방 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1기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NGO공모사업 11개 단체 1억 원

아름다운동행 주최, 네팔 비구니 승원 복원사업 눈길

아름다운동행이 내년도 NGO 및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11개 단체를 선정,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2월 18일 '2016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기관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원분야는 △소외계층 지원 △환경지원 △국제개발 및 구호 △기획지원 등 4가지로 구분됐다. 이 중 국제개발구호 분야에 지원한 NGO단체 젊은부처들의 '네팔 비구니 승원 복원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지진피해가 심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가난한 지역이라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마을의 공용시설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젊은부처들은 시데 최콜링과 투제 쵤링 공동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하는 한편, 한국불교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소외계층 지원분야에 선정된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의 '농촌지역 저소득가정 아동회복탄력성 강화프로그램-넘어져도 괜찮아'도 1000만원의 지원금이 확정돼 눈길을 끈다.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역경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마음의 탄성을 의미한다. 증평복지관은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 · 의사소통능력 · 대인관계 향상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치유의 순례(전북불교네트워크 1000만원) △우쿨우쿨한 행복쟁이들의 합창(칠원지역아동센터 1000만원) △실버푸르미(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1000만원) △미싱의 날개를 달다! 보리공방(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1000만원) △사찰음식조리 및 창업교육을 통합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미추홀공덕회 900만원) △동네방네 전래놀이(광주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650만원) △화가 자란다(종로노인종합복지관 450만원) 등이 공모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윤호섭 기자**

"장애 · 비장애인 구분 없이 행복하길"

연화원,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

연말을 맞아 문화생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이사 해성)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청각 · 시각 · 지체 ·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편견을 내려놓고 문화생활을 누리자는 목표 아래 기획된 수화사랑음악회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이번 음악회는 △체중관리법 강의(스포츠트레이너 쇤리) △이삼스님 대금연주 △수화사랑합창단 수화 △삼진 · 지허 · 능인 · 정행 스님의 음성공양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연화원은 또 음악회에 앞서 열린 축하마당에서 점자 〈묘법연화경〉 권4를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에 전달했다. 연화원은 그동안 〈지장경〉 · 〈금강경〉 · 〈보현행원품〉 등의 경전을 점자로 제작하는 한편 음성녹음경전도 보급해왔다. 점자경전 전달식 이후에는 총 3000kg의 자비의 쌀을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전달하고, 장애인 자녀 장학금을 6명에게 지원했다. 공연장 밖에서는 연화직업재활원 장애인들이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만든 압화공예품을 전시 · 판매하며 자존감을 높였다.



이날 연화원 대표이사 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화사랑음악회는 수화를 통한 우리들의 자비의 손짓이 천리만리 울려 퍼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길 발원하는 희망과 행복의 음악회"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작은 결혼식 확산 위한 불교계 포럼

조계종복지재단,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주제

지난 4월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등 4대 종교와 여성가족부가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결혼 · 가족행복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을 맺은 가운데 불교계가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과 가족가치 확산정책에 대한 조망'을 주제로 12월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여성가족부와의 협약 이후 작은 결혼식을 주제로 한 포럼은 불교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과다한 혼수'였다. 이로 인해 형편에 맞는 혼례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실속있는 소규모의 당사자 주도 결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에게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부연구위원은 "결혼적령기 사람들은 결혼과정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를 원한다. 이는 곧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정보제공, 예식장소 대여, 결혼관련 물품 대여, 결혼자금 융자 지원 등을 의미한다"며 "불교계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중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결혼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예식장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무료 주례 재능기부와 결혼꾸밈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4대 종교와 협력해 홍보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이 나서 혼례교육, 서명운동, 종교시설 개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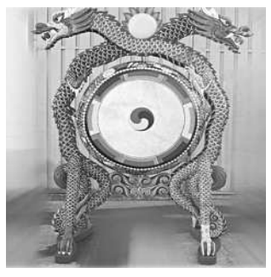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문제는 내 마음, 돈 탓하지 말라”

불광사 일요초청법회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은 곧 ‘계급’이다. 최근 부모의 경제력으로 계급을 금수저 · 은수저 · 흙수저 등으로 구분하는 ‘흙수저 빙고’가 유행하는 것도 현대사회에서 재물이 갖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같은 재물에 대한 정신적 꺼둘림을 경계한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는 말을,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부처님도 역시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설했다. 일평생을 경영학에 매진한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11월 22일 서울 불광사 일요초청법회에서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윤 교수는 “집착하지 않으며 벌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윤성식 교수는… 1953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학사, 일리노이대 어버너샘페인교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 버클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미국 공인회계사이며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불교자본주의〉, 〈부처님의 부자수업〉 등이 있다.

저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중산층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1대 99의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위 1%를 제외한 99%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위 1%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총 자산 40억 원 이상(금융자산 10억 원 포함),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지인들 중에 의사나 변호사, 장관 등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좋은 시절 다 지났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살기 힘들어졌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상, 어떤 의미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노멀은 경기가 반등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경기가 침체되면 회복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회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침체가 계속되죠. 혹시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를 의미하는 ‘잃어버린 10년’을 아시나요?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노멀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근래에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어렵고, 그 이후에는 별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대개 정부나 공무원들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부처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불교를 좋아했다

제 강의 주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니까요. 불교라고 하면 돈을 멀리 해야 할 것 같고, 나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또 버려야 할 것 중 제일 먼저인 게 돈이라고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요?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각 나이대별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20대부터 50대까지는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60대부터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자들이 좋아했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농업사회에서 신흥상공업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도시귀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학자는 “불교가 부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도시귀족들의 문화와 불교교류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불교는 상업불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佛法)을 전파했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활동범위에 따라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인들은 돈을 벌어서 보시를 했습니다. 불교교단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최초에 사찰을 갖게 되는데 그 사찰은 부자가 기증한 땅에 지었습니다. 경전을 보면 부자를 장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장자가 부처님께 땅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왕이 건물을 지어줍니다. 게다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원활한 교단활동이 이뤄지도록 돕게 했습니다. 불교는 돈과 멀 것만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에 등장하는 돈과 관련된 부처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별역잡아함경〉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증일아함경〉

돈 많으면 좋죠. 나도 실컷 쓰고 주변도 돕고, 보시도 하고. 경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혹자는 말합니다. 세상 모두 ‘돈, 돈, 돈’ 하는데 불교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삶이 참 힘들다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는 불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불교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한 허무주의나 염세적 철학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게으름을 불교적인 것으로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요. 돈 그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고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재물의 증감에 매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 바라보라
잘 벌어도 쓰는 게 가장 중요
중도적 소비로 집착 버리자

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 탓이죠. 그러니 돈 자체를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전에서도 돈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바라봐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가정으로 출발한 연구입니다. 물론 살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일정 수준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일정 수준을 넘어도 돈이 늘어나면 행복지수 또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행복지수도 멈추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집착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버는 것과 쓰는 것 구분하라

불교하면 또 무소유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무소유는 분명 의미 있는 가치입니다. 저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불교도 처음부터 무소유를 추구하진 않았습니다. 불교의 오계(五戒)와 비슷하게 자이나교에도 오계가 있는데 여기에 무소유가 들어갑니다. 불교에는 무소유가 아닌 불음주가 들어가고요. 물론 우리가 단순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무소유는 충분히 불교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소유가 의미 있는 것이지, 무소유를 실천하겠다고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소유를 찬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무소유를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최근에 제가 부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재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물론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가계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 액수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컸습니다. 남편은 이를 두고 밤낮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렇게 앓고 있을 필요 없다. 우리 돈 많지 않냐.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둘은 서로 부부이고 부자이지만 부인은 무소유고, 남편은 무소유가 아닌 겁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돈 버는 것과 쓰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좋은 곳에는 열심히 쓰는 것이 좋지만 소비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있어 절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능력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 능력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면이나 기술, 창의성, 의사결정능력 등등 많은 것이 포함되겠죠. 〈잡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저 늙은 부부가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구했더라면 슈바라스티성에서 첫째가는 부자 장자가 됐을 것”이라며 근면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아함경〉에서는 “마땅히 먼저 기예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라며 공부와 기술 등 재주를 강조하셨고요. 욕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는 모험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모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죠. 보통 배짱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모험이 도박이 돼선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도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모험은 하되 도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셋째는 행운입니다. 〈본생경〉에는 “재주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행운이 없는 자는 재물을 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마음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에 혹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꿈을 낮게 가졌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같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부자 되는 데는 이유 있다

어느 학자가 미국의 부자 100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처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 계획한 사람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지만 부자의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매달리다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불교신자로도 잘 알려진 스티브 잡스는 “돈을 벌려고 물건을 만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가 이 물건을 쓴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강조했죠. 그가 핸드폰에 필요한 배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에게 잘 만들라고 말했을 때 엔지니어는 “고객은 핸드폰에 들어간 배선을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대 스티브 잡스는 “내 눈에는 보인다”고 했을 만큼 제품에 정성을 기울였고, 그 핸드폰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걸 ‘부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바꿔 말합니다. 부모덕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습관이나 태도, 사고방식부터 다릅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부자의 70%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 가난한 사람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 책 읽는 습관, 매일 할 일 적어두기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부자는 주로 아이디어와 정보 교환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등 가십거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최근 부자들의 소비패턴을 중산층이 많이 따라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치와 인색을 모두 배격하셨습니다. 다만 부자는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많이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금으로 만든 휴대폰을 쓴다거나 하는 사치에 대해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에 매달린다거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부처님은 중도적 소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열심히 벌되 소비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잘 따져가며 하시길 바랍니다. 저축하고,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또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보시하며 참된 소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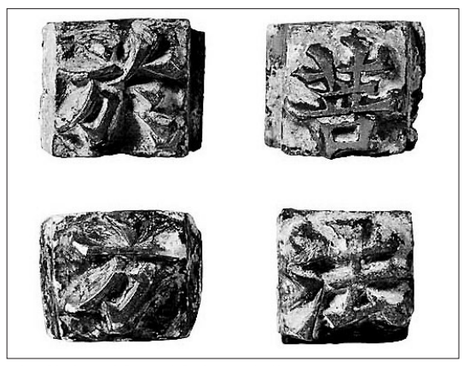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학술·문화재 2015 결산

불교 학계와 문화재계 구습 철폐, 새 트렌드 '눈길'



불교학계가 도입 중인 JAMS시스템


최고활자 논란을 불러온 '증도가자'


영산회상도 환수 공개식


합천 해인사 대장경 조사 당시 모습


초중고개편교과서위원회 회의 장면

2015년 한해는 그동안 불교학계와 문화재계의 답습되어 오던 구태를 벗어던진 변화의 한해였다. 특히 학계 내의 관행을 철폐하라는 목소리와 이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잇따른 만큼 다가오는 새해의 변화가 기대된다.

△불교학계도 인터넷 시대, JAMS시스템 도입

먼저 올해 초 불교학계의 관심은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도입으로 몰렸다.

'잼스'는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2013년부터 학회 운영 전산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학회 홈페이지부터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일정, 회원 관리 등을 통합한 것이다. 논문투고 및 심사, 전자출판,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쪽으로의 학술정보 제공까지의 학회 행정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와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학술지 또한 인터넷을 통해 발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학회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최고 활자 증도가자 발견, 위품판정으로 끝맺어

이어 2월에는 '직지심체요절(1377)'의 활자보다 138년 이상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 '증도가자'가 진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3월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금속활자본임을 들며 기존 최고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다.

논쟁이 심화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0월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여기에서는 고인쇄박물관이 그동안 증도가자를 소유한 다보성박물관과 출처가 같은 곳에서 구입해 조사를 의뢰한 증도가자 7개가 위품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진위논란으로 증도가자에 대한 가치가 절하된 상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불교학술지 대거탈락 파문

한국연구재단이 7월 3일 학술지 평가 결과를 내놓으며 불교학계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불교계 학술지 8개 중 5개가 탈락 및 하락한 것이다. 재심 등을 요청해 한국정토학회의 정토학연구가 등재지로 승격했지만 학계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기준에서 '학회는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3분의 1 미만일 것'과 '대학부설연구소는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2분의 1 미만으로 할 것'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다른 인문학 분야와는 달리 불교학계의 특성이 무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불교학계 관행 지적, 자성의 목소리 줄이어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한국불교연구소가 발간하는 〈문학/사학/철학〉 겨울호에서 불교학계의 현안 문제나 현실적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때에 학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결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조 교수는 학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학회가 지나치게 임원진 위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회장의 독선으로 학회가 분열되것 등을 지적했다. 또 학회지의 전자저널 대체, 학술발표 자료집 유료화, 뒤풀이나 식사비용 갹출, 과도한 발표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도 11월 문사철에 '불교학 관련 논문심사 유감'이란 글을 통해 "논문심사가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때로 심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훈계하듯 지시하기도 한다"고 비판했으며 장재진 동명대 교수도 심사자의 자격과 논문 투고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터넷 시대 맞춰 변화 움직임 거세
논문심사 관행 철폐 내부 목소리도
문화재 관련법 정비는 새해 과제로 남아

△대학구조개혁평가 인문학 소외

교육부의 2015년 9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종립대학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됐다.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최우수 등급인 A평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위덕대가 우수 등급인 B등급을 받아 불교종립학교의 위상을 떨쳤다. 하지만 평가가 취업률 등에 기반해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예고한 상태다.

△도덕 · 역사 등 교과서 내 불교기술 바로잡아

7월에는 불교계가 추진하는 초 · 중 · 고교 교과서의 불교 관련 서술 바로잡기가 첫 결실을 맺었다. 교육부의 2015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서양윤리에 비해 소외받았던 동양윤리의 강화와 함께 세부내용에서 불교 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됐다.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의 제안이 다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연구위는 교과서 불교서술의 오류를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에 개정방안 담은 기안지 발송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성보 보존관리 강화…성보박물관협회 출범

올해는 전국 성보박물관 간의 교류를 통한 역량 결집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할 '성보박물관협회'가 출범한 한해이기도 했다. 성보박물관협회는 그동안 박물관 간의 교류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필요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는 8월31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확정 및 사업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성보박물관협회는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 육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건전한 성보박물관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사업, 성보박물관 전문직원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에서 성보박물관 항온항습 비용인 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불교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제 보판 '대장경' 국보지정범위 논란

또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인 대장경판의 수를 둔 논란도 불거졌다. 대장경판이 가진 '상징성'에 일제강점기에 보각된 경판을 포함하는 지가 주된 논란거리였다. 8만 1352판 전체를 국보로 유지하자는 입장과 보각판과 중복판은 제외, 도는 새로 국보지정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학계와는 달리 해인사 측은 대장경판을 신앙의 대상의 관점으로 보면들며 현재 원판과 보각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하 학계에서는 지속 연구와 공론의 장을 내년에도 열어갈 예정이다.

△불교문화재 환수, 정 · 관 · 불교계 힘모아

지난해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에 힘을 모았던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올해는 협력을 통해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도난 불화인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을 환수했다. 7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환수공개식에서는 향후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11월 부산 범어사도 스위스 경매장에서 도난돼 행방을 찾지 못했던 칠성도를 환수했다.

△문화재 은닉 사범, 공소시효로 집행유예

2014년 성보를 비롯해 문화재 수백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박물관장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권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영은사 '영산회상도'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권 씨가 물건을 사들였을 2012년 당시 장물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재 전문가들은 도난문화재의 취득과 장물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형을 엄중히 하고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해에는 문화재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도 중국불교에 큰 영향 미쳤다"

한국불교사硏, 12월 12일 집중세미나서 한국전법승 조명

한국불교는 고대 인도와 중국의 전법승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일방적으로 수용만 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불교의 전래 · 수용 · 공인 · · 유통의 과정을 거쳤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과 반도와 열도에서 발효 숙성시킨 불교를 중국과 일본에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고승들이 활약했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12월 12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12차 집중세미나에서는 정중 무상, 구화 지장, 상산 혜각, 고려 제관 등의 활약이 조명됐다.

먼저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구화 지장'(九華 地藏) 선사에 대해 "신라왕자 출신인 그가 안사의난으로 황폐해진 백성들에게 전한 구제사상과 행화는 이 시대 요청되는 모범적이 보살행"이라며 "지장사상은 중국인들의 '효' 관과 맞물려 새로운 의미로 다가갔다"고 평했다.

고 교수는 "그 행화와 덕화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은 그의 살아 생전의 보살행과 죽어서 보여준 이타행이 지장신항의 구제사상과 온전히 일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구 국민대 외래교수는 '상산 혜각'에 대해 "입당 후 10년 동안 진주, 형주 등 하북성 일대를 순력하며 두타행을 닦았은 스님은 신회와 다른 일각사상으로 법등을 밝혔다. 이 일각 사상은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에 자세히 설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본 혜각 스님은 입당 전부터 원효 스님의 저술을 공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사하현 칠천사 등에서 774년 입적할 때까지 일각의 지혜를 전했으며 783년 그 행적을 다룬 탑비가 칠천사에 세워져있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고려 제관이 중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통해 고려시대 오월과의 불교 교류를 조명했다. 최 연구교수는 "당시 법안종과 천태종의 긴밀한 관계가 수립됐으며, 그 중심에 덕소, 연수, 의적이란 고려승이 있었다. 지역과 국가로는 항주와 천태산, 사명지역, 그리고 고려와의 긴밀한 관계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교수는 "의통은 의적 문하에서 천태종을 배웠고, 전교원에서 지례와 준식을 배출했다. 천태종 역대조사로 추증된 점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제관은 뛰어난 천태학자로 고려 광종의 사신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종립 중앙승가강원 학인 모집 안내

종단의 중진 교역자 및 인재양성, 미래교육 불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종도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 과	모집인원	교학과목	교학기간	수강시간	전형방법
대교과	00명	화엄경	1년(2학기)	매주(월,화)	서류심사
사교과	00명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1년(2학기)	매주(수,목)	

2 전형 및 개강 일정

구 분	일 자	구 비 서 류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16년 2월중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입학원서: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	사진 2매 (3×4㎝)

대교과 개강	2016년 3월중	매주 월, 화요일
사교과 개강	2016년 3월중	매주 수, 목요일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대교과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보덕사비구니강원 사교과정 이상 수료자 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③ 동방불교대학(승가, 불교) 졸업자로서 대덕법계 이상 수지자 ④ 정규불교대학원 불교(승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수여자

구 분	자 격
사교과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보덕사비구니강원 사집과정 이상 수료자 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집과 이상 수료자 ③ 본종 입적 승려로서 동방불교대학 승가학과, 불교학과 졸업자 ④ 정규대학교 불교(승가)학과 학사학위 이상 수여자

4 특전사항
① 신심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② 월 1회 초기불교 특강(사교/대교 공통)
③ 서예 지도 : 매주 수요일 저녁
④ 대교과 졸업자 – 차 상위 법계고시 응시 시 논문제출 면제

5 등록금 : 60만원 (1학기)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4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고지 예정입니다.

중 앙 승 가 강 원 장 혜 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

전북불교네트워크 '송년의 밤' 개최

전북지역에서 생명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불교네트워크와 (사)자연음식문화원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12월 13일 전주시 금암동 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이 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 前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 법일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전북불교네트워크와 자연음식문화원의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영상 시청, 대표인사말, 법어, 만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법 스님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약자들이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화쟁사상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불교네트워크와 (사)자연음식문화원은 2016년에 전북불교의 네트워크 강화, 사찰음식강좌와 시민식생활 교육, 자비나눔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부처님세상 법연의 밤 개최

(사) 부처님세상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이 2015년 한해를 회고하고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부처님세상 회향 법연의 밤'을 개최했다.

12월 13일 전주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열린 이날 법연의 밤은 전북불교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동문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불교대학 가족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진지한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담아 진행됐다.

도원 스님은 "올해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이 새롭게 출범했고 학제 개편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에 있다" 며 "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한발 더 나아가 정진으로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전북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전법에 앞장선 학인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고 학인들의 사물놀이 공연, 마술, 섹소폰 연주, 가야금 병창, 노래자랑등 전북불교대학 가족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레크레이션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릉 한송사지, 남항진동 아니다"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
17일 강릉문화원 세미나서

해당지역은 砂丘로 암반층 없어
대형 가람인 한송사 건립 못해
"위치 파악 위해 지표조사 확대"


한송사에서는 출토된 국보 제124호 석조보살좌상.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한일협정 때 반환됐다.

근현대 기록 대부분이 한송사지로 기록하고 있는 '강릉 남항진동 113-2번지' 가 지형상 2~3m 높이의 모래땅으로 대형 가람인 한송사의 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는 12월 17일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제16회 강릉전통문화학술세미나에서 '가람의 정의와 한송사지, 그리고 정비' 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송사지 위치에 대한 통설을 뒤집는 지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남항진동 113-2번지가 한송사지라는 뚜렷한 근거나 관련 학술 논문이 없고 디지털강릉문화대전에도 명확한 사지의 정황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지표조사 결과 해당지의 40m 범위가 높은 사구로 이뤄져 있고 주변에도 기반층이나 암반층이 확인되지 않아 대형 가람인 한송사가 건립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으로 통설을 뒤집는 근거로는 △석재들이 1880년 후반에 있었던 해일에 완전히 덮여야 함에도 땅 위로 드러나 있는 점 △20간 또는 78간으로 추정되는 대형 가람이었음에도 지표상 기단토의 흔적이 없는 점 △간단한 구조의 기와집 흔적만 있고 고려 · 조선조 본격적인 사찰 건물구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찰은 대부분 평지 해변이 아닌 언덕에 건립되는 점 등을 들었다.

최 교수는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된 두 구의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과 보상좌상의 대좌로 추정되는 코끼리와 사자 대좌, 기와편, 자기편 등이 나온 것은 조선시대 왜구들이 약탈한 문화재 반출을 위해 해안인 사지 추정지역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송사의 명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종으로 동해안 일대, 횡으로 굴산사지 인근까지 지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송사는 남항진동의 바닷가에 건립된 사찰로 본명은 문수사(文殊寺)라 한다. 한송사는 해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는데, 당시에 사찰의 모든 유물을 우물에 넣었다고 전해진다.

한송사에서는 2구의 대리석제 석조보살좌상이 출토된 바 있다. 이중에서 1구는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한일협정 때 반환된 후 국보 제124호로 지정돼 국립춘천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다른 1구는 보물 제81호로 지정돼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이 소장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홍성익 강원대 강사가 '한송사지의 문헌 · 고고자료에 대한 종합적 검토'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 논의가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려운 환우들에게 자비 광명을"

생명나눔실천 광주본부
'생명나눔의 날' 개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는 12월 16일 '2015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갖고 올 한 해 나눔 봉사활동을 마무리 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6일 '2015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갖고 올 한 해 나눔 봉사활동을 마무리 했다.

광주 수자타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현지 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 해 우수 후원자와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현숙 씨가 자원봉사자 광주광역시장상을 살레시오중학교 정서윤 양이 광주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종범 광주불교방송 차장, SK텔레콤 서부네트워크본부에 감사패를 조남호, 홍보덕화, 김영옥, 허양순, 이정숙, 민경빈 님에게 자원봉사자상을 전했다.

생명나눔활동을 위한 개인과 단체들의 기금전달도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이 200만원, 미스A 수지 양이 500만원, 연화암 신도회에서 150만원을 나눔기금으로 전했고, 생명나눔의 홍보업체인 '아름다운 나눔의 집' 에 설치된 모금함과 사랑의 저금통에서 모인 모금액 전달이 이어져 연말 나눔의 감동이 전해졌다.

특히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수안 스님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생명나눔실천회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생명나눔 활동에 동참하신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작은 힘이나마 어려운 환우들에게 전달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회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사와 희생을 덕목으로 삼아라"

순창 경찰서, 14일 암도 스님 초청 법회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와 순창경찰서 경승실(실장 청암, 장덕사 주지)이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사진>을 초청해 특별 법회를 개최했다.

12월 14일 순창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는 박헌수 서장을 비롯해 수창 경찰서 직원들과 전의경, 청암 스님 등 경승실 스님등 100여명이 참석해 스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암도스님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공무원이 청렴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 질수 있다" 며 "봉사와 희생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시민의 안전과 국가발전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암 스님은 "순창경찰서 경승실은 꾸준하게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며 "순창경찰서에 법당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과 전 의경의 신행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경찰서 경승실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전의경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고 내년 신축 예정인 새 청사에 법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창경찰서와 순창경찰서 경승실은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초청해 특별 법회를 개최했다.

강진 시방사 극락보전 낙성법회

주지스님의 1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낙성법회의 감회를 맞은 사찰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강진 시방사(주지 성묵)는 지난 13일 10여 년간 이어진 사찰 창건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극락보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지 성묵 스님은 대중들에게 감사의 3배를 올리며,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 며, "인간의 몸을 받고 있을 때 부지런히 수행정진을 해 은혜를 갚도록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조계종 18교구 말사로 등록된 시방사는 37년 전 비구니 스님이 임법당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0여 년 전 주지 성묵스님이 수행처로 삼으면서 비로소 사찰 형식으로 창건을 시작해 이날 전면 3칸의 18평의 다포계 양식의 목조건물과 종각, 축대 등을 낙성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금담스님(진주 극락선원), 대경스님(송광사 율원장), 법정스님(강진불교사암연합회장)과 낙성법회에 큰 도움을 준 서경스님(광주 지장암 주지), 도계스님(광주 소원정사 주지)을 비롯해 신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시방사는 12월 13일 10여 년간 이어진 사찰 창건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극락보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웅변대학 제1기생 모집

❶ 대학개설취지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 것"처럼 웅변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잡초처럼 참고 견디며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로써 오로지 진리만을 불같은 "사자후"를 터트리는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야 한다.

"세치의 혀는 칼보다 무섭고" 침묵보다 무거운 정치가의 말 한마디는 "역사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웅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후학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수하고자 함입니다.

❷ 입학 및 수강안내

모집인원	자 격	제출서류	강의시간 및 장소
웅변, 연설, 기타 (30명) 특별반 0명	비구, 비구니, 법사 기업인(대표), 공무원, 단체, 정치인, 지도자, 일반인(남, 여)	입학권서(1통) 사진 1장	매주 화요일 : 6시 30분 ~ 9시 (2시간 30분) 매주 목요일 : 6시 30분 ~ 9시 (2시간 30분) 일주일 2번 (6개월간 강의) • 장 소 : 백용사 대 법당 *시간조절 가능(입학식때 의견조율)
① 교육내용	웅변 (3분스피치) 원고작성법을 배우면 훌륭한 연사가 될 수 있음		
• 법문, 연설, 축사, 강연(기타), 임기웅변 (3분 스피치) • 총장님 (해봉) 직접강의 • 주옥같은 수많은 원고 (대회, 강연, 출사, 기타) 내용을 예를 들어 시범 원고작성법 강의 (중점적으로 강의)		• 태도 : 연단(표정과 자세) 실기 • 성량 : 발성법 → 고저장단, 호소력, 호흡조절(단문원고 연습, 시범, 실기반복) • 원고작성법 → 서론, 본론, 결론 (3단논법)에 의한 청중을 감동, 설득 시킬수 있는 내용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중점적으로 강의) • 연단경험 : 매일 연단에 서게 함(단문원고) • 강평 : 연사마다 장 단점	
④ 본대학 이수시 본대학 졸업장 수여		⑤ 입학금, 등록금	없음 (보시하겠습니다)
		※ 교재비	6개월간 10만원
⑥ 입학식	2016년 1월 5일(화요일) 오후 5시	⑦ 원서교부기간	2015년 12월 14일부터 – 2016년 1월 3일까지(선착순)

대한불교 웅변대학 총장 해봉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17번길 42-9 (하안동) / 010-6565-2042

“청춘에게 꿈을, 하동벌에 울려 퍼진 함성!”

쌍계사, 12월 16일 아웃사이더 초청 공연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허)가 지역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열정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12월 16일 하동 중고등학생 500여 명은 학교 강당을 가득 채운 채 쌍계사가 마련한 공연 ‘아웃사이더 아파쇼’를 기다렸다. 인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쌍계사 주지 원허 스님은 “이 자리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자리다. 공부하는 동안 힘들었던 스트레스도 풀고 자유로운 시간도 가지자. 내년에는 하동 전체 학생들을 위해 더 큰 규모의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1부 공연에서는 불자 힙합 가수 아웃사이더의 아파쇼 강연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난 언제나 자신을 믿거든’이 진행됐다. 가수 아웃사이더는 “청소년기 바라던 꿈이 좌절되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노래하는 행복을 얻었다”며 “힘겨워 도망치듯 떠난 여행의 시간에서 얻은 소중한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성공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2부에서는 비트박스 듀오 ‘프리마테’ 공연과 ‘아웃사이더’의 열띤 공연이 이어져

꿈을 위한 ‘아파쇼 강연’
지역 청소년 포교 일환
하동불교사암연 스님과
하동中·高 500명 동참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또한 하동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이 함께 학생들과 참석해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불교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친근한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동중학교 이유성 학생은 “이런 자리에 스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 공연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웃사이더를 평소 많이 좋아했는데 토크쇼를 들으며 꿈을 위해 노력한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기민 학생은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아웃사이더의 감동적인 꿈을 향한 토크쇼, 정말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하동불교사암연합회는 콘서트 후 하동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하동군청에 기탁했다.

하성미 기자


쌍계사는 12월 16일 하동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꿈을 주제로 한 힙합 가수 아웃사이더의 공연을 개최했다.

“포교 향한 더욱 힘찬 걸음 걷자”

울산 황룡사, 12월 13일, 포교당 이전개원법회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가 울산 옥교동에 새 포교당을 개원했다. 황룡사는 12월 13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당 개원 법회를 개최했다.

개원 법회는 1부 △경과보고 △내빈소개 △축사 △시상 △주지 스님 인사말 △평생교육원 인증서 봉헌 △ 발원문 △ 어린이 법회 소속 리틀붓다 축하 공연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황룡사 소속의 신도들이 직접 준비한 난타, 전자기타 연주, 민요, 색소폰 등 흥겨운 축하공연과 운천 스님의 착한 짜장 공양 등이 준비됐다.

황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회에는 정말 많은 스님과 신도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모두가 황룡사를 직접 창건하신 분들”이라며 “요즘처럼 바쁜 도시인들에게는 시내 한 가운데 사찰이 꼭 필요하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불사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전 개원한 황룡사는 울산 태화강변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로 연면적 총 154㎡이다. 1층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북카페, 2층에는 법당과 교육원 등이 위치한다.

하성미 기자

제18회 실상문학상 본상 성흥영 시인

12월 18일 부산일보 대강당서

제18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이 12월 18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렸다. 실상문학상은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문학인들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18회를 맞았다.

시상식에서 실상문학상 본상은 성흥영 시인〈사진〉이 수상했다. 작가상은 정훈교 · 박서현 · 최순해 시인과 안경덕 · 유희자 수필가, 작품상은 이영애 시인과 최병섭 수필가, 신인상은 이대숙 · 남명순 수필가와 김류은 시인이 받았다.

본상을 받은 성흥영 시인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 월강회 · 대한적십자사부산불교봉사회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했으며, 실상문학작가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성 시인은 1997년 실상문학 시부분으로 등단해 시집 〈아마도 전생은 나비였어라〉, 〈종소리에 듣다〉와 소설 〈붓다여, 새벽의 깨침이어라〉 등을 펴낸 바 있다.



이날 김창식 실상문학상 심사위원장은 “성흥영 수상자의 작품은 불교를 주제로 시를 엮어내 작품성이 매우 독특하고 뛰어났다”며 “이번에 작가상 수상자로 당선된 이들 또한 뛰어난 작품 세계를 보여줬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혜총 스님은 “현대에 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학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학작품이야말로 하나의 훌륭한 포교사”라면서 “문학가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진주시, 복지관 재수탁 심사 객관성 결여”

해인사 자비원 성공 스님 재심사 강력 요청

해인사 자비원 진주지부장 성공 스님이 15일 시행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수탁 심사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성공 스님은 12월 16일 진주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재수탁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이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다”며 “지난 12년간 전국의 214개의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운영해온 우리가 바뀔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성공 스님에 따르면 심사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진주시 소속이며 2명은 기독교 관련 단체 기관장이다. 또한 나머지 2명 중 1명은 복지 전공이 아닌 국제대학교 교수이며 나머지 한 명은 복지전공이어도 장애전공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 스님은 “장애인복지관 심사에 장애인 분야 전공자가 1명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평성을 위해 불교계 운영 복지단체를 심사할 것이라면 기독교인 심사위원을 넣어선 안 될 것이며 넣고자 한다면 불교계 단체도 2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진주시사회복지과장은 스님의 주장에 대해 “심사위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알지 못했다”며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15일 재수탁 심사에서 수탁기관으로 기독교 시설인 ‘늘사랑’을 선정했다.

하성미 기자

심인문화제 서원가 대회… 금강합창단 대상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2월 15일 대구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서원의 향기 가득한 새 진각의 노래!’란 주제로 2015년 심인문화제 창작서원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회정 통리원장과 대구불교총연합회 사무처장 연암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소임스님, 진각종 서울교구 및 5개 교구 총 11개팀 합창단원 등 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연대회는 경산심인당 부설 중방유치원생의 ‘신기한 연꽃’ 창작 서원동요와 ‘터’란 대중가요로 막이 올랐다. 공연은 서울교구 실상합창단의 경연곡 ‘임이시여’와 자유곡 ‘연꽃처럼’ 외 총 10개 팀이 출전해 각자 창작한 서원가를 유감없이 뽐냈다.

대회에서는 대구 금강합창단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진각복지재단 카루나합창단, 특별상은 서원동요 작사자 남예령 어린이와 경산 중방유치원이 선정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종단의 새로운 축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심인문화제는 불교 교리와 사상을 서원가에 담아 부르게 한 행사다. 한 해를 보내는 회향의 노래이자, 진각 70년을 맞이하는 시작의 노래가 될 서원가의 향연이 종단문화를 창출하고 불교음악의 발전을 견인하는 법륜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진각종 심인문화제는 지난해 대구 수성 아트홀에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일대기를 음악 대서사시로 장엄한 교성곡 ‘회당’을 선보인 바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경산심인당 부설 중방유치원생들의 특별공연.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설법전 5000여 명 운집

국내 최대 규모, 국내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엄산림 법석이 문을 열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11일 전국에서 모인 불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입재 법문에서 방장 원명 스님은 “보살도를 닦는 보살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원력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모인 불자님들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들을 보살도를 성취시켜주는 선지식이라 여기고 성도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 결코 굴복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이번 화엄산림대법회에는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스님들을 모시고 화엄경 감로법문을 펼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 달 뒤에는 모두 깨달음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후 신축 보광선원 선방 보광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하성미 기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2016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 (장삼 · 만의 착용) 2매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_ 2016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_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②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6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_ ○○명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습의사
(4) 교육원 연수교육비 지원
(5) 해외 연수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율주 명성 원감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길 '팔정도'

붓다의 눈으로 본 세계

실재와 개념 ㊦



위오기
공주대 교수

개념은 오문에 충돌하지 않지만 실재는 오문에 충돌하는 것이다. 포도의 그림과 실재 포도는 눈의 문, 혀의 문이나 몸의 문에 와서 충돌하지 않지만 색, 맛, 단단함은 각각의 문에 와서 충돌하고 사라져 버리는 실재이다. 색, 맛, 단단함이라는 물성(루빠)은 일어나고 사라져 단지 17마음 순간 동안 지속될 뿐이다. 이런데 포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함께 일어나는 다른 궁극적 실재들의 성품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개념들이 궁극적 실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의 성품이 한 번에 한 창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한 번에 하나씩을 알아차려야 한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창구를 통해 나타나는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깨달아야 한다. 각각의 물질은 단지 17마음순간 동안만 유지되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물질은 서거나 걷거나 어떤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손을 드는 시간동안에 이미 17마음순간 이상이 지나가 버린다. 사람들이 걷고 그들의 손을 들고 하는 것을 보지만 실재는 물질들이 일어나고 즉시 사라지고 또 다른 물질들에 의해 연이어진다. 대상인 색은 안문인식과정의 마음에 나타나고 나서 생명연속성마음(잠재의식)들이 사이에 일어난 뒤 많은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걷고 손을 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마음의 17순간은 극도로 빨리 사라져 버린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듣는 순간과 보는 순간 사이에는 17마음순간 이상의 간격이 있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색은 17마음순간 유지되고 듣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사라져 버려야만 한다. 보고 듣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것들은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는 다른 마음순간들이다. 물질들은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것들이 연이어 진다. 우리가 사람들이 손을 들거나 걷거나 하는 것을 볼 때 내내 무수한 마음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우리가 마음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나타나는 것은 사람, 여자, 남자, 또는 이것, 저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리게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사견과 결합하지 않으면서 탐욕을 뿌리로 한 마음은 색, 성, 향, 미, 촉의 대상과 개념들에 집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릇된 집중에도 오염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는 것 같은 요가 수행에 전념할 때에도 일종의 집중이 있다. 그런 순간에 마음이 선하지 않을 때 그릇된 집중을 둔 탐심뿌리마음이 있다. 만약 그런 그릇된 이해를 가졌다면 그는 바른 알아차림의 성질을 모르고 있다.

먼저 그릇된 집중에 전념하면 그것이 마음과 물질의 성품들을 아는 지혜를 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정사유)이 아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알아차림은 나타나고 있는 실재들의 성품을 깨닫는 팔정도의 하나인 바른 알아차림(정념)이어야 한다. 마음과 물질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업(행온)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실재들에 대한 바로 알아차림을 일으키는 조건을 성숙시킨다. 육문에서 육식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이 개념일 때가 언제이고 실재일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알아차림의 개발은 매우 미묘한 것
지혜는 매우 예리하게 나타나며
모든 실재를 그대로 보게 된다"

그릇된 집중은 사견과 같이 하지 않거나 또는 같이 하거나 탐욕을 뿌리로 한 마음의 대상일 수 있다. 사견과 같이 하지 않는 탐욕뿌리마음인 경우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집중은 고귀한 진리들을 깨닫는 길이라고 믿는다.

온 세상에는 이런 그릇된 집중이 만연한다. 사람들이 지혜가 동반되어진 유익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집중에 전념하면 그릇된 집중이다. 이것이 마음과 물질의 성질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더 빨리 계발하는 길이라고 믿을 때 그릇된 이해가 있게 된다. 위빠싸나의 근인이 되는 집중은 반드시 바른 집중(정정)이다. 그것은 반드시 정념, 정혜, 정사유와 정근을 통해야 한다.

개념들은 일상생활에서 대상으로 궁극적 실재를 갖지 못하는 순간들에 마음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개념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를 알아내야만 한다. 봄이 있거나 들음이 있으면 눈과 귀를 통해 나타난 것에 대해 스토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다른 감각의 문에 대해서도 같다.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 세워진 부처님상. 그릇된 견해와 집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하셨다.

마음의 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인식순간)은 색, 성, 향, 미 촉의 대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에 대하여 많은 다른 방법들로 생각한다. 어떤 존재가 어떤 우주나 어떤 세계에 살더라도 금생, 전생, 내생에서도 마음의 대상은 궁극적 실재이거나 아니면 개념일 것이다. 단지 여섯 가지 범주들의 대상들(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경험되는 대상들)뿐이며 이들은 궁극적 실재이거나 아니면 개념들이다.

붓다도 개념들을 대상으로 경험하셨을까 어떠하셨을까? 우선 범인들의 일상생활에 관해서 보면, 눈의 문의 과정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난 뒤 그 사이에 잠재의식(생명연속성마음)들이 있고 방금 사라진 눈의 문의 과정의 마음들이 취했던 대상들과 같은 대상을 가진 마음의 문의 일련의 마음들이 있다. 다시 잠재의식들이 사이에 있고 난 후 나타난 것의 모양과 형상을 생각하는 마음의 문 과정 마음들이 있다. 눈을 통해 나타난 것은 물성의 하나인 색이고 이것은 지, 수 화, 풍의 사대와 함께 일어난다. 우리는 이 사대가 어디에 있더라도 한 그룹의 물질에는 그들과 함께 색, 냄새, 맛, 영양소라는 물성들이 있어야 한다. 이 8가지 물성들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이 같이 색을 사대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의 감성을 통해 색을 본 후에 색 때문에 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전체 개념을 가질 수 있어 이것 또는 저것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있다고 안다. 안식이 있으면 이로 인해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 눈의 감성에 색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안식도 없어 우리가 사람, 존재 그리고 다른 사물들을 주지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개념들을 모른다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만약 사람들이 탁자, 의자, 음식, 그릇, 접시나 숟가락 등과 같은 다양한 사물들을 알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개념들을 대상들로 가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먹이이고 무엇이 먹이가 아닌지를 몰라 삶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위 붓다의 길에 들어선 흐름에 든 자인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과 범부들은 경험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개념들을 실재하는 사물이라고 간주한다. 사성제에 대하여 깨달은 성자들은 모든 법들이 무아라고 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성, 그리고 마음의 문을 통해 일어나고 나타나는 실재들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것이지만 개념들은 그렇지 않다. 개념들은 실재가 아니고 다만 사물을 알게 하는 수단들이다.

개념들은 우리가 나타나는 사물들의 의미를 알 때, 다양한 사물들이 무엇인가를 알 때 마음과 마음부수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그들이 일어남에 대한 조건들과 현상들을 매우 주의깊게 생각해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검토하여야한다. 만약 마음과 마음부수가 없다면 개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물질적 현상들만 있고 정신적 현상인 마음과 마음부수가 없다면 개념들은 있을 수가 없다. 물질적 현상은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실재인 반면 마음과 마음부수는 대상을 아는 실재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과 마음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념들은 알려질 수가 없다. 성자들도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개념들을 가지지만 차이가 난다. 성자가 아닌 자들은 개념들을 실재들로 여기지만 성자들은 마음이 궁극적 실재를 대상으로 할 때와 개념을 대상으로 할 때를 안다.

모든 성자들은 개념을 대상으로 가지지만 그릇된 견해(사견)를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릇된 견해라는 마음부수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만약 우리가 주의깊은 고찰이 없다면 사견을 가진 탐욕에 뿌리 마음과 사견없는 탐욕뿌리마음의 차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사견있는 탐욕뿌리마음은 모든 대상에 집착되어 있다. 오문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생각되는 개념에 집착된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이다.

이렇게 탐욕뿌리 마음은 모든 대상들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집착한다. 수다원과 일래자는 사견없는 탐욕뿌리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이 마음은 여섯 가지 대상들에 집착되게 된다. 불환자는 마음의 문으로 경험되는 대상에만 집착이 남아 있다. 그는 색, 성, 향, 미, 촉의 감성대상에 대한 집착이 제거되었다. 아라한은 6문의 대상들로 인한 선법도 불선법도 없다. 그는 모든 오염원들과 불선법을 제거해 버렸다. 아라한이 아닌 자도 대상들의 성질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거나 언제 대상이 궁극적 실재이고 개념인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오염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다시 생기는 조건들이 있게 된다. 대상들이 궁극적 실재이건 개념이건 간에 대상으로 인하여 기쁨과 슬픔,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있게 된다. 아라한이 아닌 자에게 어느 정도로 오염원이 일어나느냐는 그가 계발한 깨달음의 정도 달려있고, 그가 범부이거나 또는 수다원, 일래자, 불환자, 아라한 중 어떤 성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자가 자아, 존재, 사람 또는 다양한 사물들이라는 개념에 매달리게 되어 그것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을 때, 유신견이라는 그릇된 견해가 있게 된다. 유신견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다른 몇 가지 그릇된 견해가 생겨 날 조건들이 있게 된다.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든지 세계와 모든 존재와 사람들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하는 그릇된 견해가 있게 된다. 우리가 모든 조건 지어진 실재들의 발생에 대한 조건들을 모를 때, 다른 종류의 그릇된 견해가 있게 된다.

사실상 개념들은 보통 불선한 마음의 대상이다. 개념에 집착된 탐욕뿌리마음이 있을 수 있다. 또 개념에 대해 증오하는 성냄뿌리마음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싫어할 때 개념이 마음의 대상이다.

바로 알아차림의 개발은 매우 미묘한 것이다. 바로 알아차림이 개발되면 지혜가 반드시 매우 예리하게 되어 나타나는 모든 실재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붓다는 〈쌍윳다니까야〉의 바라문경에서 오염원들은 바라문의 신령스런 흰 고삐 흰 차를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팔정도의 개발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다고 하셨다. 최고의 차량은 성자의 팔정도이다. 법의 차량은 어느 것도 비길 수가 없다.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불교에 깊은 이해 가진 세도 정치가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⑩ 풍고 김조순

조선 후기 노론 시파(時派)의 핵심이었던 풍고 김조순(楓皐 金祖淳, 1765~1832)은 정조의 개혁정치에 협력하였으며, 어린 순조가 등극한 후 그의 딸이 왕비로 책봉됨에 따라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봉해진다. 정순 왕후가 돌아간 후에 노론 벽파를 제거한 그는 실권을 장악했으니 실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의 초석을 놓게 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된 셈이었다.

그의 자는 사원(士源)이며 풍고(楓皐)라는 자호(自號)를 썼는데 이는 단풍나무 언덕이라는 뜻으로, 그의 집 근처에 단풍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원래 단풍나무는 한나라 때부터 궁궐에 많이 심었던 나무라고 전해진다. 이로부터 단풍나무는 궁궐을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했던 듯하다. 따라서 그의 호가 '단풍나무 언덕을 뜻하는 풍고' 였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를 깊이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릴 때부터 재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문장에도 뛰어났던 그는 기량과 식견까지 출중하여 정조의 총애를 받는다. 그가 어린 왕세자를 보필하는 직책을 맡았던 것도 정조의 그에 대한 신뢰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순조의 장인으로 국구(國舅)가 된 그는 왕에 오른 순조가 덕을 갖춘 군왕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풍고의 정치적인 의지는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늘 중요한 요직으로 제수될 때마다 이를 사양하는 겸양의 미덕을 보였다. 그러나 당파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는 오래 가지 않은 듯하다. 후일 그를 둘러싼 척족들의 세력 형성에 말미를 제공했고, 안동 김씨와 순조의 외가인 반남 박씨가 득세한다. 특히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풍고의 영향이 컸다는 후대의 평가는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결국 권력의 속성은 풍고의 정치적 의지가 꺾인 요인일 것이다.

아무튼 그가 정조의 초계문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문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수편의 시문(詩文)이외에도 다수의 비명(碑銘)과 지문, 시책문을 지었다는 사실은 〈풍고집(楓皐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대나무 그림에도 능했다고 전해진다.

조선 후기 문신이며 정치가였던 그의 삶을 대략을 살펴보자. 그는 영의정을 지낸 충헌공 김창집의 현손이며 서흥부사를 역임한 김이중(金履中)의 아들이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그의 가문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대체로 그의 환로(宦路)는 순탄하였다. 약관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檢閱)로 제수되었던 그는 지방의 민요와 풍속을 채록하여 '시정기(時政記)'를 수록하자는 의견을 건의하여 실시된 것은 초계문신으로 발탁된 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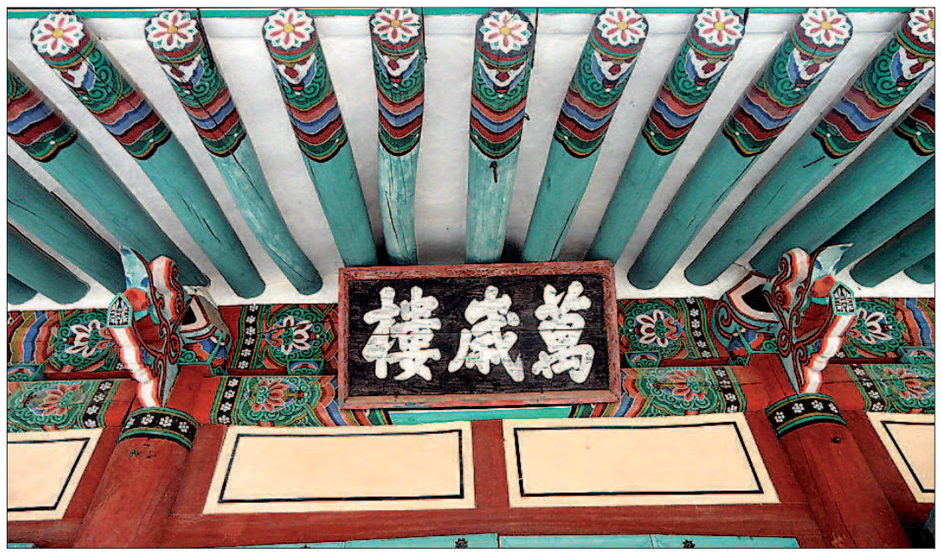
그의 정치적 색채는 1788년 규장각 대교(待敎)로 재직할 때에 시파(時派)와 벽파(僻派)의 대립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을 뿐 아니라 당쟁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순조가 즉위한 후 부제학,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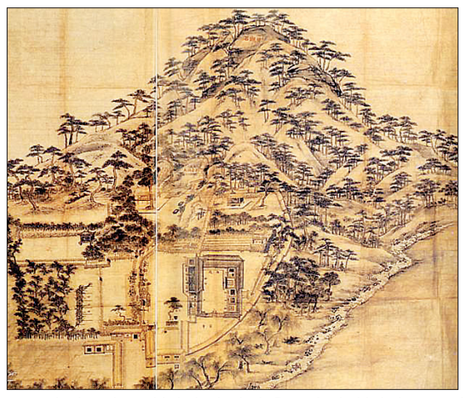
풍고 김조순의 영정. 그는 노론의 핵심인물인 정치가였으며, 시문에도 능한 문장가였다.

조선 후기 노론 핵심으로
정조의 개혁정치에 협력해
詩文 능해 '초계문신' 선발

치감 · 체일 스님 등과 교류
서산 진영 보고 詩 남기기도
추사와도 깊은 우의 나눠



선암사 만세루의 현판. 풍고 김조순이 쓴 것이다. 안동 김씨 세도의 기틀을 만들어낸 김조순은 불교에 깊은 이해를 가졌다.





풍고의 거주지 풍경(사진 왼쪽)과 옥호정 전경(사진 오른쪽). 그는 이곳에서 많은 시문을 남겼다.

요직에 제수되었지만 겸양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순조 초기에 정치는 혼란했다. 정국을 주도했던 벽파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외척 세력이다. 이들은 강력한 통제보다는 완화 정책을 선호하였지만 당시의 시류는 사회, 정치적으로 활력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세도 정치에 의한 권력 집중은 정치적인 문란을 야기했고, 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고통스런 짐이 되었다. 당시 지방 관리의 부패는 극에 달했으니 농민들의 불만이 방서(榜書)나 괴문서 형태로 나돌았던 것도 이무렵이다. 도적 떼가 된 유락민은 약탈을 일삼았고, 농민이 주체가 된 민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는 불교를 배척하기 보다는 불교를 이해했던 사대부였다. 유학자였던 조선 후기 선비들의 친불교적인 불교의 이해는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듯하다. 더구나 젊은 시절부터 새로운 문체를 즐긴 그는 신 유행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소설체인 〈오대검협전〉을 썼던 사실에서도 드러났으니 정조 때에 일어난 문체반정은 당시 사조(思潮)의 일단(一段)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풍고는 승려들과 교유하며 남긴 몇 편의 시 또한 그의 불교적인 이해를 드러내기에 족하다. 그가 영명사와 의상이 개산조(開山祖)했던 태고사를 찾아갔던 일이나 서산대사의 진영을 배관했던 사실 이외에도 영원암의 치감 스님과 교외에서 만난 체일 스님과의 인연도 그의 시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그가 서산대사의 진영을 배관한 후의 감회를 나타낸 '서산대사 진영을 보다가 서산대사 시를 차운하다(觀西山大師影 仍次西山大師韻)'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음전 오른 쪽에 청허실이라(觀音殿右淸虛室)
학 같은 서산의 진영에 학이 서있는 듯
(遺像西山鶴立鷄)
천겁이 지나도 묘향은 무너지지 않음을 알았으니
(千劫　香知不壞)
서산대사의 명성은 응당 산과 같으리
(師名應復與山齊)

– <풍고집(楓皐集)> 권 5

아마 그가 본 서산대사의 진영은 묘향산에 있었던 듯하다. 이는 그가 "천겁이 지나도 묘향은 무너지지 않음을 알았으니(千劫　香知不壞)"라고 한 대목에서 알 수 있으며 묘향산 관음전에 서산대사의 진영을 모신 곳을 '청허실(淸虛室)' 이라 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높은 수행력을 지닌 '서산대사의 명성은 응당 산과 같으리(師名應復與山齊)' 라고 한 대목이 돋보인다. 한편 그가 머물던 산방도 산사처럼 맑고 고요했던 것일까. 선미(禪味)적인 요소와 정서를 드러낸 그의 '산방(山房)'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산방은 산사와 같아(山房似山寺)
좁은 길엔 구름이 언덕을 이뤘네(仄徑到雲磵)
문 앞의 소나무들 고요한데(門對千松靜)
한 줄기 맑은 물이 사립문을 감돌아 흐르누나
(籬廻一水寒)
시름겨운 마음으로 홀로 앉아 있으니
(秋情思獨坐)
멀리 볼만한 건 저녁노을이라(殘照耐遙看)
가장 좋아하는 그윽한 곳에는(最愛通幽處)
고운 서릿발이 넓게 펼쳐졌네(霜花敷畝寬)

– <풍고집(楓皐集)>권 3

그가 머문 산방 길은 지금의 청와대 부근에 위치했던 그의 단풍나무를 심었던 거처 주변의 초암일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산사처럼 좁은 길에 구름언덕이 생겼을 터이다. 더구나 선승이 머무는 곳처럼 문 밖엔 소나무 우거져 더욱 적력(寂歷)한 선미(禪味)를 드러내고 사립문 앞에 흐르는 산골 물소리, 맑디 맑은 풍경을 그려냈다. 홀로 앉아 시름겨워하는 그의 심회는 멀리에서도 볼만한 저녁노을에서 장엄한 함축미를 담아냈다.

이처럼 문재(文才)가 뛰어났던 그는 '영원암의 치감 스님에게 주고 아울러 선을 드러내다(贈靈源菴致鑑上人 兼示諸禪)' 에도 극명히 드러난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산 중턱에 한 암자를 새로 얽었지만
(山半孤菴結　新)
한가롭게 올라가지만 멀리서 놀러온 사람은
드무네(登臨閒殺遠遊人)
장엄한 풍경, 하늘을 향해 드러나고
(莊嚴迴露諸天相)
소쇄함은 속진을 뛰어 넘었네(蕭灑超離下界塵)
나란히 늘어선 잣나무 뜰, 다시 견성하고
(栢樹參庭還見性)
포단에 앉아 신과 통할 만하네(蒲團一坐可通神)
어떻게 많은 업을 탈각하는가 하면
(云何脫却多生業)
이곳에서 명을 피하고 또 참을 기르라 하겠네
(此地逃名又養眞)

–<풍고집(楓皐集)> 권5

영원암은 금강산에 있던 절로 치감 스님이 수행하던 암자이다. 이곳을 찾았던 풍고는 일없이 한가한 암자의 모습을 "장엄한 풍경, 하늘을 향해 드러나고(莊嚴迴露諸天相)/ 소쇄함은 속진을 뛰어 넘었네(蕭灑超離下界塵)"라고 읊었다. 더구나 견성(見性)은 잣나무 늘어선 뜰이라 하였으니 이는 조주선사의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듯하다. 이처럼 그는 화두의 한 소식도 알고 있었던 선비였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많은 업을 탈각하는가 하면(云何脫却多生業)/ 이곳에서 명을 피하고 또 참을 기르라 하겠네(此地逃名又養眞)"라고 하는 대목에서 일단의 묘처(妙處)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그는 불교에 밝았던 인물이었다.

그가 '산으로 돌아가는 원명 스님을 전송하며(送圓明上人還山)' 를 위해 쓴 시에는 "강월 스님, 말을 나누다가(施言江月釋)/기림을 수호하려 돌아갔네(歸去守祇林)/ 속세에서 서로 사귀는 일을 끊었으니(却斷和光事)/거듭 발원하는 마음 일어나네(重思發願心)/대장경은 오히려 술지게미를 빠는 것일 뿐(大藏猶糟粕)/초조(달마)는 맹렬이 침을 비비네(初祖猛針)/약해지고 상실된 나의 도, 부끄러워(弱喪 吾道)/이리저리 헤매느라 흰머리가 되었네(彷徨白首臨)"라고 노래했다.

일찍이 초의는 1830년 두 번째 상경에서 그의 아들 황산 김유근(黃山 金逌根)과 창수(唱酬)한 시를 지은 바가 있고, 추사도 풍고와 깊이 교유했다는 사실에서 초의도 그를 만났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또한 차를 즐긴 인물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밝힌 문헌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연경을 다녀온 인사였다는 점에서도 그 개연성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꼰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오정’은 ‘계·정·혜’ 삼학 … 깨끗한 마음 성취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㉚ 유사하를 건너는 삼장법사 일행



그림 · 최주현

황풍요괴를 물리친 현장법사 일행이 드디어 유사하(流沙河)에 도착하네요. 유사하는 글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흐르는 모래의 강’이라는 뜻이지요. 또 유사하를 약수(弱水)라고도 하는데, 약수는 신선이 사는 곳에 있는 강이라지요. 부력이 약해서 거위 털도 가라앉는다던가요? 이 유사하는 사막을 강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는 것이, 큰 사막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지요. 또 사막에는 정말 흐르는 모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여 거기 발을 디디면 자꾸 빨려 들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모래의 강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으신가요? 견문이 넓으신 분들은 분명 고개를 주억거리실 거 같네요. 그런 사막의 무서운 일면을 유사하로 그렸을 수도 있고, 또 서유기가 수행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신선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약수를 여기 배치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 정말 난감한 강입니다. 폭이 800리나 된다고 하니, 탈 것이 없으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거기에 부력은 약해서 거위 털도 가라앉는다 하니 배를 만들 재료를 구할 길도 없는 것이지요.

엎친 데 덮친다더니, 그 유사하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일행 앞에 물속의 요괴가 나타나 현장법사를 잡아먹으려 덤비네요. 아주 흉악하게 생긴 요괴가요. 서유기는 이 요괴를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머리는 온통 화염처럼 시뻘건 털로 더부룩하고, 방울 같은 두 눈 등불처럼 빛난다. 검지도 푸르지도 않는 푸르딩딩 칙칙한 얼굴에, 우레 같고 북소리 같은 용의 소리를 낸다.”

상상이 되시나요? 거기에 목에는 아홉 개의 해골을 걸고 있네요. 그리고 보배로운 지팡이를 휘두르는 정말 위풍당당한 요괴……. 그래봤자 지금은 유사하의 물귀신이군요.

앞에서 예고도 해드렸고, 아홉 개의 해골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 이게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지요? 사오정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미리 예비해 놓은 현장법사 모시고 갈 수행원이죠. 그런데 그런 내력을 밝힐 사이도 없이 싸움이 붙어 버리네요. 우선 저팔계하고 한바탕 드잡이 질을 하는데 손오공이 몸이 근질거려 여의봉 추켜들고 힘을 함하니, 요괴가 기겁을 하고 물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속으로 달아나 버리니 정말 무슨 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선 손오공은 물속에 들어가는 술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물고기나 물벌레 등 물속에 사는 생물로 변신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서 싸움까지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팔계는 전직이 은하수를 다스리던 천봉원수라 물질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맨 땅에서 싸우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으니, 요괴와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손오공이 꾀를 내어 저팔계에게 요괴를 땅으로 유인하게 하지만, 그게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면 물속으로 줄행랑을 쳐 버리니 정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가 없으니 또 보살님 찾아뵈어야겠지요? 그래서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남해로 관세음보살님 찾아뵙습니다.

그런데요, 이쯤해서 여러분들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손오공은 천상세계까지 어지럽히고, 여러 신장들도 감당이 안 되어 결국 석가여래의 법력으로 잡아들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웬 요괴들이 이렇게 대단합니까? 손오공 정도의 실력이면 어지간한 요괴는 그저 여의봉 한 대씩 앵기면 끝날 것 같은데……. 여행 출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계속 관세음보살에게 원군을 청합답니까? 황풍요괴는 영길보살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보살님 도움 없이는 요괴 물리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손오공이 갑자기 실력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요괴들이 갑자기 세진 것인가요?

자력과 타력신앙이 함께 드러나
성냄의 파도 가라앉혀
번뇌의 유사하를 유유히 건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대부분의 요괴들보다 손오공이 더 세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유기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요괴들이 힘이 달리면 소굴로 숨어버리고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굴이라는 것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코다치기 쉽다는 겁니다. 똥개도 자기 동네에선 어쩐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나 저팔계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오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귀신이 물속으로 달아나니 잡아내기 힘들어 지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서유기가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조화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일반적으로 자력수행이라고 하지만, 타력의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보살에 대한 깊은 신심과, 그분들의 가피를 간절히 구할 때 정말 큰 가피력이 내린다는 것이지요. 자력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불보살의 큰 원력과 가피력을 깊이 믿고, 그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로로 하여 그분들의 가피가 내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피력에 힘입어 우리는 멀고 먼 부처되는 길, 불국토 건설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유기에서 계속 보살의 도움을 통해 난관을 헤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타력신앙의 측면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불교의 타력신앙적인 측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타력신앙과 그것에 바탕한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단지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의 위신력이 나에게도 옮겨오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감응도교(感應道交)라고 하던가요? 기도하는 이와 기도를 받는 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불보살의 위신력이 깃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이에게, 천수천안의 위신력이 깃들게 되면 자연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도 손오공이 힘들 때마다 보살님께 응원을 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힘들 때는 마치 어린 사람이 힘들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듯이 부처님께 자연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손오공이 관세음보살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관세음보살님 야단을 치십니다. 왜 인도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일행이라는 이야기를 안했느냐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아뢰니, 관세음보살님 납득을 하시고 제자 혜안존자를 파견해주십니다. 사오정 불러내어 현장법사 수행하게 만들고, 또 사오정이 목에 걸고 있는 해골로 배를 만들되, 이것을 중앙에 배치해야 된다 하시면서 붉은 조롱박을 하나 주시고요. 그 해골이 어떤 해골인지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신기해하시는 나칠계님! 그렇게 처음 듣는 듯이 신선해 하시면 이야기하는 제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기억을 하셨다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요. 흐음, 나칠계님 빼고는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니 간단히 상기만 하고 넘어가지요. 그것은 인도로 법을 구하러 가던 스님들의 해골이었지요? 모든 것이 다 가라앉는 유사하에서, 그 해골들만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유사하에서 몸은 죽었지만, 그 진리를 구하는 뜨거운 열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라앉지 않는 해골로 상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법사 일행은 바로 그러한 앞선 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배로 삼아 타고, 모든 것이 가라앉는 유사하를 건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살님이 내리신 붉은 호리병, 색깔도 붉다 하니 한 조각 붉은 마음 – 일편단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살님의 가피를 구심점으로 하여 인도를 향하다 몸이 쓰러진 앞선 구도자들의 뜨거움 마음이, 유사하에 배가 되어 두둥실 떴습니다. 그분들보다도 더 뜨거운 뜻을 지닌 현장법사 일행이 그 배위에 올랐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앞선 분들의 고귀하신 뜻을 배로 삼아, 불보살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험한 고해를 헤쳐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서유기의 주인공들이 이제 온전히 다 모였습니다. 현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용마……. 이제 정말 온전한 팀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온전한 팀이 처음부터 팀워크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벌써 저팔계하구 손오공은 손발이 잘 안 맞는 대목이 슬슬 나오고 있구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예감~. 그래도 사오정은 저팔계처럼 속 썩이는 일은 별로 없는 존재지요? 말귀 어두운 거가 문제라고요? 애고, 아니라니까요~. 서유기 원전에는 사오정 말귀 어둡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요. 그저 무난하게 잘 따라오는 사오정이라니까요~. 실은 너무 무난하다 보니 사오정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팔계는 인간 마음에 있는 탐욕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사오정은 그렇게 뚜렷한 연결점이 없어요. 일단은 손오공은 마음 전체를 대표하면서, 어리석음과 지혜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저팔계는 탐욕과 계율이라는 측면을 상징하는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사오정은 성내는 마음과 삼매의 마음이라는 측면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요. 바로 탐(貪),진(瞋),치(癡)의 삼독심(三毒心),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과 연관짓는 것이지요. 유사하의 물귀신이라는 것에서 사(沙)라는 성을 만들고, 맑음을 깨닫는다는 뜻인 오정(悟淨)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정(定)을 통해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서 맑게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냄의 파도를 가라앉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성취하는 사오정이라……. 그림이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나가면서 차츰 정체를 분명히 파악해 보기로 하지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사찰 난방연료비 걱정 끝…

자체개발 공병 화목난로 (특허출원 중)

요사채, 공양간 등 대중이 모이는 어디든 사용 가능 합니다.
신도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일반난로와의 차이점

- 적은 나무로도 오랜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화목난로의 1/3)
- 3단형식으로 빠른시간안에 난로가 가열된다.
- 불조절이 쉽고, 재가 적게 남는다.
- 쉽게 불을 지필 수 있고, 청소도 용이하다.
- 파이프를 통한 열을 발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 오븐을 이용 고구마, 밤, 감자 등을 구울 수 있다.

◆ 운송과 설치는 별도입니다.
◆ 네이버에서 「공병조형연구소」검색 하세요. 다양한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자료와 정보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공병조형연구소
010-3774-5806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中 불교, 생활 변화까지 이끈다



조환기 교수의
중국 현대 불교의 흐름
前 동명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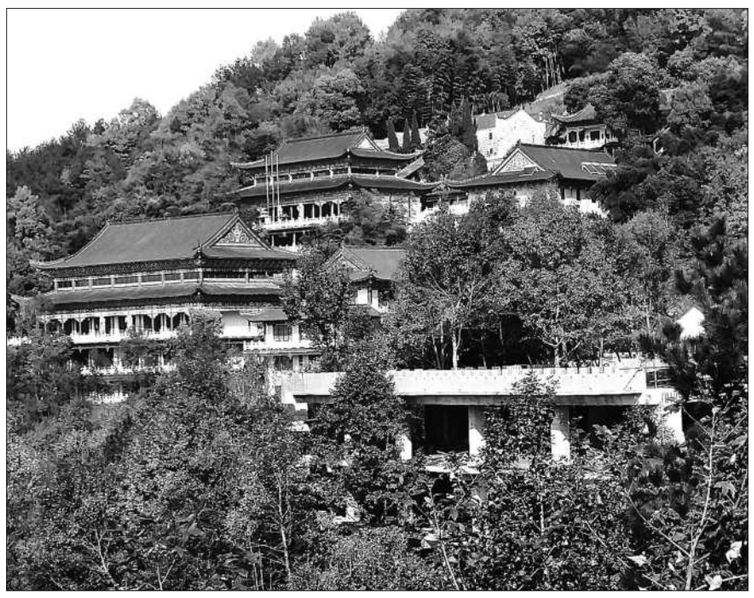
얼마 전 중국 상하이의 모 불교 단체를 다녀왔다. 중국 대륙의 한 불교거사를 연구하는 단체였기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자료나 좀 얻어오겠다는 심산으로 찾아간 터였다. 그러나 막상 방문하고 보니 이들의 신행활동은 필자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승려와 거사들(중국에서 거사는 모든 재가불자를 통칭하는 말이다)로 이루어진 이 단체는 일치단결하여 채식을 하고 청정계율을 수지하며 굳건한 신행으로 다져진 불교모임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이 불교 단체가 매우 특수한 집단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약 10년 전 베이징 교외의 한 사찰의 법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은 날씨가 추워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데에다 바람까지 불어서 살을 에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추운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혁명 거치면서 불교 탄압
현재 18%가 불자 '桑田碧海'
스님 '지계' · 불자 '신심' 바탕돼

새벽부터 법회에 참석코자 모인 사람들은 법당과 마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당시만 해도 베이징 사람들은 따뜻한 오리털 점퍼나 털신이 없었다. 얇은 겉옷에 헝겊 신발을 신고 장갑도 없이 싸락눈이 내린 차가운 교외의 산사 마당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서서 고요히 기도하던 불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얼마 전 상하이에서 만나 불자들과 10년 전 베이징에서 만난 불자들은 세대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베이징에서 보았던 불자들은 대부분 60~7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젊은 축에 드는 사람도 대부분 50은 넘어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상하이의 불교 조직은 세대가 다양해서, 많게는 80대에서부터 20대까지 골고루 여러 세대가 불교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특히 필자 일행을 위해 차를 태워 준 장천(張岳)이라는 30대 초반의 거사가 인상에 남는다. 장 거사는 채식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었다고 했다. 각종 전자기기와 고급 승용차를 가진 상하이의 잘나가는 젊은이가 하필 이런 고행을 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경쟁이 치열하고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장 거사는 불자로 신행생활을 하기 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담배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계를 받으면 지키지 못할까 염려되어 약 2년간 마음과 몸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계를 받았고 그 후로는 줄곧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신행 모습



중국 태호의 서풍선사의 전경. 현대식으로 단장된 사찰은 중국 불교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 단지 장 거사뿐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불자들도 같았다. 이들 중에는 스님을 따라 시안(西安)에서 라싸(Lhasa)까지 3개월간 도보 구도여행을 하기도 하고 매년 삼보일배를 하며 수시로 자선활동을 한다고도 했다.

돌이켜보면 문화대혁명 때 '4가지 낡은 것을 타파한다' 는 구호 아래 불교는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었던가? 동한(東漢) 초기 루오양(洛陽)에 세워졌던 백마사(白馬寺)는 중국 최초의 불교 사찰로 중국 불교의 발상지였다. 문화대혁명 당시 백마사 옆에 있던 생산부대의 공산당 간부가 농민들을 거느리고 백마사에 가서 '불교를 비판하고 사찰을 때려 부수는' '혁명' 을 했던 이야기는 중국 현대 불교가 입은 참상을 예로 들 때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다. 1966년 5월 혁명을 한다며 백마사에 진격한 이들 홍위병들은 백마사에 들어와 2천여 년 전 인도 고승이 가지고 온 패엽경을 불태우고, 1천 년 전 요나라 때 만들어진 18나한과 희귀한 보물 옥마(玉馬), 불상 등을 모조리 때려 부수었다.

또한 근대 중국의 대표적 고승인 허운(虛雲, 1840~1959) 스님이 홍위병들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진 일 등도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일부 정치가의 술수에 젊고 경험없는 혈기방자한 젊은 홍위병이 결탁하여 수천년 중국불교문화를 송두리 채 부순 아픈 역사인 것이다. 몇 해 전에 이슬람이 바미얀석불을 폭파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중국 대륙 불교의 발전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중국인 정신생활 조사(CSLS)' 자료에 의하면 최근 30년 동안 중국 대륙은 2000여년의 중국 불교 역사상 가장 신속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 이 시기는 역대 어느 시대보다 많은 불교 신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오늘날 중국 인민의 18%가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의 전체 인구수와 비교해 본다면 1억8천5백만 정도의 불교 신자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식으로 계를 받은 사람은 1.7% 즉 1천7백30만여 명이라고 한다. 이 통계는 매우 정밀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동안 중국 정부에서 말했던 1억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통계가 나온 후 약 8년이 지났으니 지금 중국 불교신자는 어림잡아 2억 명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는 현재 중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이다.

이처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불교는 중국 국내는 물론 화교 사회에 각종 변화를 이끌고 있다.

첫째, 식생활면에서 채식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최근 신화서(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채식인구가 이미 5천만에 달한다고 하며 채식운동을 이끄는 주역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불교도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크고 작은 도시와 사찰 부근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각종 식당이 문을 열고 있고 이러한 식당의 위치와 맛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레시피 정보가 넘쳐난다. 대만은 일찍이 불광사(佛光寺) 등을 중심으로 각종 채식요리가 개발되어 세계 채식 시장에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 대륙에서도 불교를 중심으로 한 채식요리가 많이 개발될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둘째, 다양한 불교용품의 개발과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하문국제불사용품박람회는 연중 1차례 하던 박람회 행사를 2015년 봄부터 봄과 가을 두 차례로 확대하였다. 올해 4월에 개최한 춘계박람회부터는 '샤먼국제건강용품박람회(厦門國際健康産業展覽會)' 도 함께 개최하여 불교와 웰빙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성공적으로 연결시켰다. 참가한 국내외 약 1,100개의 기업체가 총 5천800여 전시 부스를 열었다.

셋째, 승려나 수준 높은 거사들이 기업가와 청년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내외 유명 기업가들 중 60%가 불교를 믿는다는 통계가 있다. 수행이 뛰어난 스님들은 각종 기업가 포럼에 초대되기도 하고 '기업가 영혼치료사(企業家心靈道師)', '참선수행지도자(企業家禪修引導者)'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불교의 마음 수행을 경영활동에 적용시키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법문으로 유명한 스타 스님이 속속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법문과 상담뿐 아니라 출판을 통해 청년 불자와 대면한다. 물론 불서 출판 중 대부분은 경서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경서 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출판계는 재테크, 섹스를 이어 종교가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중국 현대 불교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중국 불교는 엄청난 성장가도를 달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계율을 지키고 불심으로 살아가는 스님과 신도들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한해를 마무리하며

12월에 접어들면 사람은 누구나 무상함을 느낄 터이다. 세월이 빠르고 삶이 덧없음을 새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무 살까지는 세월이 그리도 더디 가지만 서른 살을 넘기고 보면, 세월은 날아서 간다.

1년동안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타작해 보면, 빈 쭉정이 뿐이고 알곡을 만나기란 드물 터이다. 늘어난 주름과 흰 머리카락처럼 세월은 허무의 그림자만 남기고 몇 점 바람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약속과 희망도 마른모래를 쥐고 있던 주먹처럼 솔솔 빠져나가 끝내는 빈주먹 뿐이다. 가슴 싸한 몇 점의 눈물방울이 진한 후회로 남는다.

집착이 병인줄 알면서도 모으고 당겨온 소유욕이 마른 갈대의 서걱이는 소리로 쓸쓸함을 더해준다. 베풀고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의 구호로만 그친 채, 부끄러움을 더해준다. 글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은 허무하다.

개운하게 마무리 된 것은 찾기 어렵고, 생명의 무게만큼이나 질긴 욕구가 아직도 진행형으로 목마름을 더해준다. 잎을 떨구고 서 있는 나목(裸木)처럼 겹겹이 껴입는 허울의 옷을 다 벗고 싶다. 손끝이 시리고 뼈가 떨리는 것은 추위 탓만이 아닐 터이다. 남은 삶의 길이가 얼마일지는 모를 일이나, 순수하고 솔직한, 정직한 사람이고 싶다.

드러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주위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가난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이고 싶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자연인의 모습으로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자유인의 모습으로 가면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이고, 조작과 꾸밈을 벗어버린 해탈자의 삶을 누리며 노래하고 싶다.

더러는 가슴이 비어 허전하기고 하고, 더러는 목마름이 더해 몸살을 앓을지라도 헐떡이는 모습에서 부처를 찾고 흔들리는 생활에서 보살을 만나고 싶다. 살다보면, 경험이 경전속의 가르침임을 알게 된다. 살다보면, 육도윤회가 삶의 현장에서 거듭 겪게 되는 당생윤회(當生輪廻)임을 알게 된다. 하루의 삶속에서 천사도 악마도 만나게 된다. 부처와 보살과도 오늘의 현장에서 헤어지지만 그 소중한 인연을 가볍게 여길 따름이다.

삶은 그대로 〈화엄경〉이자 〈법화경〉이다. 진리는 숨어있거나 높은 곳에 매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는 항시 드러나 있다. 물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이웃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널려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한다. 마음이 열려있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면 새해의 정월도 마감의 12월도 없게 되는 것이다.

본래, 동 · 서 · 남 · 북이 정해져 있지 않듯, 변두리나 모서리도 없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기 때문이다.

자, 이번엔 선지식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선지식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선지식과 중생의 차이는 열린 마음 쪽보다 집착에 그 무게를 두고 싶다. 부처가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듯, 선지식 또한 마음이 열린 깨달은 사람이다.

경전과 어록의 어떠한 내용을 물어도 막히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드러냄과 감춤도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작과 꾸밈이 없다.

명예와 재색(財色)에서도 자유인이요 생활에서도 집착을 벗어버린 자연인이다. 누구를 만나도 편히 대하고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의 무늬가 떠다니지 않는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균형과 조화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실천한다. 어둠과 밝음에서의 몸짓이 다르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며 비어있으나 가득하다. 그러나 뱀이 용이 될 때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사람이 부처 될 때,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화도 낼 줄 알고, 우스게 유머도 즐길 줄 안다. 다만,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을 뿐이다.

자, 이쯤해서 눈높이의 방향을 연말의 허무의 그림자 쪽으로 옮겨보자. 겨울은 추운 계절인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음 추위는 더욱 을씨년스럽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 마음의 정원에서는 꽃이 시들고 찬 바람이 인다.

싸락눈이라도 쌓이듯 둘레를 살펴봐도 마음 나눌 진정한 의미의 참벗이 없다. 타작하여 까불어 봐도 빈 쭉정이뿐인 삶이 고단한 그림자로 누워있다.

그래도 너와 나, 우리는 살아있다. 살아있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자 기적이다.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슴 펴고, 주먹 나팔이라도 불어보자. 새 출발, 새 다짐, 새 희망에 군불을 지필 때다. 징검다리,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살아있음은 그 자체가 기적
이제 새 희망의 군불 지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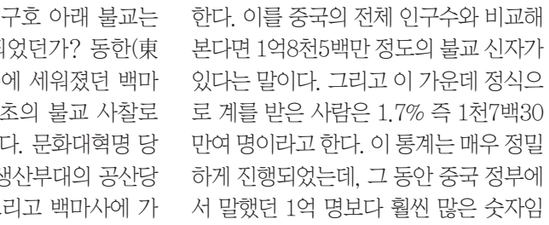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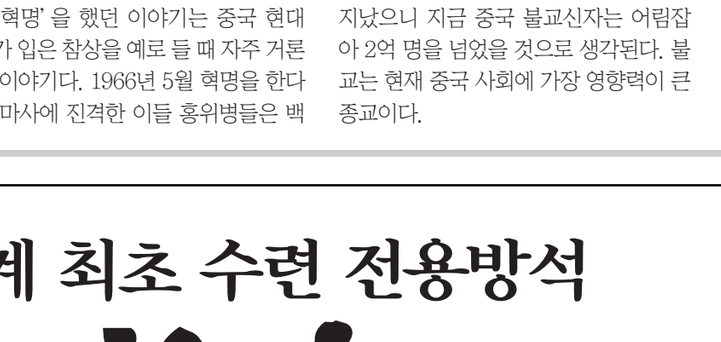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세계 불교계 호소… "시리아 난민에게 자비를"

'Lion's Roar', 난민 위기 대처하는 불교계 반응 조명

"종교는 관용, 연민, 용서, 그리고 만족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난민, 테러 문제 등이 '종교'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Dalai Lama · 80)는 지난 11월 난민 위기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갈등 요소로 떠오른 종교적 신념이 세상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사태가 국제 문제로 대두되며, 사태 해결을 위한 각 국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종교 갈등으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IS-정부군-반정부군' 싸움으로 번지며 "제2의 십자군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세계인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난민 피해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한편, 전 세계인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불교전문소식 웹사이트 'Lion's Roar'은 12월 16일 '난민 위기 극복을 위해 불교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분명히 난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해결책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고심하는 것부터 찾을 수 있다"면서 "불교적 '연민'을 통해 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난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활동을 조명했다.


시리아 남쪽 야르무크(Yarmouk) 지역의 난민 캠프. 사진출처=BGR

종교 갈등서 비롯된 '난민 사태'
유럽국, 파리테러 후 수용 거부
갈 곳 잃은 난민들 재위기 봉착
불교계 "난민 품어달라" 호소

앞서 지난 9월 터키 해변에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소년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발견되며 몇몇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에 난민 사태의 해결책을 찾은 듯 했으나, 11월 'IS 파리테러 사건'이 발생하며 유럽 국가들과 국민들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에 따라 시리아 난민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불교국제구호단체(Buddhist Global Relief)'는 시리아 내에서 핍박받고 있는 난민과 인근 국가로 피신한 난민들에게 긴급구호품을 지원키 위해 지난 11월 1만 2000달러(한화 약 1500만원)를 기부했다. 이 기금은 비영리자선단체 'Global Giving'과 국제구조위원회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를 비롯한 6개 구호단체에 각각 전달됐다.

또한 유럽 내 불교계들의 구호 활동도 활발하다. 스웨덴의 불교종파 삼보종(Triratna Buddhist Order)은 스웨덴에 도착한 난민들을 지지하는 스톡홀름 집회에 동참했으며, 영국 맨체스터와 런던 지역 불자들은 각종 의류를 모아 프랑스 칼레(Calais)에 있는 난민 대피소에 전달했다.

특히 'Lion's Roar'는 '유럽불교연합(European Buddhist Union, 이하 EBU)'이 "국제적 난민 위기에 연민을 표한다"며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난민 문제를 대하는 가장 책임 있고 진솔한, 또 강단 있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EBU'는 "우리는 모든 유럽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간절히 청한다"면서 "전쟁을 피해 유럽에 피난 온 난민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유럽에서 그들을 품어 달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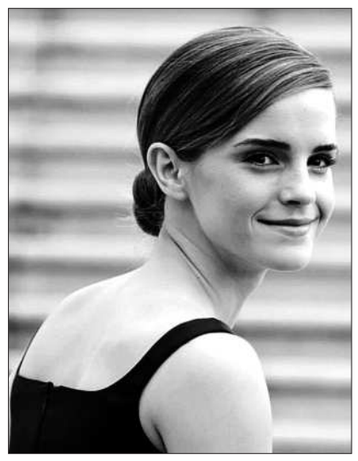
이어 'EBU'는 "불자로서 우리는 친절과 관용, 관대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이러한 가치는 종교를 떠나 모든 생명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상호연관성에 따라 우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유럽으로 망명 온 난민들을 위해 문을 열고 그들의 은신처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와 사랑에 빠진 엠마 왓슨

'Metro'와 인터뷰서 밝혀… "난 태생적 불자"

평소 명상 · 요가 즐기며 수행
'신심깊은' 母 영향 받아
지난 여름 명상수련회 참가도


엠마 왓슨(Emma Watson). 사진출처=Lion's Roar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영화 '해리포터(Harry Potter actor)' 여주인공이자 UN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엠마 왓슨(Emma Watson · 사진)이 요가, 명상, 그리고 불교와 사랑에 빠졌다.

12월 3일 불교전문소식 웹사이트 'Lion's Roar'는 "엠마 왓슨이 명상을 즐기는 동시에 불교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엠마 왓슨이 최근 벨기에 신문 'Metro' 인터뷰에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엠마 왓슨은 지난 10월 'Metro'와 인터뷰에서 최근 주연으로 촬영 중인 심리 스릴러 영화 'Regression'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녀의 영적 가치에 대해 고백했다.

그녀는 무교(無敎)인 아버지와 불교에 신심이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영향을 받아 엠마 왓슨은 스스로를 "태생적인 불자"라고 표현한다. 엠마 왓슨은 "나는 불교에 완전히 매료됐다. 불교만의 의식과 전통, 공동체 정신 등이 좋다"면서 "처음 불교 명상을 배울 때 책으로 접했지만 와 닿지 않아서 직접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불교와 첫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공인 요가강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엠마 왓슨은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 여름엔 명상 수련회에도 다녀왔다. 겉보기엔 거창하지만 사실 요가 자격증을 얻기 위해 명상훈련을 받은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박아름 기자

베트남 '최초' 불교박물관 전시 '이목집중'

국보급 불교유물 500점 보유… 대형 전시관 확장 중

베트남에 최초 불교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다낭(Da Nang)시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500점 이상 불교 유물 전시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 인터넷언론 'Vietnamnet'은 12월 15일 "다낭 중심부의 '불교문화박물관(the Museum of Buddhist Culture)'에서 국보급 불교유물 500점 이상을 전시중"이라면서 "이 박물관은 베트남 최초 불교문화박물관"이라고 보도했다.

이 박물관은 관광객들 사이에선 일명 '마블 마운틴(Marble Mountain)'이라 불리는 오행산(Ngu Hanh Son) 자락의 퀀디암(Quan The Am) 사원에 위치해있다. 지난해 말 지방정부에 의해 공식 인가됐다.

'Vietnamnet'는 "많은 고대 불상들이 전 세계 각지로부터 박물관으로 기증되고 있다"면서 "박물관이 불교 유물 약 700점을 전시할 수 있는 큰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24일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이 베트남 최초 불교박물관이 규모를 확대해감에 따라 현지에서도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다낭 박물관(Da Nang Museum)' 부관장인 후인 딘 꾸옥 띠엔(Huynh Dinh Quoc Thien)씨는 "퀀디암 사찰에서 200점의 골동품을 포함한 500여 점 유물을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보물창고'를 발견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면서 "발굴품 전부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들이었다. 숭배의 대상인 불상에서 청동 향로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근 사원서 출토된 유물 확보
지자체 인가후 규모 확장 中


베트남 최초 불교문화박물관(the Museum of Buddhist Culture)이 국보급 불교유물 약 500점을 전시중이다. 사진출처=Vietnamnet

또한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the Vietnam National History Museum) 부관장 응우웬 진 찌안(Nguyen Dinh Chien)씨도 "그 희소적 가치에 매우 인상깊었다"면서 "대부분이 국보급 유산이다. 특히 9세기에 만들어진 8개 불상과 백옥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안고 있는 보살상은 그 영롱함이 경이로울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명상 3일만 해도 스트레스 감소

美 카네기멜론대 연구… 남녀 66명 대상 실험
명상효과위해 필요한 시간 연구해 '주목'

하루 25분씩 3일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를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미국 카네기멜론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연구팀이 18~30세 사이 건강한 성인 6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다.

연구팀의 데이비드 크레쉘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의 명상을 해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무작위 실험대상을 차출한 후, 한 집단에게는 3일간 매일 25분씩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이들의 호흡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쉼 호흡 운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이 겪은 최근의 경험에도 유의했다.

연구팀은 또 다른 집단에게는 그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3일간 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3일간 훈련 후 참가자들은 연설을 하고 수학문제를 풀어야 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런 뒤 연구팀은 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타액 샘플을 채취했다. 그 결과, 명상 프로그램을 소화한 그룹은 연설과 수학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이 대부분 '명상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명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미국 과학 전문매체 '사이언스월드리포트' 등에 실렸다. 신성민 기자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 1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보건학 박사
*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회장 역임
* Earist University 원격대학 학장 역임
* k-con홀딩스,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외 각 기업 경영자문위원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자문위원
* 스포츠신문, 건강다이제스트외 운세 및 칼럼리스트
*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 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이 시대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 인재 양성 과정 제1기

교수진 :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신기원 관상연구소장, 학선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박청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동국대 안상호박사, 원광대 김민재박사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
접수기간	2015년 12월 31일(목)
본 강 의	1학기 15주 과정, 12월 28일부터 매주 월(月) 18:30 ~ 21:30
입 학 식	12월 21일 (월) 18:00 ~ 21:30 동국대 다향관 미래학 특강 및 힐링프로그램
자 격 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민간자격증(소정의 절차 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수 강 료	220만원 (2기부터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수료후 동문활동 및 수료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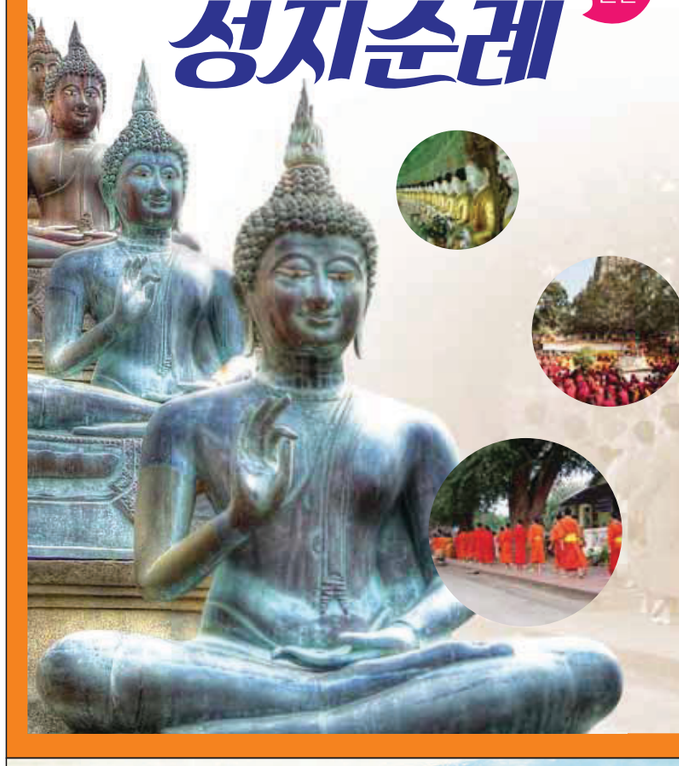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미얀마

선물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 m.btn.co.kr

2015년 11월 2일 부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가을대개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변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공익을 실천하겠습니다.



월 오전11:20 수 밤11:00/ 목 오후3:50/ 일 오후6:50



수 오전11:20 목 밤11:00/ 토 오전8:30



화 오전11:20 토 오후1:50/ 일 밤9:50



화 오후7:30 수,토 오후1:20/ 금오전6:20/ 일오전8:50



화 오후2:50 목 밤8:00/ 일오전11:20



수 오후1:50 금 밤22:00/ 일오전4:00

BTN 은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olleh HD 233번 Btv HD 55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창립 20주년 맞은 '좋은벗 풍경소리'

힘든 현실에도 오늘 우린 찬불가 만듭니다



좋은벗풍경소리의 '붓다콘서트' 모습



그동안 풍경소리가 내놓은 찬불가 음반 표지


풍경소리를 이끌어 온 이종만 작곡가

"어린 벗들에게서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을 노래에 실어 이 세상을 맑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린이 · 청소년 찬불가의 창작과 보급에 힘써온 불교계 대표적인 찬불가단체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덕신)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풍경소리는 찬불동요 제작과 보급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매년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해왔다. 1995년 12월 창립된 이후 정기적으로 찬불가 음반을 발표하고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앨범 제작도 꾸준히 참여했다. 그 음반만 벌써 40집에 달한다. 1996년 4월 첫 선을 보인 찬불동요집 '풍경소리'에 담긴 16곡의 동요는 불교계 이 일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와 강습회 교재로 활용돼 사찰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도 각광받아왔다.

'좋은벗풍경소리'의 전신인 '기획 숲'을 창립한 작곡가 이종만 기획 실장은 "정말 불교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질적인 재정문제 등으로 음반 제작도 만만치 않았지만 전법과 포교에 대한 원력으로 이를 이겨왔음이 짐작된다.

이종만 실장은 "대중들이 함께 불러주는 우리 찬불가를 들을 때마다 환희심이 솟아난다"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기쁨 하나로 버텨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불교계에 '좋은벗풍경소리'가 남긴 것들은 적지 않다. '풍경소리' 음반을 통해 발표된 찬불동요가 600여곡. 여기에 총재 지현 스님과 회장 덕신 스님 등 동참한 작사 · 작곡가만도 100여 명에 달한다. '길을 떠나자' '오늘은 좋은날' 등 유명 찬불가가 좋은벗 풍경소리를 통해 세상에 선보여 졌다.

2007년부터는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붓다콘서트'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2012년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열어 불교음악을 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밖에 1970년대부터의 찬불동요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했으며 2005년에는

1995년 창립 이후 꾸준한 음반 발매

20주년 맞아 '풍경소리' 41집 펴내

발표곡만 600여 곡, 100여 작곡가 동참

'재정난'에 붓다콘서트 등 축소 위기

찬불동요 108곡을 선정해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으로 펴내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07년 이종만 실장은 행원문화상 예술상, 2011년 좋은벗풍경소리가 포교원으로부터 공로패, 2014년에는 회장 덕신 스님이 제2회 불교음악상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모두가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이뤄낸 결과였다. 풍경소리는 창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IMF금융위기를 겪었다. 매년 두장의 음반을 냈지만, 2000년 결국 재정난으로 '풍경소리' 10집을 끝으로 제작 중단을 결정했다. 이 시기 5년간 10번이나 사무실을 옮기기도 했다.

찬불가의 맥이 끊겨서는 안된다는 불교 각계의 노력 끝에 겨우 사업을 이어왔다. 2004년 후원회 결성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하지만 창립 당시부터 있어왔던 재정적인 문제는 풍경소리의 행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월 진행돼 온 붓다콘서트도 축소돼 3개월에 1번 진행된다. 디지털 음반이 대세로 자리잡은 현재 상황에서 찬불동요집 판매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유료판매가 매회 2000장 중 30여 장에 불과해 음반판매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종만 실장은 "20주년을 맞아 다시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불교음악인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벗풍경소리'는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20주년 기념 붓다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찬불동요음반 1집에서 41집까지 참여한 가수들과 풍경소리 홍보대사 가수 우순실, 소프라노 정행스님, 테너 허철영, 중창단 소리마루, '제2의 송소희'를 꿈꾸는 차세대 국악소녀 강경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찬불가를 불렀다.

이와 함께 찬불동요집 '풍경소리 41집'도 배포됐다. (02)723-9836 후원: 국민은행 023501-04-187398(풍경소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숫타니파타〉의 가르침 영상 미학으로

권중목 감독의 불교독립영화 '실론, 세렌디피티' 개봉

롯데시네마 인디플러스서 상영

'숫타니파타' 찾기 위한 여정 다뤄

한국영화진흥위 추천 예술영화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을 영상 미학으로 표현한 불교예술영화 '실론, 세렌디피티' 〈사진〉가 12월 14일부터 롯데시네마 신사역 브로드웨이 인디플러스에서 상영된다.

불교에서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 있다했다. 여기서 권중목 감독은 '실론'(Ceylon, 스리랑카)를 꿈과 희망으로 표현해 영화 속 주인공 허수남이 이 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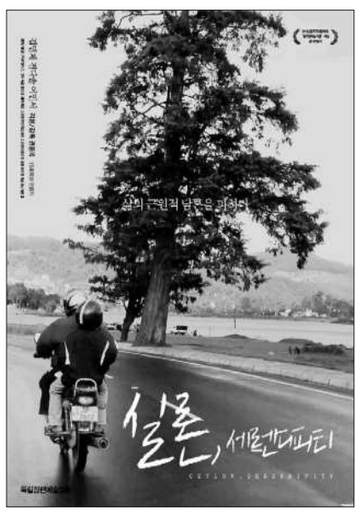
'실론, 세렌디피티'는 30만명 관람객을 유치하고, 8년째 장기공연을 하고 있는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주연배우 김민체 씨가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또, 연극배우의 실생활과 연극의 내용과 영화내용의 이중포맷(Two Frame)방식으로 영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방식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대학로의 중견연극인과 주스리랑카 대사님의 까메오 출연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독립영화로는 드물게 2년간의 제작지간, 해외로케이션, 스리랑카 철도청, 스리랑카 콜롬보시청,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서울영상위원회의 제작지원으로 여행으로도 접하기 힘든 서남아시아의 배경으로 영상이 전개된다.

이 안에서 숫타니파타, 반야심경에서 공통으로 전하는 가르침과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모색한 인간의 본질적 삶에 대한 태도를 어려운 언어와 해설이 아닌 영상과 작은 일상생활, 연극의 전개방식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한다.

권중목 감독은 "세렌디피티를 통해 3명의 실론왕국의 왕자가 인도를 여행하며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관객들에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자 했다"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권 감독은 "인간의 감성에 직관적으로 투영하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으로부터



다소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통의 독립예술영화는 30대 젊은 감독의 데뷔작이지만 50대 권 감독의 노련한 감정전개와 영상미가 묻어난다. 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 되새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노덕현 기자

생전예수재 지화 장엄전 '연화장 세계' 펼쳐져



이번 불교지화장엄전시전에서 선보인 1890년대 불암사 감로탱화 재현작. 한송이 지화를 만들기 위해 전통지화 사상 최대인 지름 50cm 종이가 쓰였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장 정명)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생전예수재 지화장엄전시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전에는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정명 스님의 작품 11종이 선보였다. 잊혀져가는 전통 예수재를 복원하고자 지화장엄을 위해 제작한 지화는 모두 전통한지에 자연염료로 천연염색하고 옛 기법으로 만든 것이다. 정명 스님은 "예수재의 원형의 온전한 복원을 위하여 1890년대 불암사 감로탱화와 1900년대 흥국사 감로탱화에 지화를 일부 재현하였고 일부는 창작하여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이번 작품 중 불암사 감로탱화를 재현한 지화는 한 송이 지화를 만들기 위해 지름 50cm로 재단해 살잡기를 한 것으로 전통지화 중 가장 큰 지화다.

또지화장엄전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전통연꽃 지화 총 30여 점이 함께 전시됐다.

노덕현 기자


• 공단등(6cm) @2,500원
• 바림등(8cm) @3,000원
• 공단등(8cm) @3,000원
• 황금등(8cm) @3,3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cm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 60×7cm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국인의 곡선 미학, 소나무에 담아 알리렵니다”





임무상 作 ‘隣(Rhin)－月松(월송)’

임무상 화백 신년 초대전
‘살어리랏다 저 솔처럼’… 내년 1월 23일까지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인만의 곡선의 정서를 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화두로 곡선미학을 화폭에 구현해 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임무상 화백〈사진〉이 새해를 맞아 작품전을 연다. ‘곡선미의 찬가, 살어리랏다! 저 솔처럼~’을 주제로 한 임 화백의 작품 18점이 선보이는 이번 작품전은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장은선 갤러리에서 마련된다.

임무상 화백은 자연을 관조하는 예술가이다. 미인도의 대가인 운정 김흥종 화백으로부터 사사 받은 임 화백은 1985년 중앙미술대전에 입선하며 국내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임화백의 화풍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염료들을 그림의 재료로 사용하는 등 한국만의 색채를 진하게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품들은 힘과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표현력에 있어서 커다란 온화함을 내포하고 있다.

임무상 화백은 전시에 앞서 “우리 민족은 딱딱하고 획일적이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서구의 직선문화에 비해 부드럽고 유연하며 넉넉함이 있어 곡선문화에 동화되어 있다”며 “어눌하고 투박하고 두루뭉술한 곡선 속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정감이 서려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아하고 질박한 미완성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한국미를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 화백은 이어 “이번 전시의 주제인 ‘살어리랏다! 저 솔처럼~’은 소재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유희하고 관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많은 스케치를 통해 얻어진 소나무와 주변 풍광들, 금강산 탐방 등을 통하여 얻어진 소재들을 탐구하고 재해석하여 탄생된 작품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작품의 주된 주제인 소나무는 한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온 국목(國木)과 같은 존재란 점에서 임 화백에게 주목받았다.

임 화백은 “늘 푸르름은 군자의 덕성을 상징할뿐더러 절개와 의지, 장수의 상징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부동의 1위인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소나무가 좋아 소나무를 사랑하는 솔바람회원이 됐고 전국 방방곡곡 산재해 있는 명목소나무와 소나무 숲을 찾아다니며 스케치 한 소나무 그림만도 수백 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화백은 “농촌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솔밭 속에서 뛰어 놀며 함께 한 정든 나무들이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가난한 화가에게는 물질적 보시란 가당찮은 일이고 이렇게 서라도 소나무에 보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02)730-353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자 아티스트 혼을 만나다

세종문화회관 내년 1월 29일까지 백남준 기획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은 오는 2016년 1월29일까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1932~2006) 선생을 조명하는 기획전 ‘백남준 그루브-흥(興)’을 연다.

신심 깊은 독실한 불자였던 백남준 선생은 독일에서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고 생전 불교적 사상을 내포한 ‘파란 부처’ ‘TV 부처’ ‘테크니컬 부처’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4월 미술관을 재개관한 후 선보이는 첫 기획 전시로 내년 1월29일 백남준 선생 타계 10주기를 앞두고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마다 그가 선보였던 위성쇼를 모두 볼 수 있다. 대표적인 TV로봇 작품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 중인 ‘보이스 복스(Beuys Vox)’ ‘피버 옵틱(Phiber Optik)’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설치됐던 ‘호랑이는 살아 있다-월금, 첼로’도 선보인다.

전시회 관계자는 “‘좌우간 당신이 나의 TV를 보게 된다면 제발 30분 이상 지켜보길 바란다’는 생전 백남준 선생의 주문에 따라 작품을 오래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했고, 편집하지 않고 충분히 친절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02)399-1114

노덕현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제52회 대종상 영화제 ‘유감’

다양성이 문화를 만든다



대종상 〈국제시장〉 ‘몰아주기’
다작 수상, 청룡영화제와 대비돼
〈법화경〉 ‘풀꽃 비유’ 귀감 삼아야

연말이면 두 개의 큰 영화제 시상식이 열린다. 대종상 영화제와 청룡 영화제이다. 그런데 올해 열린 제52회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영화 〈국제시장〉이 10관왕을 차지했다. 〈국제시장〉은 최우수작품상, 감독상(윤제균), 남우주연상(황정민), 남우조연상(오달수), 시나리오상(박수진), 녹음상(이승철 · 한명환), 촬영상(최영환), 첨단기술특별상, 기획상, 편집상(이진)을 받은 것이다. 주요 상을 모두 받았으니 가히 싹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올해에는 〈국제시장〉말고는 그렇게 상을 줄 영화들이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청룡영화제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은 〈암살〉이, 감독상은 류승완(〈베테랑〉)이, 남우주연상은 유아인(〈사도〉)이, 여우주연상은 이정현(〈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이, 남우조연상은 오달수(〈국제시장〉)가, 여우조연상은 전혜진(〈사도〉)이, 각본상은 김성제 · 손아람(〈소수의견〉)이, 음악상은 방준석(〈사도〉)이, 미술상은 류성희(〈국제시장〉)가, 편집상은 양진모(〈뷰티 인사이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도〉가 5관왕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골고루 나눠가진 셈이다. 그런 까닭에 대종상은 밀어주기라는 비판에서, 청룡영화제는 나눠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밀어주기가 나쁜 것만 아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 그 작품의 예술성과 상품성이 월등히 뛰어났다면 응당 밀어줘야 한다. 그게 공정한 평가이다. 하지만 후보작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기 장단점에 맞게 상을 나눠줘야 한다.

물론 〈국제시장〉이 다른 후보작들에 비해 작품성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보수적 담론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본다. 하지만 〈국제시장〉이 주요한 상을 모두 석권할 만큼 훌륭한 영화라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 흥행기록만 봐도 〈국제시장〉이 월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의 누적관객수를 보면, 〈국제시장〉 1,426만 명, 〈베테랑〉 1,341만 명, 〈암살〉 1,270만 명, 〈베테랑〉 1341만 명, 〈사도〉는 624만여 명, 〈내부자들〉 620만여 명, 〈연평해전〉 600만여 명 등 순이다. 1천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것은 〈국제시장〉말고도 〈베테랑〉과 〈암살〉이 있었다.

누적관객수가 그 영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좌표가 될 수는 없지만, 대중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영화제에서 영화를 평가할 때 대중성(혹은 상품성)과 함께 염두할 것은 작품성일 것이다. 〈국제시장〉은 질곡의 근대사를 살아온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보내는 찬사이다.

작품성 면에서도 〈암살〉, 〈베테랑〉, 〈사도〉는 결코 〈국제시장〉에 뒤지지 않는다. 〈암살〉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망한다는 공식을 깰 만큼 잘 만들었다. 초호화 캐스팅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영화 속 캐릭터들이 각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베테랑〉은 한국 액션영화의 베테랑 감독답게 재벌에게 통쾌한 한 방을 매기고 있다. 〈사도〉는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소재로 하여 부정(父情)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다. 송강호와 유아인의 연기는 단연 압권이다. 이처럼 경쟁작이 많았음에도 〈국제시장〉이 대종상을 싹쓸이한 것은 유감이다.

그래서인지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남녀 주 · 조연상 수상자전원이 불참해 대리 수상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체 24개 부문 가운데 11개 부문을 대리 수상했다고 한다.



대종상 영화제에서 싹쓸이 수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제시장’.

올해 청룡영화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 출연한 이정현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수상은 연기가 돋보였던 이정현에게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양성 영화(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저예산 영화)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게 주는 것이기도 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문화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마치 《법화경》 〈약초유품(藥草喩品)〉의 풀꽃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들판에 나가보면 풀들이 수없이 피어 있다. 저마다 빛깔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 그런데 이 들판에 내리는 비는 어느 풀에는 내리고 어느 풀에는 내리지 않는 그런 비가 아니다. 들판에 한번 비가 내리면 이 비는 어느 풀 하나 구별짓지 않고 고루고루 내린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이 풀들이 비를 맞아들여 저마다 자기 성질에 맞는 꽃과 열매를 맺는다.”

유응오 작가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10~2015.12.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3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5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6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불교범어진언집	박지명/이서경	하남
8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9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10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머리 나쁜 스님, 공부법을 평정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님의 공부법
자현 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 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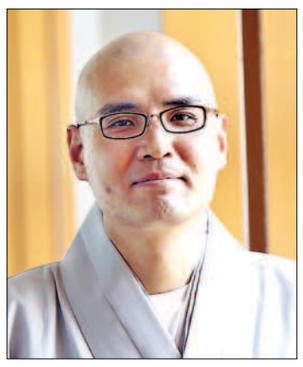
"나는 천재형의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평범한 머리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뛰어넘었다."

초등학교 성적표에 '가'도 있고, 학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나쁜 기억력에 독수리타법으로 속도마저 밀리는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 스님(45 · 사진). 그는 어떻게 국내 최다인 4개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또한 매년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 가장 많은 논문을 학진 등재지에 수록하며 논문의 신으로 통하게 되었을까?

자현 스님은 머리 좋은 공부 귀재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 수재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명상을 통해 머리를 틔워야겠다는 생각은 이후 100여 가지의 명상법과 수행법을 배우게 되는 동기가 된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함이 있었기에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를 몰랐고, 마침내 자신에게 특화된 공부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님은 숱한 도전과 모험을 즐기며, 종교 · 철학 · 역사 ·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는 전방위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됐다.

세상은 급변하며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와 지식



4개 박사학위 가진 스님의 공부비결 소개
"느낌 떠올리는 이미지 기억법 사용" 강조

을 쏟아낸다. 평균 수명은 연장돼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화의 추세 속에 세계노동시장은 단일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 공부와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원활한 소통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는 물론 경쟁상대와 차별화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며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도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공부를 어려워하며 일과 인생 사이에서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개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 공부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 환경이 열악해 공부할 엄두를 못 내고도 있다. 그러나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복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공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똑같은 공부 약자의 입장서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온몸으로 체득한 스님의 생생한 경험은 절대적 공감을 이끈다. 암기력이 아닌 창의력이 주가 되고 평생 공부 시대가 열리는 지금, 스님의 30년 공부 내공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으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다가온다. 더불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통찰력은 덤으로 얻게 된다.

"머리 나쁜 나도 하는데,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 자현 스님이 제시한 공부법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데 특징이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최선의 공부법이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탓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단숨에 공부 콤플렉스서 벗어나 공부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한다.

고려인이 흙으로 빚은 도자기로 황금의 위엄을 넘어선 것처럼, 이제 이 공부법만 활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가는 성취감 속에서, 인생의 참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미치도록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공부법 7〉

1. **노력하면 된다는 '허상'을 깨트려라.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2. **자기 자신과 충돌하지 마라. 공부를 방해하는 내면의 안티를 설득하라.**
3. **암기력은 공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느낌을 떠올리는 이미지 기억법을 사용하라.**
4. **잡념을 양성화해 내 편으로 만들어라.**
5. **공부 잘하는 복권은 '자존감'이다.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복권이다.**
6. **긍정은 가장 값싼 아편일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정을 통한 자신감이다.**
7.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 마라톤에서 초반 스타트는 중요하지 않다.**

책속의 밑줄 긋기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허상을 깨버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실에 대한 자각과 직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1보가 된다. 마치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막연한 판단이 아닌 분명한 인식에서 전환을 맞는 것처럼 공부 역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바둑이나 고스톱 판이 정 불리해서 역전의 기회가 없다면, 끝까지 게임을 하지 말고 판을 뒤집는 용기도 필요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힐 수 있기 때문이다. (18p)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발전은 지식의 전체를 암기할 필연성을 붕괴시켰다. 이제는 넘쳐나는 정보들을 잘 활용해 기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외우는 암기력이 중요한 시절은 아니다. 실제로 요즘은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관련 연도 등이 불분명할 때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연도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억의 총량이 아닌,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감각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현대사회인 것이다. (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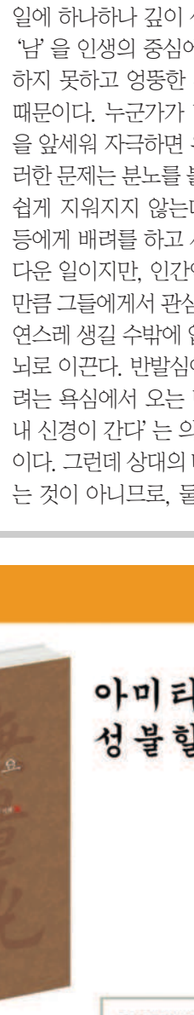
저자 자현 스님은?

동국대와 성균관대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 동국대 미술사학과 · 고려대 철학과 · 동국대 역사교육과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해 국내 최다 박사학위자가 됐다. 현재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오대산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울산 영평선원 원장, 월정사 부산포교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학진 등재지에 11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으며, 〈자현 스님의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불교미술사상사론〉은 2012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는 2012년 문광부 우수도서, 〈붓다순례〉는 2014년 세종도서에 선정됐다.

"행복은 존재하는 것 아니라 인정하는 것"

신경쓰지 않는 연습

나토리 호겐 지음 | 이정환 옮김 | 세종서적 펴냄 | 1만 5천원



혹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가? "다 괜찮아지겠지, 잊어버려"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그래? 걱정도 팔자다" "세상엔 더한 일도 많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잖아. 이젠 잠 좀 자."

이렇듯 살다보면 걱정과 고민, 분노가 가득 찬 날이 있기 마련이다.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이는 흔치 않다. 사실 알아준다 한들 그가 나의 걱정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쉽게 잠들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이유로 괴롭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용서가 되지도 않고, 돈이나 직장 문제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아 힘들다. 때로는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괴롭고, 때로는 건강이나 미래가 불안해 고민이다. 남의 일에는 조언도 하고 해결법도 잘 찾지만, 정작 내 마음에 고민이 둥지를 틀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행동하는 승려'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님 나토리 호겐은 이렇게 번뇌하는 우리에게 "인생에는 기억에 남겨야 할 장면이 있는가 하면, 피사체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장면이 있다"고 말하며, 인생의 괴로움을 다른 각도에서 포착해보기를 권한다.

〈신경 쓰지 않는 연습〉에는 불안, 분노, 번뇌, 불행 등을 행복으로 바꾸는 106가지 가르침이 들어 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닌 '남'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올바른 피사체를 선택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피사체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감정을 앞세워 자극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반발한다. 그러한 문제는 분노를 불러오므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에게 배려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무척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간인 이상 우리는 자신이 그러는 만큼 그들에게서 관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자연스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번뇌로 이끈다. 반발심에서 오는 분노와 관심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오는 번뇌, 이 둘은 모두 '상대에게 내 신경이 간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이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둘 다 내게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어 고민하기도 한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를 불안으로 이끈다. 그러나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에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괴로움만 줄 뿐이다.

저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쓸데없이 신경을 쓰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자연체에 가까운 상태로 느긋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전한다. 사람의 마음이든 우리의 미래든,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풀고 긴장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법,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 흐름에 몸을 맡기고 주어진 상황을 소화하는 법 등 106가지 이야기가 그것이다. 스님의 저작물이라면 으레 좋은 글귀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도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쉽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은 수십 년 수행을 해왔으며, 결혼

불안, 분노를 행복으로 바꾸는 106 가르침
행복한 생활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 필요

을 하고 도쿄 도심서 사찰 주지를 맡은 스님답게 생활인이자 종교인으로서의 나토리 호겐의 연륜이 느껴지는 저작이다. 그의 글은 깨달음을 얻은 다른 스님들의 글처럼 카리스마가 넘치거나 혹은 영적이지는 않다. 그보다는 저자의 생활처럼 소박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유머가 섞여 있어 이웃집 아저씨의 자기성찰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덕분에 비교적 단문인 그의 글은 술술 읽히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에는 그가 수십 년 쌓아온 수행의 내공이 느껴진다. 주지 스님의 아들이라 착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던 사춘기와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던 청년기,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기까지 거쳐온 과정, 충족되지 않은 욕심에 괴로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 등 그는 숨김없이 자신을 내보이며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음을, 그러나 수행을 통해 조금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한다. 그렇기에 그의 문장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불안, 분노, 번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아지리라고 말해주는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 있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을 모티브한 일상생활 속 소참법문집
금강경으로 세상읽기
흔적없는소리
글 · 사진 금담 정관
신간안내
금강경 총 32分에 선시, 일화 등 담아 시적언어, 비유적 이야기로 이해 도와 저자의 계절별 작품 사진도 수록!!
〈흔적 없는 소리〉는 금강경을 모티브로 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정관스님의 일상생활 속 소참법문집이다.
스님은 머리말에서 "소리는 아무 형체가 없지만 생각을 형상화하고 소통의 형태로서 표현된다. 생사가 본래 없듯이 우리 삶의 본질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묘한 것, 바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비어있는 세계를 바로 보는 것"이라며 "매 순간 마음이 딛고 있는 본래 그 자리, 마음의 비어 있는 공(空)의 세계에 가 닿기를 발원한다"며 책 제목을 『흔적 없는 소리』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 금담 정관
불국사 성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였다. 영동 반야사 주지, 대구 운흥사 주지, 대구 동화사 기획국장, 청도 용천사 주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대구 향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여유」,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마음을 주는 손」과 시집 「눈이 오던 날」, 「꽃비」, 「날마다 좋은날」이 있다.
해조음 | 변형 신국판 | 반양장 | 336p
정가 15,000원
해조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51길 11 불교대구회관 2층 | Tel. 053-624-5586 | e-mail. bubryun@hanmail.net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쉽게 윤회를 벗어나 성불할 수 있는 도를 보인 원효성사의 논서!
- 종교의 마지막 논서 -
원효의 무량수경종요
정목스님 번역 · 해설 | 신국판 | 양장 | 흑백 | 384쪽 | 20,000원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 신국판 | 칼라 | 280쪽 | 14,000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역해 | 신국판 양장 | 2도 | 348쪽 | 20,000원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힘을 체험케 하는 묘한 논서
현세에 안심을 얻고 정토를 감득해 묘관찰지를 증득하는 법
『무량수경종요』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을 원효성사의 깊고 넓은 지혜로 해설한 보배로운 저술이다. 염불수행법, 보리심, 정정취, 부처님의 지혜 등, 신행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선근이 깊은 사람은 염불로 지혜를 성취하여 오탁악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범부일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성사의 가르침을 우러러 믿고 염불하면 반드시 자비광명의 은혜를 입어 안심과 희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량수경종요』는 '종교의 마지막 논서'이다.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과 실상, 범부와 성인의 세계관, 철학과 종교의 관계, 성자의 지혜 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일상서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화두요 수행"

날마다 온몸으로 성찰하기

박영재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3800원



이 책 저자인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이하 선도회) 지도법사인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사진〉는 대학시절부터 입문한 참선수행 체험으로 인해 성찰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우치고, 종파를 초월해 많은 대학생들이 성찰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서강대에 정규수업시간을 개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은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생들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자기성찰을 통해 수처작주(隨處作主), 즉 가는 곳 마다 주인공인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펼친 것은 저자의 시대를 조망하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자는 이제 그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치 못해, 학교라는 울타리서 벗어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종교를 초월해 자기성찰 문화의 큰 흐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간 가르침의 과정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 속에는 각 개개인이 처해 있는 일상 속에서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불이(洞布不二)'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기성찰의 안내지도와, 가정과 국가를 떠받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바, 간절한 노파심절(老婆心切)이 곳곳에 배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자기성찰의 교과서로 삼아 성찰의 삶을 지속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성찰과 관련해 언어 자체를 부드럽고 평이한 일상어로 기술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공부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찰은 단지 머리로만 헤아리는 관념덩어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실천이 다 함께 어우러져 행해지는 참된 의미의 성찰을 전제로 한다.

제 1부 초심자를 위한 첫걸음에서 성찰을 위한 이론과 실천편이 딱딱하게 느껴질 경우, 제 2부 성찰태도 익히기를 먼저 일독하여 동시대를 호흡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체험담을 통해 무한경쟁시대를 100세까지 살아내야 하는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기부여를 한 후, 제 1부로 되돌아와서 성찰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는 것도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부 제 1장 성찰을 위한 이론편에는 선도회의 핵심 가풍이자 동시에 자기성찰을 위한 기초 핵심 3요소인 귀의삼사(歸依三師), 입실점검(入室點檢), 좌일주칠(坐一走七) 등과 사은(四恩) 및 다종교시대를 맞이해 이웃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동서고금의 영적 스승들의 성찰배경을 소개해 초심자들로 하여금 왜 성찰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게 했다. 제 2장 성찰을 위한 실천편에서는 수식관(數息觀), 신사홍서원(新四弘誓願) 및 화두참구 등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의 제 2부 제3장 '넉 달 간의 집중



1999년부터 서강대에 '참선수업' 개설

'성찰' 관련언어 평이한 일상어 기술

일상서 성찰하는 구체적 방법도 소개

참선 수업'에는 서강대 학생들이 실제로 성찰을 익힐 수 있는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혀서 성찰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수강신청 이야기에서는 수강신청을 못해서 적극적으로 수강 허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리타분할 것만 같은 참선 강좌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수업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참선을 어려워하거나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할 것 같다.

제 3부에서 다루는 저자의 성찰여정은 어릴 적에 '어머니 장롱에서 돈을 훔치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선 수행을 하기 전에는 형편없는 마마보이였다고 스스로 단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답지 않은, 의젓한 자기성찰을 보이기도 한다. 1975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숫타니파타〉를 접하면서 시작된 불교와 인연에 이어 선도회의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 선사부터 참선지도를 받으면서, 인가(印可) 및 선도회의 제 2대 지도법사직을 승계하는 과정을 비롯해, 이후 숭산 선사님과의 만남, 대중 강연 및 본격적인 성찰의 글쓰기 그리고 2009년 8월 14일 재가 중심의 종교법인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 설립인가까지 쉼 없이 달려온 성찰과 나눔의 40년간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보여주는 서강대 참선수업 수강생들의 성찰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 저자의 지난 40년간의 치열한 수행여정은 이 시대 사람들의 성찰과 나눔의 삶을 향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박영재는?

1955년 태어났으며 거사호는 법경(法境)이고 헌호는 무난헌(無難軒)이다. 서강대서 입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3월부터 6년 반 동안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 9월부터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 물리학과장, 교무처장, 자연과학부 학장을 역임했다. 1975년 10월 선도회 초대 지도법사인 종달 이희익 선사 문하로 입문한 박 교수는 1987년 9월 선사께서 설정한 간화선 입실점검 과정을 모두 마쳤다. 1991년 8월과 1997년 1월 화계사에서 숭산 선사로부터 두 차례 입실 점검을 받았다. 1990년 6월 종달 노사 입적 후 지금까지 선도회 제2대 지도법사 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관념의 미로에 빠지지 않은 직관적 시어… 68편 詩 묶어

허공에 점하나 찍어놓고

소암 지음 | 문지사 펴냄 | 1만원



"한 되들이 순백의 곡차 들이키고 법상에 올라 사자후를 외치던 백학도인이여, 귀골로 잘생긴 헌헌장부여 듣고 계시는가"(설봉선사 中에서)

"마음이 부처라 마음밖의 부처를 찾지 말라/운문 선사가 말했다/마음은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보면 붉은 것은 꽃이요 푸른 것은 버들/누른 것은 개나리/귀로 들으니 종달이가 하늘에서 울고/메미는 나무에 붙어 맴-맴 생각으로 마음을 찾으니 행방이 묘연하다……"(마음이 부처 中에서)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시인 소암이 예순 여덟 편이나 되는 시를 한 권에 묶어 책을 펴냈다. 제목은 〈허공에 점하나 찍어놓고〉이다. 난해한 시어들과 달리 저자의 시들은 수필을 읽는 것처럼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관념의 미로에 빠지지 않고 시어들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분별을 넘어 바로 사물의 정수에 접근하며, 사소한 것에서 중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중대한 의미를 다시 사소한 일상사로 돌릴줄 안다. 그러므로 꽃이나 별을 노래한 시가 화두를 다룬 작품과 별개의 것이 안되고, 시정(市井)의 일을 읊조린 마음이 그대로 산사의 유한함을 표현한 심경과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됐다.

이원섭 시인은 "광주를 노래하면서도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난초나 되는 듯이 높은 품격속에 승화시킬 수 있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선수행서 얻은 역량인 듯하다"며 "더욱 정진해 선시에 사람 있음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공채 시인도 해설을 통해 "워즈워드와 중국 선시의 백미. 한산시(寒山詩)의 독창적인 대자유를 방불케 하는 소암 시인의 선시(禪詩)는 무한한 우주와 상응하며, 참된 삶의 이상향과 생명가치를 구현시키고 있다."고 극찬했다.

소운 스님(하바드대 박사, 동명대 교수)도 "사람과 자연, 그리고 깨달음이 조화로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시 작품이 감로수가 되어 메마른 인간의 삶과 영혼을 적셔준다."고 평했다.

이번 시집은 1990년에 출간, 절판된 지 25년 만에 독자들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어 재출간되었다. 소암 시인의 선시(禪詩)는 독특해서 출간 당시 선시 열풍을 일으켰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산중 수도승의 고뇌와 깨달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늦가을 별빛으로 핀 국화처럼 향기로움이 가득하다.

김주일 기자

미륵, 기적 염원하는 민초들의 희망

미륵로드

유동후 지음 | 토파즈 펴냄 | 1만 5천원



모든 사연이 전해지지는 않으나 어느 땅 어느 곳에 미륵이 섰을 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에 땅속에서 불쑥 미륵불이 솟아났고, 꿈에 현몽한대로 가보니 미륵이 서 있어 예불하여 모셨다. 강에서 뱃사공이 건져 올린 미륵도 있고, 바다에서 끌어올려 모신 미륵도 있다. 마을의 수호 불인 미륵, 밭두렁과 야산에 방치돼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미륵, 옛 절터를 지키는 돌미륵을 찾아가는 답사 길은 내 안의 기적을 염원하는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무심코 지나치면 알 수 없지만, 우리 산천 어딜 가든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 것이 돌부처다. 들길을 걷다가 우연히 돌미륵을 만날 수 있고, 등산을 하다가도 햇볕 잘 드는 바위 면에 거칠게 조각해놓은 마애불을 마주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닳아 얼굴이나 윤곽이 흐릿하고, 그 생김새도 절집 불상과는 많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지만 옛 선조들이 간절히 불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불상이 틀림없다. 친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경외감과 묵직한 위용이 느껴지는 얼굴들, 묵직함만큼이나 아련한 세월의 무게가 실

내 안에 기적이 필요할 때는

전국의 숨은 미륵불 만나자

감나는 불상들, 이 책은 그런 돌미륵을 찾아 나서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북이다.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 열반하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교화하기로 예정된 부처님이다. 까마득한 미래에 이 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원한다는 미륵하생신앙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완의 꿈, 그러나 끝내 완성되고야 말리라는 희망과 믿음의 신앙이다.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에, 그리고 통치자들의 억압에 시달릴 때마다 도처에 돌미륵을 세우고 기적을 염원했다. 가난하고 애닯은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 모두 도솔천에 올라가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희망하고, 난세에 어서 빨리 미륵불이 나타나 구원해 주기를 갈망했다.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 여러 부처님이 있지만 그 중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한 부처님은 아마도 기적을 바라는 미륵부처였을 것이다. 민초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꿈꾸게 하던 미륵부처님. 천 년 세월 비바람을 맞은 불상들, 이름 없는 들녘서 혹은 깊은 산 속서 누군가의 마음공양을 기다리고 계실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 물질 만능의 도심을 벗어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길 염원한다.

김주일 기자

티베트 불교 진언 산스크리트로 풀어내다

불교 범어 진언집

박지명, 이서경 편저 | 하남출판사 펴냄 | 2만 9천원



부처님 나라인 인도를 떠난 불교의 언어는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다. 팔리어, 스리랑카의 싱할라(Sinhala)어, 티벳어(Tibet)인 서장(西藏)어, 실담(悉曇)어, 한자(漢字), 한국어, 일본어 등을 지나면서 불교의 언어는 그들 고유의 문화와 함께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또한 부처님 제자들은 수차례의 경전 결집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을 문자화시키는 작업도 진행했다. 여기에는 남방불교의 팔리어와 대승불교의 한자와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티베트 서장어가 포함되며, 각 나라마다 그들의 대장경을 만들어 불교를 유지시키고 대중화하여 꽃 피우려고 노력했다.

불교는 참으로 위대한 종교이다. 포용성과 자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종교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불교와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분처럼 스며들어 존재하고 있어 불교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해석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무수한 세월을 거쳐 구전된 불교 언어를 그것의 근본인 산스크리트의 입장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구전된 근본불교, 대승불교, 티벳불교의 다양한 진언과 게송, 경구들을 모아 최대한 산스크리트의 기본 입장서 정리했으며, 여기에 한글 음역과 해석을 달아 가장 본질에 가까운 진언과 게송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능엄주진언〉 〈불정존승진언〉 〈수구즉득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 42수진언〉까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5대 진언을 원문에 가깝게 기술했으며, 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 해석을 덧붙여 독자들이 불교 원류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선을 배우는 길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불교, 護國의 신념으로 분연히 일어서다

22. 임진왜란과 의승군의 활약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한 후 정확히 200주년이 되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을 거쳐 1598년 일본군의 퇴각까지 무려 7년간이나 조선 땅에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전국토가 유린되는 가운데 명과 일본 간의 강화 협상이 반복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만주에서는 후금세력이 발호하여 1636년에 청을 세웠고 명은 1644년에 몰락하였다. 조선은 국가재조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후금 및 청에 대처해야 했으며 결국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다. 또한 일본은 임진왜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막부가 세워지는 등 임진왜란은 중화질서의 균열을 낳은 동아시아의 세계 전쟁이었다.

일본은 명의 요동을 치러가기 위해 조선의 길을 빌린다는 '가도입명'을 내세우면서 전시 기간 중 총 20만의 대군을 동원해 조선 침략을 감행하였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는 쓰시마 쪽에서 온 일본 군선으로 시커멓게 뒤덮였다. 일본군은 첨사 정발이 지키던 부산진과 부사 송상현이 사수하려 한 동래부를 일거에 함락시키고 북진을 시작했다. 일본군은 경상도로부터 서울을 향해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진격하였는데, 전란 초기에는 제대로 된 관민의 방어나 치열한 저항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조선이 200년의 평화기간을 겪은 데다 특히 남부 지역은 항상 대규모 외침에 대비해야 했던 북방에 비해 방비태세나 정규군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경천동지할 무기인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의 기세 앞에 완전히 눌렸던 것도 한 요인이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여 일 만에 파죽지세로 서울에 당도하였다. 앞서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 싸웠지만 중과부족으로 전멸하였다. 이에 다급함을 느낀 선조는 일본군이 서울에 오기 전에 도성을 급히 떠났고 평양을 거쳐 중국과의 접경지대인 의주로 피난을 갔다. 조선 정부는 전쟁 개시 후 명에 군대 파병 및 군사원조를 긴급히 요청하였고 각지에서 민간인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의 보급로를 막았다. 한편 전란의 초기 전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었다. 수군이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일본군을 경상도 연안에 묶고 서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기에 바다를 통한 군량 보급선을 끊고 수륙 양면의 협공을 차단할 수 있었다.

1592년 7월 의주에 있던 선조는 평안도 묘향산에 주석하던 청허 휴정을 불러 팔도도총섭으로 임명하였다. 휴정은 앞서 1589년에 일어난 정여립 역모 사건 때 무고에 의해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당시 그의 글을 선조가 읽고 인품에 감동하여 어필묵죽과 시를 내린 인연이 있었다. 국왕의 명을 받은 휴정은 평안도 순안 법흥사에서 전국 사찰에 격문을 띄워 5천 명의 의승군을 일으켰다. 황해도에서는 의엄이 총섭이 되었고 관동의 사명 유정과 호남의 뇌묵 처영을 비롯해 각지에 있던 휴정의 제자들이 의승군을 이끌고 거병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충청도의 기허 영규와 8백여 의승군이 의병장 조헌을 따르는 7백 의병과 함께 금산에서 적과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이 사건은 의승군의 충성심과 전투력에 대한 조야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592년 12월에는 앞서 6월에 보낸 3천 명의 선봉대가 일본군에 패퇴함에 따라 5만 명의 명나라 정규군이 조선에 도착하였다. 조명 연합군은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하였고 여세를 몰아 명군이 남진하다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중국 사신의 객사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였다. 2월에는 전라도 관찰사였던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과 의승군이 합세하여 한강 인근 행주산성 전투에서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4월에는 서울을 수복하였다. 의승군은 행주산성 뿐 아니라 명군 및 조선군과 함께 앞서 평양성 전투에도 참여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또한 선조가 서울로 환도할 때는 의승군이 호위를 맡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군량 수송,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의 산성 축조 등 전쟁에 필요한 각종 부담과 역을 승군이 담당하였다. 유일하게 병화를 면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이나 국가 공식기록물, 태조의 어진 등도 강화도나 해주, 의주 등을 거쳐 묘향산 보현사로 옮겨졌고 승직을 수여받은 승려가 수호를 담당하였다.

1592년부터 7년 간 왜군 침략
휴정, 도총섭 임명… 승군 모아
영규의 승군, 금산 혈투서 전사
사명 스님 戰後 외교서도 활약
승군, 전투 · 산성 조성 성과 보여



임진왜란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금산에서 이뤄진 전투였다. 기허 영규가 이끄는 의승군 800명과 의병장 조헌의 700명 의병은 금산에서 왜군과 맞서 마지막 한명까지 싸웠고, 장렬히 산화했다. 사진은 700의총기념관에 있는 '금산혈투출진도'. 오른쪽에 말을 탄 스님이 기허 영규 스님이다.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승장(僧將)들. 왼쪽부터 청허 휴정, 사명 유정, 기허 영규 스님.

유정은 명의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도한 강화 교섭의 와중에 울산에 있던 일본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찾아가 적진을 탐색하였다. 이때의 유명한 일화로는 가토가 유정에게 조선의 보배가 무엇인지 묻자 "당신의 머리를 얻으면 조선은 큰 보배를 얻는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가토 기요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척이자 최측근으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선봉장이던 천주교 신자 고니시 유키나가와는 정치적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강화 교섭에서도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냈다. 일본에는 16세기부터 국제 교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이 바로 전해졌고 천주교도 들어와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에 도요토미는 천주교 탄압의 일환으로 천주교도 1만 8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편성하여 고니시에게 맡겨서 조선으로 보냈다. 이때 일본에 있던 예수회 선교사 세스페데스가 고니시 휘하 군대의 종군신부로 조선에 와서 약 1년간 체류하였고 전후에 잡혀간 조선인 2천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다.

유정 외에도 뇌묵 처영, 기암 법견 등 다수의 휴정 문도들이 의승장으로 활동하였다. 처영은 호남에서 1천명의 의승군을 일으킨 후 평양성 전투와 행주산성 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고 남원의 교룡산성을 쌓는 등 후방 지원사업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다. 법견은 전라도 입암산성의 축조와 수호를 맡았고 전후 금강산 일대의 수많은 중창불사를 일으켰다. 또 소요 태능, 청매 인오, 중관 해안 등 다수의 의승장이 휴정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 일어난 의승군은 큰 공적을 세웠지만, 불교의 입장에서 전쟁과 승군 활동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7년간의 전쟁은 조선에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불교계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우선 병화와 약탈, 전지의 황폐화는 사찰 건물의 소진과 함께 사찰의 재정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의승군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하거나 이후 환속하는 등의 인적 손실도 컸다. 승군 활동은 사찰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켰는데, 지역별로 동원 인원이 과중하게 책정되거나 승군의 활동 유지비를 사찰의 사위전에서 나오는 소출로 감당하게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한편 살생과 같은 계율의 위반이 공공연히 행해졌고 수행풍토가 약화되는 등 불교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는데, 휴정의 주요 제자로서 정관문파를 이룬 정관 일선은, "말법이 쇠하고 세상이 매우 혼란하여 백성이 안도하지 못하고 승려도 편안히 머물지 못한다. 적의 잔해와 사람의 노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더욱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승려가 속복을 입고 종군하여 죽고 도망치면서 출가의 뜻을 잊고 계율 실천을 폐하며 허명을 바라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장차 선의 기풍이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이는 전쟁 참여가 승려의 본분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었다.

휴정의 또 다른 제자 청매 인오도 "참상과 전쟁이 날로 심하고 부역이 해마다 더욱 압박하여 남북으로 갈리고 산중에 희비가 끊어져 병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당시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실제로 전란 후 공을 세워 직책을 받은 승려들 중 환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승군의 활약으로 승려의 위상이 높아지고 불교의 입지가 강화될 조짐이 있자 조정에서 고위 승려의 권한 남용 사례가 비판되거나 선교양종이 다시 세워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표명되기도 했다. 즉 불교의 세력화에 대한 견제와 경계의 시각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승려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고 사대부 유생이 주도한 의병 활약에 비추어 결코 손색이 없는 충의의 공적을 세운 것은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초부터 유학자들은 승려에 대해 부모를 버리고 군주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효와 충의 윤리를 져버린 부류라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승려들이 스스로 의승군을 조직해 전쟁에 참여하였고 더욱이 웬만한 유학자나 관료보다 더 큰 활약을 하며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했기에, 윤리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불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8세기에는 휴정과 유정 등을 국가에서 공식 향사하는 사액사우가 지정되기도 했다. 즉 1738년 밀양의 표충사, 1789년 해남 대둔사 표충사, 1794년 묘향산 수충사가 사액되고 공식적 향사가 이루어졌다. 그에 대해 정조는 "불교는 자비가 중요한데 휴정은 그에 부끄럽지 않아 인천의 안목이 되었다. 종풍을 발현하고 국난을 널리 구제하였으니 근왕의 원훈이며 상승의 교주이다. 속세를 구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자비"라고 하여 국가를 위한 충의의 공적을 치하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죽은 망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추복하는 천도재, 수륙재 등의 불교의례가 성행하였다. 특히 전란에서 죽은 연고가 없는 이들을 매장하고 추도하는 일들을 승려들이 주로 담당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란이 가져온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종교적 효험성이 다시금 주목되었고 불교 신앙 및 재회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지에서 폐허가 된 사찰이 중건되고 승려 문파가 형성되었으며 수행체계, 교육과정, 법통의 정비와 불서 간행이 이루어지면서 불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처럼 임진왜란 때의 의승군 활동은 조선후기에 불교가 존립하고 활성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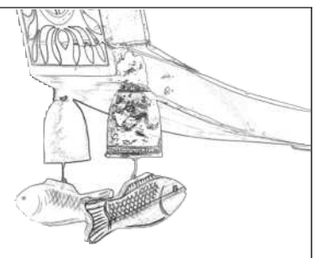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얼룩새의 몸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빛깔보다 더 많으니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자연산 상황버섯
면역력 증진
생명 연장력
뛰어난 항암력
(지리산 심마니)
010-8687-9003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운이 나쁜데 어디 운을 고칠 부적 없습니까?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1-0527-5845-43
내 마음의절
010-4500-8234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천병,
신병,우울증,병명없이 아
프고 우환 고생하시는분.
스님, 보살 상담환영
금강사 010-5152-1222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상담

사찰 소임 원합니다
게송,법문,범패,불교의식
전문 / 함께 큰불사 이룰
수 있는 원력! / 땅이나 건
물 저렴하게 보시하실 분.
큰 인연 연락주세요.
곡차, 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10-2553-8827

공양주 보살님, 종무소 직원 모십니다
(서울 삼각산 용덕사)
010-4802-3290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급히 모십니다
(제주도)
010-4415-5780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10-3825-3181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특수 기도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기 문 둔 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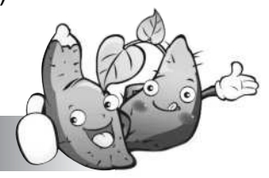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해남 황토 고구마
산지 직송
1BOX 10kg 25,000원
(택배비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3602-04-065595
예금주 : 황향숙
010-3349-880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원격상담문의 010-5801-2203 부천 상동역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이젠 풍수도 과학적이고 정통해야 한다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읽어내며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新 풍수원리
太極山水穴脈地理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며 집안이 흥성한다!!
◆발복흥성 혈맥잡는 비술득통!!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음 · 양터가 길흉화복 좌우한다!
▶족집게 터감정 진혈점지 알선상담◀
(절터 사업장 주택지 묘지 납골 수목장 등)
※비술 전수자 모집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난날의 일을 참회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리라.

- 법구경 -

사 찰 안 내

▶아늑하고 아기자기 예쁜 사찰◀

- 위치 : 경북 청도 (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377평
- 건물 : 목조법당(25평), 요사채(50평), 삼성각(7평), 극락전
- 예쁜 연꽃과 금붕어, 황토방에 전면유리 차방, 계곡물 철철
- 가액 : 6억 5천만원 <출장비는 받지 않음>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직통 051-863-6622 / 010-3560-8522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 2로 17번길 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 사찰 안내
- 법당 90㎡, 요사채180㎡, 토지 890㎡
- 조용한 마을 끝사찰
- 양도가 : 1억 3천만원(전세가능 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위치: 서울
◎ 대지: 65평 ◎ 종교용지:70평
◎ 법당: 30평 ◎ 법당: 40평
◎ 요사: 60평 ◎ 요사: 100평
◎ 양도: 9억 5천 ◎ 양도: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전망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 명산인식장산과 보문산 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m
- 대전역(택시) 10분거리,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2층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주 IC부근 사찰
- 토지 6,100㎡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4억
- 마을뒷편산쪽 안정된사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606-7253

암 자 안 내

- 위치 :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 대지 전 합 1,380평
- 건 약 50평, 태양광 온수
- 사진 전송가능
- 상담후 저렴하게 드립니다
- 가액 : 1억 3,000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랑진역에서 10분 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4개, 다실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비품대 2,500만원

010-3547-176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예산군예당저수지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급" 불교사 양도

-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대로변
- 평수 : 10평
- 보증금 : 천오백만원
- 월세 : 45만원

※개인 사정으로 급 양도합니다. 시설금 육백에 모두 다 드리고

- 몸만 나갑니다.

010-6770-7598

사찰(급)안내

- 소납이 급히 공사찰 소임관계로 부득이 양도 하고저 하오니 뜻 있는 스님들께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750만원
- 평수 : 35평

010-3742-5925

대 형 포 교 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 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28평, 1층 방3
- 주방거실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 상단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 법종, 소불 108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5천 월세 3천에 70만원

010-8611-7568

사찰(급)안내

-납골당 5,000기 허가 운영중-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47-4외 6필지(447-1,2,3,5,6 산144-5)
- 총부지:31,411㎡터(약 9,501평)
- 건물 : 법당 91.16㎡(28평) / 요사채 81.07㎡(25평)
- 납골당시설, 목조기와대웅전, 목조기와요사채, 납골시설, 풍수, 전경최고
- 교통 : 2차선지방도에서 500m 광주광역시에서 30㎞ / 장성읍에서 12㎞ / 장성 상무대옆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4115-5454

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와룡길 55-105 순천역에서 20분거리
- 해돋이 명소, 해발 350미터
- 종교부지로 허가 나왔음 (분할도 가능)
- 부지 1050평, 건물 60평
- 가액:4억

주인직 010-3228-9787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1-542-09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8평, 목조건물, 남향
- 요사채 : 방2, 공양간, 화장실
- 평수 157평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 거리 호남선 옥과 IC 5키로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 적송나무숲 암자, 노천약사석불
- 가액 : 3억 5천
- 장난전화 하지 합시다

010-8224-16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1,420평,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 요사채, 공양간, 창고, 차고, 외부화장실 등등
- 대형주차장 등
- 스님 건강상 문제로
- 가액 : 3억 3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심야전기
- 종교용지 대지 포함 약 500평, 전 1,480평
- 가액 : 5억 2천

011-9731-1415
033)762-249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수원시 정자동(대단지 아파트 앞상가
- 자원풍부 ,입지조건 최상
- 면적: 32평(3층 중 2층) 시설내부(최상) 시설 일체 완비
- 상가(32평) 1억2천 만원(시설비, 1천5백)
- 총 양도가 1억3천5백만원(대출4천포함)
- 임대가능: 보증금3천만원 / 월35만원 시설비1천만원. 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 -7789-50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중랑구(우림시장)사거리
- 2층, 약 30평
- 삼존불, 신중, 집기
- 가액 : 보증금 2,000에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가격절충)

010-5387-6767

사찰 구합니다

- 창건주 승계 원합니다
- 부동산 중매인 사절

010-4415-07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승강장, 장소 최적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방,욕실, 방1, 창고, 에어콘1, 냉장고1,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880-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183평, 요사채 60평 (큰방4, 큰거실2, 화장실2)
- 인법당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330-58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면
- 3층건물중 3층
- 법당 27평,삼존불
- 주차 20대가능
-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502-2618

포교원 안내

- 위치 : 송파 삼전동 5층건물중 3층
- 30평 대로변위치(9호선 개통예정)
- 법당,상담실,공양간,화장실,주차장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120만원
- 시설비 추후상담

010-7660-5151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1075번지외 5필지
- 등기상 3천평이나 실평수4천여평임
- 가옥 60여평 한동
- 현장 대형차 진입
- 사계절 계곡물 흐름
- 가액 : 4억(절충가)

010-6253-3107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 평수 : 40평, 3층 건물중 2층
- 쑥뜸, 창고 6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5451-6056

사찰최적지전통한옥

(밀양 얼음골)

- 총부지 6,200평, 전통 한옥 2채 (45평 30평) 및 한옥보일러실, 해발 400M 전망 최고의 명당
-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인접
- 현재 팬션 운영중
- 가액 : 33억

주인직 010-6563-3122
010-7100-6203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가액 :대출 4천안고 1억 2천만원

010-8794-12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8223-4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4천만원

010-7161-2108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3〉 2주차: 아픈 것도 습관이 된다

한 순간 호흡처럼 통증 흘려보내라



감정의 악순환 고리

감정의 경험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공포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 몸은 위협을 느끼면 심장박동이 늘어나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대로 얼어붙을 준비를 하느라 긴장을 한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투쟁-도피-경직(fight, flight or freeze)' 반응이다. 이것은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실 싸울지, 달아날지, 얼어붙을지를 결정하는 데는 뇌만큼이나 몸도 크게 관여한다. 예를 들어 몸이 위험을 느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몸 전체가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한다.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그 예다. 마음은 이런 몸의 반응을 감지하고 정서적 반응을 촉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을 의식하고 보통은 거기에 두려움, 분노, 걱정, 사랑 등의 이름표를 붙인다. 이 과정은 너무나 빠르고 매끈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단계가 마치 한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에서 온갖 반응이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감정만을 인식하게 된다.

마음은 항상 거의 올바른 해석을 내린다. 다만 만성 통증이나 질병, 스트레스 등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해 온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통증을 예로 들어 보자. 당신의 뇌는 통증이 발생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 눈을 부릅뜨고 망을 보며 통증의 기미만 보여도 최악의 통증을 피할 단계를 당장 밟아 나가려한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몸을 긴장시키고, 통증, 질병, 부상 등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시 역으로 이것이 몸을 통증에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악순환 고리가 촉발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2차 괴로움이 미쳐 날뛰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반응이 아예 뇌에 그대로 새겨져서 세상 모든 것을 통증의 색으로 물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증을 더욱 쉽게 느끼게 되고, 통증을 느낄 때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느끼게 된다. 결국 통증에서 자유로워지기가 더 힘들어지고 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신의 두뇌는 괴로움을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배워 괴로움이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뇌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사람들은 통증에 대한 의식적 감각을 만들어내는 뇌 영역인 통증 매트릭스에 신경조직이 더 많다. 오랫동안의 고통이 이들의 '고통 근육'을 크게 키워서 더욱 효율적으로 괴로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동안에 그저 감정과 신체적 감각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 또한 함께 관여한다. 통증이 느껴질 때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때 당신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꺼내 든다. 바로 이성적인 비판적 사고(rational critical thinking)이다. 당신은 자신의 현재 위치? 통증?를 안다.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곳? 통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이 어디인지 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둘 사이의 간격을 분석해 이를 좁히려 한다. 그리하여 마음의 '행동 모드(Doing mode)'가 가동된다. 행동 모드는 자신의 현재 위치가 자기가 있고 싶은 위치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만성 통증과 괴로움에 행동 모드를 이용하려 드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현재 위치와 가고 싶은 위치 사이의 간격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그 간격을 강조해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약이란 약은 이미 다 써 보았는데도 간격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는 마침내 정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다. 당신은 점점 더 그 차이에 집착하게 되고 탈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대안이 있다. 만약 만성 질환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면 몸에서 촉발되는 불쾌한 감각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통증을 더욱 부채질하는 부정적인 생각, 느낌, 감정의 악순환 고리는 멈출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음을 '의식'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메타인지(metacognition)'라고 부른다. 마치 생각, 느낌, 감정이라는 구름이 끼어 있지 않은 산 정상에 서서 자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음의 '존재 모드(Being mode)'라고 부른다.

존재하는 인간이 되기

4장에 나온 1주차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 과정을 통해 호흡과 신체감각이 끊임없는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통증은 다른 모든 감각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것도, 고정적인 것도 아니며 항상 변화한다.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은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 사이의 차이를 처음으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도 녹아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과정은 이런 생각들을 한 걸음 더 확장시키고, 더욱 심오하게 다듬는 것이다. 마음챙김에서 핵심적인 측면은 매 순간의 경험에 대해 균형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신체감각과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 또한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다. 생각의 잡담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가 바로 마음의 행동 모드가 작동 중일 때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 이야기의 일부라고 느끼기보다 외부의 관찰자로서 분명한 균형감을 가지고 이런 잡담을 의식할 때가 바로 마음의 존재 모드가 작동 중일때다. 마음의 잡담은 괴로움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오고가는 잡담을 그냥 관찰하기만 하고, 그 내용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통증과 스트레스는 차츰 해소된다.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엄청나게 자유로운 경험이다. 이것은 또한 통증이란 일상적 경험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쾌한가? 그렇다. 그것이 당신 삶의 전부인가? 아니다.

이번 주에 소개하는 호흡의 닻 명상은 작동 중인 마음의 행동 모드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마음이 자기 자신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어떻게 필요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 내는지 볼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생각 안에 갇혀서 세상을 보는 대신 생각 자체를 바라봄으로써 통증, 스트레스, 걱정으로 물든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존재 모드다. 이를 통해 당신은 괴로움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시켜 버린 자동 조종 모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호흡의 닻 명상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배운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까?

뇌, 몸 반응 감지해 정서 촉발
스트레스 반응이 통증 더 키워
마음 작동 보며 '균형' 찾아야
호흡 집중하며 고통서 멀어져

첫째,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호흡과 관계를 맺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증, 질병, 스트레스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오직 이 순간에만 호흡을 할 수 있다. 과거나 미래에서 호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일 뿐 경험이 아니다. 통증과 괴로움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통증은 한 번에 한 순간만 경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신의 의식에게 역동적인 닻을 제공해 준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언제 옆길로 새는지 알 수 있고,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옆길로 샌 마음에게 다시 돌아올 초점을 제공해 준다.

셋째, 호흡은 우리가 언제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준다. 호흡은 스스로 호흡한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런 고요하고 평온한 기분을 어디든 함께 가지고 다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호흡은 늘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넷째,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로 잡으려 드는 성향을 의식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놔두어도 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다섯째, 호흡은 대단히 민감한 감정의 레이더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나 불안, 통증 등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숨을 참거나, 빠르고 얕은 호흡과 깊고 부자연스러운 호흡 사이를 왕복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 호흡에 반영되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의식을 호흡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탈진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경고 신호를 들을 수 있다.

살아있는 기분과 넘치는 활력

카렌은 며칠 동안 호흡의 닻 명상을 하고 난 후에 자기 몸에 다시 활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카렌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끼든 간에 마음의 상태는 호흡처럼 언제나 흐르는 것임을 깨달았다.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탈진, 괴로움 등은 모두 어느 순간 솟구쳤다가 다시 사라진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사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무척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모든 생각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정확한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들조차 정확하지 않다. 통증조차 차오르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존재다.

카렌도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향상된 균형 감각을 뼛속 깊숙이 느끼지는 못했다. 이 메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가 호흡의 닻 명상을 시작하고 난 후였다. 카렌은 호흡이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경험될 수 없음을 배웠다. 당신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호흡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호흡밖에 없다. 카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겪는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우울증 중 상당 부분은 내 마음과 몸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생기는 결과라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나는 삶과 분리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분리감은 무자비하고 혹독한 목소리로 찾아와 그녀를 나약하다 비난하고, 통증에 굴복한다고 끊임없이 꾸짖었다. 이것은 행동 모드로 작동하고 있던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명상이 존재모드라는 대안을 제공해 주었다. 존재 모드는 적극적으로 통증을 회피하는 행동과 아예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려 애쓰는 행동사이로 나 있는 길이었다. 덕분에 카렌은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통증을 부드럽게 탐사해 볼 수 있었다.

자신의 통증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카렌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통증에 다정함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마치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듯 통증에 접근했다. 이것은 그녀가 실제로 처음 경험해 본 자기 연민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다정한 내면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로 오게 됐을까?' 이 목소리는 늘 가시 돋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윽박지르던 평소 내면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넌 왜 그렇게 멍청해서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난리야? 멍청하게 이런 지경까지 오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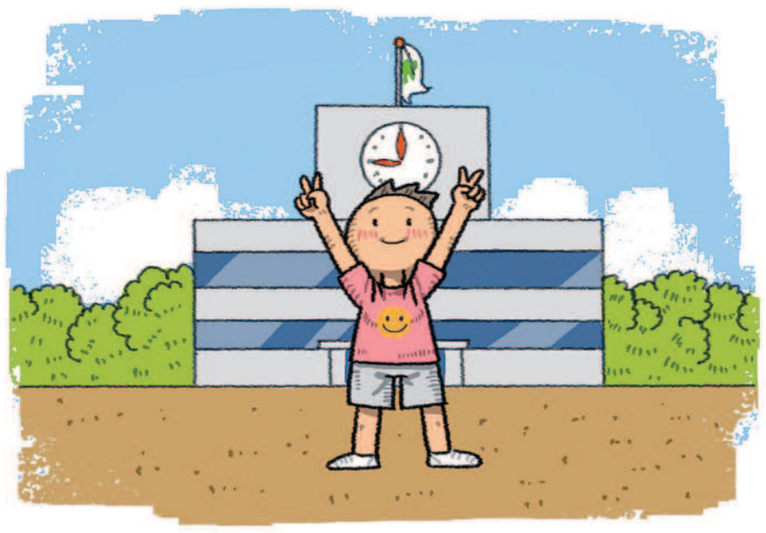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학교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법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곳임을 알아요

School is for studying but also where I grow up.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일찍 학교를 세운 곳은 수메르입니다. 수메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고대 문명으로, 쐐기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문자의 발명으로 수메르에는 '필경사' 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점토판에 쐐기문자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점토서판의 집(에두바, edubba)이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학생들도 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달마다 24일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지겨운 학교."

최근 이런 글을 적어놓은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학교를 지겹고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힘든 공부, 하기 싫은 숙제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요. 그러나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럿이 어울리면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평생을 함께 할 친구를 사귀는 곳도 바로 학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장 즐겁게 떠올릴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학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보기 바랍니다.

*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 학교에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겠어요

I will go to school to have fun and enjoy my c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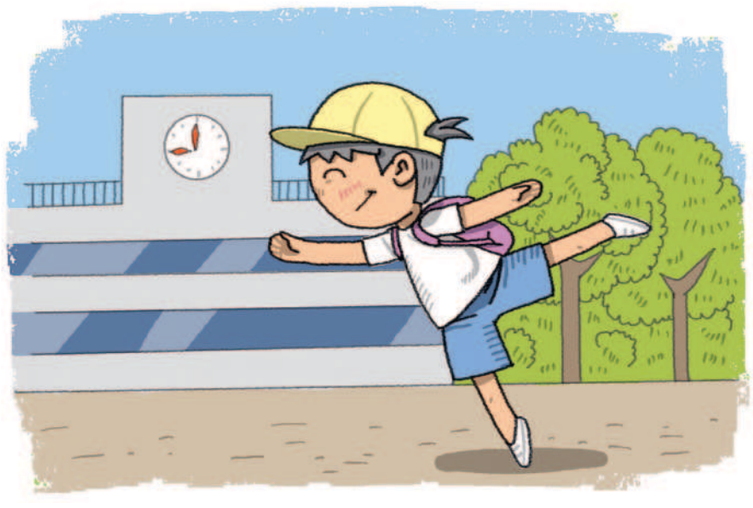
동화 속에는 가끔 별난 학교가 나옵니다.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새커(Louis Sachar, 1954~)가 동화 속에 만들어 보인 웨이싸이드 학교는 무척 별난 학교입니다.

1층 건물에 서른 개의 교실을 나란히 지으려다가 그만 위로 서른 개의 교실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30층짜리 학교에 화장실은 단 한 곳뿐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그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모두 괴상하기 그지없고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도 엉뚱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이런 학교만 있다면 휴일에도 가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웨이싸이드처럼 엉뚱하고 괴상한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학교는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곳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없는 학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친구를 사귀고, 공부는 조금씩 노력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규칙을 잘 지켜서 선생님을 웃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조별 숙제나, 반 대항 축구나,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즐거운 곳이 되려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I will be thankful for my teachers.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년)는 어릴 때 몹쓸 전염병에 걸려서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없고 대화를 나누지 못해 학습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곱 살 때 앤 설리번(Anne Sullivan, 1866~1936년) 선생님을 만나면서 헬렌 켈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도 어릴 때 시각을 잃었지만 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사물을 만지게 하고 그것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만에 헬렌은 분수대의 차가운 물을 만지며 '물'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 사나웠던 아이가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의 기쁨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 뒤로 헬렌 켈러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다녔고 마침내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우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애썼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의 가르침은 헬렌 켈러가 평생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귀를 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는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기억에 남는 고마운 선생님이 있나요?
*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 여러분이 선생님이 된다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해 주고 싶은가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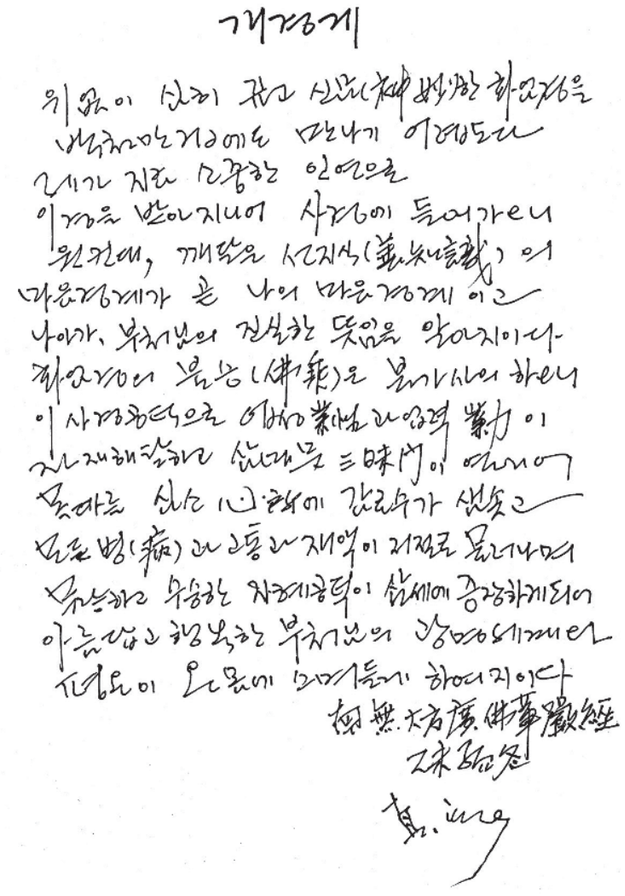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진귀 화두집 〈평온〉 출판

大方廣佛華嚴經 사경집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 는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불자 세상보기

19대 국회, 민생 뒷전 · 갑질 앞장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12월 9일 19대 정기국회가 끝날 때 정의화 국회의장은 "19대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 시한까지 "선거구획정마저 안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 눈에 19대 국회는 이미 최악의 국회다.

우선 19대 국회는 민생과 국가발전에 긴요한 법안들은 몇 년 째 처리 안하고 방치했다. 국회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복 투자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원샷법, 노동 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국회가 이러한 법들의 통과를 저지함으로써 정부는 어떠한 새로운 일도 못하고 국가는 위기로 몰리고 있다.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정해 놓은 선진화법을 이용해서 야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법도 저지하고 있다.

그래서 19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법안 처리 실적에서 19대 국회는 2012년 개원 이후 총 1만7309건(의원입법 · 정부제출 포함)의 법안 중 5566건을 처리하여 약 32.2%의 법안처리율을 보였다. 18대 국회의 44.8%(1만3212건 접수 · 5920건 통과), 17대 국회의 50.28%(7138건 접수 · 3589건 통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 여건이 자동 폐기된다. 난투극을 벌이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어떤 중요한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발목 잡아
20대국회 인적구성 바뀌길 기대
승가 '멸쟁법'의 지혜 발휘해야

또한 19대 국회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없는 다른 법안들은 정략적으로 끼워 넣기 하는 국회로서의 악명을 얻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끼워 넣기 한 일이다. 그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대통령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약칭 아문법)이다. 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5조 8천억 원(민자 1조 7천억 원) 예산의 아문법은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통과시켜준다는 대가로 야당과 빅딜을 건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문법만 통과시켰다.

19대 국회는 의원들의 갑질과 저질 막말이 극에 이른 국회로도 기억될 것이다. 어떤 의원은 시집을 출간한 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에 판매했고 또 다른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에게 "탈북자 XX"라는 폭언을 하는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위세를 부린 의원도 있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저질 막말과 욕설을 하는 경우도 한 두건이 아니다.

20대 국회의 최대의 과제는 이런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인적구성을 과감히 바꾸어 정상적인 국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먼저 과도하게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늘어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줄이고 한없이 확대되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과 방법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그 폐해가 드러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다수결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수세기에 걸친 민주주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이다. 승가에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다인어(多人語)라는 멸쟁법이 있다. 이런 지혜를 가볍게 생각한 결과는 비극이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폐지는 다음 국회에서 꼭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우선 선진국보다도 과도하게 받는 국회의원의 세비와 많은 보좌진을 줄이고 200여 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줄여야 한다.

이런 모든 개혁은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을 통해서 국회의 인적 구성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를 거부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일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진출시키는 일이다.

발언대

동국대 학내 갈등 어디까지 가나

12월 3일 제297차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사태로 갈등이 해소되는 듯 싶었던 동국대 사태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다. 원칙에 입각한 학교운영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서로 맞서고 있다. 이에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사 전원 사퇴결의, 나쁜 선례 남겼다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12월 3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제297차 회의를 갖고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한다"고 법인 사무처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같은 성명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나온 것임으로 문장 그대로만 보면 현재 동국대 재단은 해체상태로서, 임자 없는 무주공산이 된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현 동국대 이사들은 저질렀다.

이번 총사퇴의 원인이 된 '이번 사태'란 동국대 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 현 총장과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장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이에 교수회장과 일부직원이 동조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화답이나 하듯이, 이런 농성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이사장과 이사 전원이다. 뭐 사람은 살리고 보아야 한다는 게 명분이란다. 그런데 이사들이 이런 감상주의를 가지고는 동국대를 위시해 산하 학교가 10여개나 되는 거대 재단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사립학교에서 총장이나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학생, 교수들의 데모나 단식 농성은 왕왕 있어 온 일이다. 조그마한 빌미만 있으면 비일 비재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에서 이들의 요구를 따라 이사회가 총사퇴하는 일을 없었다. 모든 학사와 학생지도는 각급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에서 해결할 일이지 법인이 관여 할 일은 아니다. 법인은 학교장을 상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 된다.

이번 동국대 법인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학생이 장기 단식 농성만 밀고 나가면 법인이 항복하는 그런 선례 말이다. 동국대 학생이나 교수, 동문들 사이에선 동국대가 성균관대나 중앙대처럼 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다. 종단이나 법인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새겨야 한다.

'불통'이 문제를 키웠다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1년 동안 지속되어온 동국대 사태가 일면 스님의 입장표명을 통해 일단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게 되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말한다. 탱화를 훔친 바 없고 단지 분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해명을 듣고서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

단지 애당초 비대위(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가 요구했던 것은, '만일 결백하다면 해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결백하지 않다면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5개월 넘게 침묵을 지켰으며, 구성원들의 면담요구조차 거절했다. 그러는 사이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동국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 이후에 우리 비대위는, 만일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소통마저 거부한 책임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을 따름이다. 해당 스님은 중앙종회를 코앞에 두고서야 해명하고 일부 언론을 고소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혜문 前승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퇴진을 요구했다고 전해지는 것 역시 당연한 노릇이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당사자가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임기 내 이사회를 열지 않아 이사장 유고사태를 불렀으며, 차기 이사장은 포기한다면서도 이사직 사퇴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 직무대행도 자신이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사회 결의 취지를 정면 거부한 셈이다. 이제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서 동국대 사태는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社說

새해엔 소통·화합 꼭 이루자

2015년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굵직한 행사도 많았고, 범계 의혹부터 종단 내 폭력사태 등도 벌어졌다.

그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범계의 경우 해 마다 불거지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올해에는 그 수위가 매우 높았다. 주로 주지 등 직함을 가진 쪽과 반대쪽 스님, 신도가 서로에게 무분별한 비방과 폭로, 이로 인한 법적 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점차 확대되는 형국이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화살은 종단 집행부에게 돌아가는 비판의 악순환 구조가 이뤄졌다.

동국대의 경우 이사장 일면 스님의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을 놓고 한해 학내 갈등이 최고 수위까지 이르렀다.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은 50일 간 단식을 했고, 결과적으로 조건부 이사진 사퇴를 이끌어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 진전은 있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 같은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한국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한다. 단초는 올해에 있다. 한 가지가 대중공사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각계 각층의 대중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불교계에 부족했던 토론 문화 증진과 구성원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24일 간 조계사 피신 사태에서 불교계는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갈등을 봉합하려 많은 노력을 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화쟁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숙제는 남았지만, 서로의 이견을 '화(和)'하는 정신은 종교로서 불교가 견지해야 할 자세이다.

대중공사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쟁의 정신으로 화(和)한다면 내년 불교계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 소통과 화합의 소식이 내년에는 전해지길 기대한다.

JSA에 법당불사 원만 회향되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내년부터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불사를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군종교구는 12월 1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JSA 내 법당 신축을 의결했다.

신축법당은 JSA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위치하며 고려시대 전통을 되살린 목조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법당은 25평 규모로 신축법당 내에는 아미타 삼존불과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는 무량수전이 자리하게 된다.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JSA법당에서 군종교구는 부처님오신날 등에 평화기원 행사와 함께 타종식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JSA 내 종교 중 가장 열악한 시설을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는 교회가, 가톨릭은 공소가 JSA 내에 있었다. 기존 법당으로 활용되던 영수사 건물은 막사를 개조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법당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군종교구 내년 예산 21억 원과 함께 불사 특별회계로 5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 법당이 완공되면 JSA 근무 군장병들과 연간 수 만 명의 국내외 안보현장 견학자들이 한국전통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군종교구는 신규 사업으로 간부와 군가족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각종 군법당 불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군법당 표준설계안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설계비용을 아끼고, 군법당 신 · 증축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군포교는 미래불교의 텃밭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소홀함에 없어야 한다. 군종교구의 신년 계획들이 누수없는 군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되길 기대하며, 사부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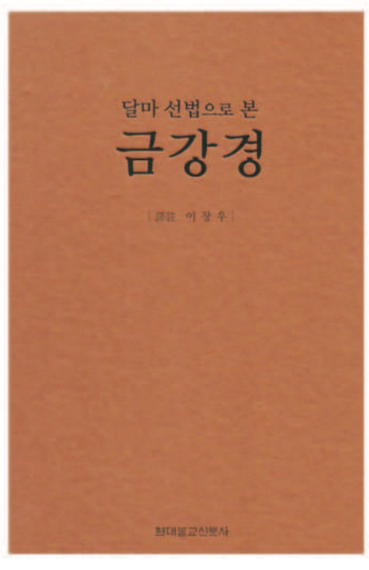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장애인 편견 없어지는 그날까지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



묘전 스님은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컸다며 함께 사진 찍기를 원했다. 1980년 부산 보덕사로 출가한 스님은 1996년 중앙승가대학 재학 시절 소쩍새마을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에 나서게 됐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이 궤도에 오르는데 기여했으며, 원생들로 구성된 예술공연단이 3회에 걸쳐 전국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8회에 걸쳐 한일장애인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비복지타운이 2013년 장애인시설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앞열 왼쪽 세번째가 묘전 스님.

경전에는 부처님 제자인 ‘주리반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적장애를 가졌던 ‘주리반특’은 지능이 너무 떨어져 조금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청소와 같은 허드렛일만 주어졌다. 하지만 그는 지극정성으로 청소를 했고 방이 깨끗해지듯 마음이 맑아졌다. 주리반특은 수행자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은 장애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을 이끌었다. 신체의 불리함을 인욕과 지혜의 근간으로 오히려 본 까닭이다.

부처님과 같이 20년 가까이 지적장애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온 한 스님이 있다. 장애인들의 척박한 삶에 희망을 전하는 이는 바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이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자비복지타운에서 스님을 만나는 12월 15일, 기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부터 걷어낼 수 있었다. 스님은 최근 묘엄불교문화재단이 선정하는 묘엄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쩍새마을’에서의 봉사 인연으로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묘전 스님이 장애인 보살핌에 나서게 된 것은 장애인 복지에 일대 파문이 일고 있었을 때였다. 바로 1995년 소쩍새 마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MBC PD수첩에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실태를 다룬 ‘소쩍새마을의 진실’을 보도했다. 당시 원장이었던 일력 스님은 소위 가짜승려로 판명됐으며 그가 보여준 비행은 수많은 후원자들은 배신감을 안겨줬다. 이에 조계종립 승려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은 소쩍새마을을 인수했다. 승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였다. 묘전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자원봉사를 통해 소쩍새마을을 알게 됐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의 추천에 1996년 11월 재학 중에 처음 소쩍새마을에 봉사활동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 후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승가원이 인수했고, 이에 소쩍새마을의 살림 형편은 어려운 상태였어요. 장애인 가족들은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이후 총무소임을 맡게 된 스님은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다고 말했다.

“인수받았을 때 시설이 폐교에 있었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대부분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호적이 없는 장애인 가족들이 21명에 달했어요.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개똥이, 공주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선재, 연화 등 불교 이름으로 호적을 만든 것이었어요.”

스님은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해결에 나섰다. 총무로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후원처를 발굴하는 한편 야채, 육류 등의 식자재를 후원받고, 원주의 시장 등을 혼자 다니며 시설 인수 초기의 어려운 살림을 묵묵히 헤쳐 나갔다.

겨우 정상화 시키니 사람 홍수가

근 1년여를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다. 중앙승가대학에서 맡게 된 이후 ‘정상화’가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에서

장애인 보살핌 20년

1996년 소쩍새마을 봉사활동 계기
2005년 이천으로 이전하며 원장 맡아
300여 장애인 돌봐… 묘엄문화상 수상

장애인 가족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자고 나면 시설에 의탁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났다. 묘전 스님은 ‘사람 홍수’라고 표현했다.

“인수 당시에는 78명의 지체장애인 가족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침 6시에 아이들 밥을 짓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라면박스에 3개월 정도 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도 울었는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아이였어요. 날이 추워 온몸에는 빨간 반점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인데 살려야죠. 원장이셨던 보각 스님의 성을 따서 조경로라고 이름을 짓고 보듬어 안았습니다. 이렇듯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 모두가 절절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997년 쯤 됐을까요? 함께 사는 장애인 가족들이 316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 만에 200여 명이 불어난 것이죠.”

스님에 따르면 당시 자비복지타운 내 직원은 채 30명이 되지 않았다. 암말기환자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등이 많아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밤낮없이 2교대를 서기 일 수였다.

“지금 같으면 못한다”며 활짝 웃는 스님은 “모든 직원이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데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잘해주지 못한 점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현재는 후원도 늘었고 재정적으로 국가보조도 일부 받고 간병인도 지원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직원들이 모두 다 했어야 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바꾸는 일이 가장 힘들어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미인가 시설이었던 소쩍새마을은 주거환경 개선과 개방,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자비복지타운으로 쇄신했지만 처음부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사회복지시설 인허가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활과 주거의 공간 확보를 위해 2005년 이천으로 이전하게 된다. 스님은 그해 12월부터 원장을 맡아 시설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 앞장섰다. 시설 이전과 인가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나서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 반대에 봉착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니 지역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각 가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호소하며 주민들을 설득했죠. 그 과정에서 승려로서도 듣지 못할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웃는 얼굴로 한분 한분 설득해야 했지요. 담배 말리고 농사일을 거들며 승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아직도 지역 내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년 경로잔치를 열고 지역 어르신들이 마음을 내도록 하게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당시 원력 있는 이들의 십시일반 노력으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은 정부 지원금 12억 원을 유치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건립부지 마련을 위한 모금을 벌여 30억 원을 모았다. 이를 통해 2006년 11월 불교계 최대 장애인 생활시설인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이 자리하게 됐다.

스님은 2011년부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장애가족들이 생산한 비누와 두부 등 상품을 나누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천연비누제조’ 강좌를 개설해 장애인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교육과 훈련을 받는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꾸셨다고 전합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생각이 저절로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중증장애인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

묘전 스님은 이천으로 자비복지타운이 자리를 옮긴 뒤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에 앞장섰다. 타운 내에 물리치료실을 개원하고,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의료재활과 특수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설 내 보치아 경기장과 경기용품을 구비하여 장애인들이 손쉽게 체육활동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치아는 ‘컬링’이나 ‘볼링’과 비슷한 경기로 뇌성마비 중



쉼없이 정진하겠습니다”



2013년 5월 진행된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에 출전한 사물놀이단


2015년 8월 진행된 볼링대회에서 스님과 선수로 나선 불자 원생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다소 장애가 있지만 능력이 있는 이들이 많아요. 모든 장애인 가족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만 한두 명이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여도 다른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함께 돌아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1998년부터 시설 내에서 보치아 경기를 준비했다. 2002년 10월, 안명훈 가족이 부산 아태장애인경기에서 금메달을 2개 획득했으며 2004년에는 아테네장애인올림픽에서 역시 안명훈 가족이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스님은 “다소 장애가 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다름이 없다”며 “이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07년에는 경기도 세 번째 지적장애인축구팀으로 ‘FC승가원’을 창단해 2009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7명의 선수가 선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근 설성초교 방과후학교로 파견돼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아동들에게 축구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초등학교 학생과 다문화가정의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리틀FC승가원’도 창단 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불교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죠.”

이와 함께 스님은 장애인 가족들로 사물놀이단을 육성하기도 했다. 장애인가족들의 높은 열의 속에서 이들은 창단 1년 만인 2008년 전국장애인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9년 경기도 두둥페스티벌에서 대상, 2011년 제1회 경기도지사배 풍물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사물놀이단으로 발전했다. 현재도 지역의 다양한 무대에서 매년 15회 이상 초청공연을 하고 있다.여기에 2008년 일본 요코하마시 라폴센터에서 ‘사물놀이’와 ‘꼭두각시’ 공연을 했으며 2010년에는 일본 이세하라시 문예회관 극장에서 일본 장애인 · 비장애인 팬터마임 극단인 쇼난 가메구미 30주년 공연에서 초청공연, 2013년에는 일본 에노시마 가마쿠라 예술회관에서 합동공연을 하는 등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한 · 일 장애인 교류사업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이천아트홀에서 ‘사물놀이’, ‘난타’, ‘꼭두각시’, ‘댄스’ 팀으로 구성된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공연단’을 만들어 지역주민 대상의 유료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감동적이었다고 전하더군요. 장애인들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린 계기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끼와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공연단’은 2008년 파주 전진사 군부대 공연을 시작으로 삼척23사단, 포천 이동8사단, 원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장충체육관, 원주치악체육관 공연 등 17회의 외부 공연을 하며 군인, 재소자, 지역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

스님은 “역으로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장애인 가족들도 이렇게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능력 개발 10년

보치아 경기 육성… 장애인올림픽서 금메달
2007년 지적장애인축구팀 ‘FC승가원’ 창단
장애인 가족들로 사물놀이단 만들어

“장애인 독립가정 이루도록 돕는 게 꿈”

이와 함께 스님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지적장애인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 모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들도 자신의 생일에는 외부에 나가서 지인들을 모아 파티를 열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옷을 사 입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노동을 해서 수익을 얻기를 원해요. 모두가 각자 통장이 있고,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스님은 2010년부터 장애인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전개됐던 비누 및 두부 제조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상품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내에는 비누 · 도자기 · 스태플러 제작, 제과, 카페 운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외부업체에 5명이 직업을 두고 있고, 자체 내 보호작업장에 시설 거주자 50%, 재가 장애인 50%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윤이 발생하면 인원수대로 나눠서 모두 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스님은 “살다보니 그 안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 서로 커플반지를 주고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스님은 “현재 5쌍이 결혼한 상태로 내년에도 1쌍이 결혼할 예정”이라며 “시설에 남은 가족의 경우 별도의 부부방을 마련해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의 여건과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19년이 넘게 행복한 부부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2014년 2월에 발표된 ‘전국장애인시설평가’에서 전국상위 10% 내 시설로 평가되기도 했다.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 활동에 대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스님은 “장애인 가족의 어머니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았다”며 “장애인들에게 기회와 선택권을 주고 함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장애인복지에 보다 관심 가져야”

“스님인데 참선이나 기도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스님은 “주변과의 인연도 소홀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마음공부는 많이 됩니다. 여기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도 행복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몸 하나 건강한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스님은 소임을 보며 나온 월급을 모아 장애인 치료 등에 도움을 준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함께 지내는 장애인 가족이 한명도 소외됨이 없이 행복한 것이 남은 생의 목표”라며 남은 임기 동안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이 장애인들의 삶의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불자들의 후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3개 프로그램 외 10개가 넘는 자활 프로그램이 모두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종교가 없거나 이웃종교인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한번은 장애인 가족들의 공연을 수십 개 사찰을 다니며 홍보를 했는데, 결국 아무 절에서도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불자들에게 장애인들이 그 한계를 넘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역 장애인 분들만 관람하셔서 실망했죠. 후원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와서 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 문의 (031)642-1300

이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부처님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은 나와 우리가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들이 많다. 장애인들 역시 부처님의 제자라고 외치지만 정작 부처님 도량에 참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은 불교에는 팔만대장경에 담긴 한없는 많은 법문과 함께 많은 불교경전과 서적이 있지만 이를 보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광림사에서는 2011년부터 시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청각 · 시각장애인 법회를 열고 있다. 매달 한번은 법산 스님께서 법사로 그들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린다.

법회에 동참하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은 경전을 외우기 위해 손끝으로 한자 한자 만지며 독경을 한다. 〈천수경〉〈반야심경〉은 물론이고, 법문 내용도 모두들 녹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법회에 올 때까지 법문을 계속 듣기 위함이다.

광림사에서 부지런히 점자서적과 음성녹음 도서를 제작하고 있지만 많은 경비 때문에 길이 막힐 때가 많다.

두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시각장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평화로움을 느끼기를 발원하며 후원자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언젠가 법회를 마치고 였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스님, 부처님의 형상이 궁금합니다. 특히 부처님이 보이시는 아름다운 미소가 참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는 무척이나 당황하였다.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형상을 설명했으나 부처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출가자로서 부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니 고개를 들기가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반면에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감사함을 몰랐음도 느끼게 됐다.

결국 부처님의 미소를 설명하기 어려워 직원들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다음 기회로 이야기를 넘겼다.

한 직원이 다음날 조계사 앞 불교용품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상,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을 구입하여 출근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깜짝 놀라서 칭찬했다.

법회일을 맞아 불상을 앞에 놓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분씩 순서대로 손으로 부처님 상호를 만지도록 했다. 부처님 형상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특히 입가에 은은하게 있는 미소의 모습도 직접 만져 보게 하며 설명을 하였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띄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스님, 이런 시간은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후 광림사에서 진행되는 법회 마다


그림 · 박구원

시각장애인들의 참석이 늘어났다. 현재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 모든 제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내견(도우미보살)도 법회에 참석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도우미 역할을 해주기에 안내견 보다 ‘도우미보살’이라는 명칭을 주었다.

초반기에 불교 성지순례 법회때에 도우미가 되어주는 안내견이 청정도량 내에 들어 올 수가 없다고 하여 종무소를 뛰어다니고 허락이 안 되면 스님을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리고 어렵게 법당에 참배하였지만 이제는 스님들과 많은 불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법당참배도 훨씬 수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장애인 불자들이 비장애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찰을 참배할까 말까 망설이기보다 활발하게 신행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주어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며 장애인 포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해성 스님(연화원 이사장)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주얼드림)

대원 문재현 선사님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값 15,000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각권 12,000원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주인공이라는 이름 있기 이전이 바로 참불성 자기다!

용무가 자재해지려면

질문 『도덕경』에 보면 "무위이무불이(無爲而無不爲)"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뜻은 '무위를 실천해 봐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큰 스님 법문 중의 "내 내면에 진실하게 맡기면 안 되는 게 없다."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인들과 선지식들께서도 자신의 내면을 깨달아서 진리를 실천해 나가셨는데, 왜 실천해 나가는 모습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런 성인들처럼 용무가 자재해지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이렇게 한데 모여 앉았다가도 일어서면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헤어졌다 또 모이고 모였다 헤어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리가 그러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예전에 강태공은 곧은 낚시를 넣고 앉았으면서 영계를 다스릴 때에 명령을 해서 다스렸다 합니다. 노자(老子)는 영계를 다스릴 때에 영원한 나의 친구로서 나와 둘 아니게 다스렸다 합니다. 또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고 영계를 다스렸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 다스린 것이 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물리를 다 파악 못하고 물리가 다 터지지 못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이 내가 그대로 여여하게 닥치는 대로 생활을 한다면 그처럼 그대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또 모르고서 그대로 한다면 아무리 해 봤자 걸립니다. 내면의 나와 외부의 내가 그렇게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서야 그 모든 것을, 외부의 모든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야, 명령해서 쓰는 게 옳으냐, 영원한 친구로서 나와 둘이 아니게 쓰는 게 옳으냐, 촛불을 켜 놓고 쓰는 게 옳으냐?" 했을 때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 놓고 썼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고 또 켜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조금 더 있다가 갈 것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물질로써는 절대로 거기에 눈을 뜨지 말라 하는 거죠. 물론 나의 내면세계의 그 모두를 알고서야, 파악하고서야 이해가 가고 또 가늠하고 또 깨닫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닥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뿌리 말입니다. 노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곧은 낚시를 넣고 아무리 있어 봐라. 네가 명령해서 한다면, 말하자면 군사를 모을 때에 분산되기가 쉽고 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해이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백천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노자는 부처님의 뜻을 그만큼 그래도 둘이 아니게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유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깨 한 알갱이를 심는다면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시간을 두어야 하고 또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의식이란 것은 찰나찰나 바뀌어서 화할 수가 있으니 한 찰나의 한 생각이, 그 한 생각이 수천수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용을 한다는 것은 자기 불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법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즉, 물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몸속에 적게 잡아도 십일억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숫자를 어떻게 따지리까마는, 십일억이 넘지만 십일억이라고 대충 잡는다면 만약에 그 십일억 중에 하나가, 그 의식이 깨알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없이 수만 개가 됐다가 아니, 억겁의 이 세상 대천세계를 꽉 덮고도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가 말입니다. 그 십일억 중에 말입니다. 그 많은 것이 다 벌떼 일어나듯 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고도 하나가 일어났다 하면은 수십 개가 일어나고, 만약에 막는 놈은 적고 일어나는 놈은, 해하게 하는 놈은 많아진다면 그 집은 쓰러지는 겁니다. 좀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이, 지키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만약에 빨갛게 생각을 했다 하면은 이건 전체가 빨개집니다. 노랗게 생각을 했다 하면 전체가 노래지는 것이고. 악으로 나오는 걸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 할 때는 전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내면세계의 그 살림살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바깥의 외부의 살림살이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묶어 놓지도 않았는데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四聖諦)를 설할 때 고(苦)라는 문제가 제일 첫 번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악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고, 선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거든지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자성불이라고 합니다.

본래자성불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가하니, 마치 맷돌처럼 물건만 넣으면 저절로 갈아져 나오고 맷돌이 이탈을 안 하고 잘 돌아가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비유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맷돌과 같으니깐요. 심봉을 꽂지 않은 맷돌은 이탈을 하게 되고 잘 물건이 갈려 나오질 않아서 사는 데 복잡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한 가정이 파괴 직전에도 갈 수 있고, 또는 화목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넓게 보지도 못하며, 또 그렇게 좁아서 자기 살기도 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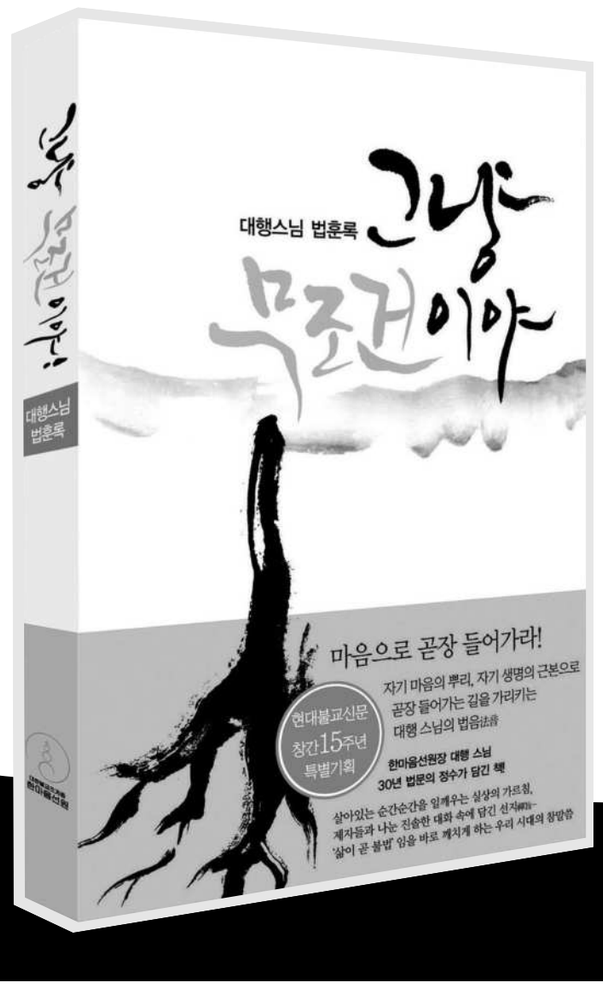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감지를 못한다면 좋은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이 먹어 보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그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무의 세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득도를 하여 견성성불 하신 분이 무의 세계를 아시는 것과는 다르지만 중생들 중에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한 찰나가 바로 저승이고 한 찰나가 이승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생을 본다든가 조상님들이나 귀신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습, 또는 타인의 생각이나 습관을 보는 것을 귀신이 보인다거나 또는 조상님과 대화를 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옳게 보았는지요?

답변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의 길이라는 것은,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도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도가 아니고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도 도가 아니고, 모두가 도가 아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로, 말이 없더라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해 준다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나도 목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격이 바로 도의 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체를 모두 둘이 아니게 거기다 놓아라. 거기에 둘 아니게 진짜로 믿고 놓을 수만 있다면 조상님네들도 다 활현한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산 사람들은 고비 고비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고비 고비 넘는 것도 '넘는 게 없는데도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비 고비 넘는 게 없는 고비를 넘을 때마다 그거를 잘 알게 되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아, 이 지위에 들었구나. 여기 이 지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진데 그 한 부분만 알고선 깨쳤다고 야단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이게 통틀어서 정말이지,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용도를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런 지위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아마 서천국에 점 하나밖엔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도하고 그렇게 멋있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 어디든지 걸림이 없어요. 어디든지!

참배하고 공양할 때의 마음 자세

질문 불자들이 혹 절 앞을 지날 때에는 불전에 참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참배하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그리고 식사를 할 적에는 합장을 하는데 이럴 때는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지요.

답변 그게 간단해요. 만 개의 사찰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만 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올릴 때, 내가 그랬죠? 이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서 참배를 올릴 때 왜,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는 노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 아니게 '주인공!' 하면 전체가 모두 하나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셔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 하면 그냥 그 부처와 나, 일체가 다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히 생각하고 하면 그대로 그 부처님 마음도 거기에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그리고 공양을 할 때도 '주인공!' 하면 나와 더불어 주인공이지 개별적인 주인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共食)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뭡니까? 농사지은 사람, 밥 지은 사람, 뭐 뭐, 전부 거기 손길이 갔으니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에요. 그러니 공식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려라 이럽니다.

어느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한 그릇으로 공양을 올리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더라 하는 겁니다. 되남아서 또 올리고,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끊어지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혼자 먹어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절에서. "밥 먹었소?" 이러지 않고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지.' 해 놓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 되죠.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당신이 구정물이 나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새 물이 나오게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 대치가 있어야죠. 똥을 다 누고 밑을 씻어야만이 개운하고 깨끗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질문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 마음을 깨쳐 보자고 해서입니다. 스님께서도 저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꿈을 꾼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그러하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면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냥 간단하게 비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린애가 죽자 그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갔답니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물로 보여서 건널 수가 없고, 불이 불로 보여서 건널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 죽을까 봐 건널 수가 없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건널 수가 없고, 온통 귀신들이 그냥 욱시글득시글하니까 귀신들한테 말려 죽을까 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참 애를 쓰는데, 어떤 노승이 나타나서 "불도 불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니요, 귀신도 귀신이 아니니라. 따로 없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불로 그냥 어청어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그려 놓은 모습일 뿐, 모습은 본래 없으니까 불에 탈 리가 없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어린애 영혼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애를 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많죠.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적인 실험을 자꾸자꾸 해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 찰나가 바로 저승이고 한 찰나가 이승입니다. 한 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서 한 찰나에 천당에 가고 한 찰나에 지옥에 가고, 한 찰나가 바로 이승이며, 이승의 천국이며, 이승의 지옥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려도 말로는 100% 꼬집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발견하고, 발견하면서도 습을 떼고, 또 습을 떼면서도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기 위해 또 습을 떼고, 또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가다 보면은…. 그 보적 장자 아들이 왜 일산을 바쳤느냐? 칠보로 장엄을 했지만 둘이 아니게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맘대로 자유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 그 계단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일산을 바치고 열반계의 구정토를 다 증득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참으로 이 공부를 하려면, 손을 꼽고 기도를 해서 내가 잘되게 빌지 말고 내 한생각으로 그냥, 그냥 돌아가게 하세요. 밖에다 기도를 하면서 맹종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면은 똑 참하겠는데 왜 주인공이라고 그러느냐? 자기 몸뚱이가 공했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먹는 것도 그렇죠, 바로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돌아가니 어떻게 주인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가니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똑같이 부르면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 놓고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이래야 뭐를 시킬 때도 그렇고 부를 때도 그렇고,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편하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거지 그 이름이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있기 이전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라는 이름 있기 이전이 바로 자기, 참불성 자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이라는 이름과 참자기와 또 둘로 보지 마세요.

엊그저께 일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아주 죽게 됐대요. 죽게 된 것도 그렇지만 인체의 건은, 한마음 그 의식에 모두 달려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정말 주인공 자성부처로 인정을 해 준다면, 그 의식들이 그렇게 작용해서 건강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머슴도 존대를 해 주면서 인정을 해 준다면 자기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속에 있는 생명들한테 중생이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것들 그냥 모두 세균 잡속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그런 생명체들을 우습게 보니까 '네가 우습게 보는데, 뭐.'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움죽거리는 거죠. 어린애를 자장자장 하니까 곰이 그것을 흉내 내서 자장자장 하다가 어린애를 죽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내서 오직 나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치가.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죠.

또 내 주인공과 자식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이 저렇더라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데, 뭐.' 그러고선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그 주인공까지 또 밝아지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행입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좋은 법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요 물 컵 하나에 물이 이렇게 담겨야 그릇에 물 담긴 걸 볼 텐데, 요렇게 쓰러뜨려서 반쪽으로 해 놓고서는 요 물, 요것만 보게 만들어 놨으니 그 가르침이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장 지금 부모만 우리 부모인 줄 알게 돼 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해골 무더기에다 절을 하실 때에는 '야, 미생물에서부터 거듭거듭 수없는 광년을 거쳐 진화돼 오면서 내가 어느 생에 벌레의 부모가 안 돼 본 예도 없고, 사람의 부모가 안 돼 본 예도 없고, 사람의 자식이 안 돼 본 예도 없고 또 벌레들의 자식이 안 돼 본 예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모두가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으니 지금 당대의 이 부모만 부모로 알지 말라.' 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더 지혜를 넓혀서 크게 본다면 그냥 아주 바다로 나가서 용이 돼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춤을 출 겁니다, 아마.

재차 한마디 하겠는데요,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천으로 옮겨 가려면, 병고든지 가난이든지 안되는 일이든지 뭐든지, 그 용도에 따라 닥쳐오는 대로 일체 만법을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그런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고 한 번 쳐다보고 웃고 한 번 내려다보고 울어 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를 겁니다. 학설로만 알아서 '큰스님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행하니깐 뭐 물을 것도 없고 자실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빨리 하겠다고 생각도 마시고요. 이것은 빨리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빨리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그냥, 시간도 공간도 없이 내가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감지를 못한다면
좋은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